

| SRI-기획-2021-01 |

수원시 격차관리 지표 발굴

조용준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김민성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21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김선희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2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1년 12월 10일

발행 2021년 12월 10일

ISBN 979-11-6819-025-2(9330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조용준. 2021. 「수원시 격차관리 지표 발굴」.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요약

사회 발전에 따른 격차 문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이익집단이 공존하는 다원화 사회이기 때문에 격차 문제는 갈등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산업화시대의 압축화 성장으로 인해 억눌렸던 사회적 갈등이 안정화 사회에 접어들며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및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빈곤, 소득, 고용, 실업, 지역 간 차이 해소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 및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건강, 교육격차, 사회보호기제, 고령층 고용, 보건 접근 불평등성, 성별 불평등, 주거격차 등과 같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복지표 중심의 정부차원의 해결 노력 및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격차는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양방향에서 격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동안 수원시의 공간, 지역, 소득분배, 임금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격차 연구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적은 있으나 격차 해소를 위한 기준지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원시 격차 해소를 위한 기준 지표 수립 및 격차 해소 방안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원시의 지역 환경에 기반을 둔 시민 생활환경을 파악하여 수원시민의 격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형 지표 구축을 통해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표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지표구성을 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 및 격차지표 자료를 통해 전체 자료 검토를 통해 113개의 지표를 표집 하였으며 격차지표로서 의미가 명확하며 전국단위, 광역단위, 경기도, 수원시 관내자료까지 추출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에 의해 비교 가능한 지표 33개를 1차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후 전국 단위·광역 단위비교, 경기도 내 비교, 수원시 자체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2차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수원시의 격차를 해당 지표만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된 지표는 제외하여 12개의 2차 지표를 도출하였다.

격차 지표 분석에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조사되지 않거나 전국단위로만 조사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완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수원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강, 교육, 경제활동권, 소득·소비, 문화·여가, 주거기반, 생활환경, 범죄·안전, 웰빙 등의 영역으로 조사하였으며, '삶의 질'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측정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앞으로의 기대효과로는 지표를 통한 측정으로 인해 수원시민의 격차를 전국단위와 비교, 서울시와 비교, 경기도와 비교, 수원시 각 구별로 비교가 가능하여 수원시민들의 격차를 측정해보고 수 개년 비교가 가능해지도록 할 수 있다. 체계화된 지표 수치를 통해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단위를 수원시의 각 구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표 수치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여 시정해 나갈 수 있다.

수원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보완으로 인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주관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 지표와는 다른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지며 행복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의 영향이 무엇인지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격차지표의 도입을 통해 수원시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민밀착형 정책입안 및 파악이 수월해지며, 격차의 연차별 데이터를 축적하고 모니터링하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기반을 확장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행복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핵심주제어 5개 내외 필수 기입)

주제어: 격차지표, 불평등해소, 행복지표, 삶의 질, 시민대상 설문조사

차례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4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6
1. 연구 수립 참여자	6
2. 연구 수행 과정	6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7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	11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1
제2절 전문가 자문	21
제3절 지표선정 기준 및 체계	22
1. 선제적 고민	22
2. 지표선정 기준	22
3. 지표 체계	23
제3장 수원시 격차해소 관련 지표	27
제1절 격차해소 지표 개요	27
제2절 지표 도출 과정	27
1. 통계청 지표자료	27
2. 공동연구진 제안지표	51
제3절 지표검토 및 채택여부	54
1. 지표 채택 기준체계	54
2. 1차 지표 분류	68
3. 1차 지표 도출	72

4. 2차(수원시 적용 가능)지표 도출 72
제4절 예시로 검증 75
제5절 최종지표 도출 112

제4장 격차관리 시민인식 조사 115

제1절 조사개요 115
1. 조사 목적 115
2. 조사 설계 115
3. 자료 처리 및 분석 116
4. 조사 내용 116
5. 응답자 분포 117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118

제5장 결론 및 제언 193

제1절 연구내용 요약 193
제2절 결론 및 제언 197

표 차례

〈표 1-1〉 계획 수립 참여연구진 및 전문가	6
〈표 1-2〉 연구 수행 과정	6
〈표 2-1〉 관련 선행연구	18
〈표 2-2〉 자문회의 개요	21
〈표 3-1〉 1차 지표 목록	48
〈표 3-2〉 공동연구진 제안지표	53
〈표 3-3〉 1차 지표 추출 가능 여부	55
〈표 3-4〉 1차 분류 지표	69
〈표 3-5〉 2차 지표 도출	74
〈표 3-6〉 2015년 수원시와 대한민국 지니계수	76
〈표 3-7〉 2015년 수원시 및 수원시 각 구의 지니계수	78
〈표 3-8〉 2016년~2019년 전국,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일반가구의 주택소유율	79
〈표 3-9〉 2016년~2019년 수원시 구별 주택소유율	80
〈표 3-10〉 경기도 내 주택소유율과 무주택가구 비율	81
〈표 3-11〉 2015년~2019년 전국공공체육시설수	84
〈표 3-12〉 2019년 경기도 내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수 순위	86
〈표 3-13〉 1인당 체육시설 면적	86
〈표 3-14〉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지표	87
〈표 3-15〉 문화기반시설 수 및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88
〈표 3-16〉 2019년 경기도 내 문화기반시설수 1위~5위	89
〈표 3-17〉 2019년 경기도 내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1위~5위	89
〈표 3-18〉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현황	90
〈표 3-19〉 2016년~2020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아황산가스 대기오염도	91
〈표 3-20〉 2016년~2020년 경기도 내 아황산가스 배출 순위 5위	91
〈표 3-21〉 2016년~2020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이산화질소 대기오염도	92
〈표 3-22〉 2016년~2020년 경기도 내 이산화질소 배출 순위 5위	92
〈표 3-23〉 2016년~2020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미세먼지(PM10) 대기오염도	93
〈표 3-24〉 2016년~2020년 경기도 내 미세먼지(PM10) 배출 순위 5위	94

〈표 3-25〉 2016년~2020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미세먼지(PM2.5) 대기오염도	94
〈표 3-26〉 2016년~2020년 경기도 내 미세먼지(PM2.5) 배출 순위 5위	95
〈표 3-27〉 2016년~2020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96
〈표 3-28〉 2020년 기준 경기도내 보육시설 종류 및 개수	97
〈표 3-29〉 경기도 내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순위 10위	98
〈표 3-30〉 2015년~2019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삶의 질 지수(EQ-5D)	99
〈표 3-31〉 2015년~2019년 수원시 내 삶의 질 지수(EQ-5D)	100
〈표 3-32〉 표준화율(점)으로 나타낸 2015년~2019년 경기도 내 삶의 질 지수(EQ-5D) 순위	101
〈표 3-33〉 2016년~2020년 전국,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103
〈표 3-34〉 경기도 내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순위	104
〈표 3-35〉 2015~2019년 수원시 내 인구 1만 명당 의사수	105
〈표 3-36〉 2016년~2020년 전국, 경기도, 서울시, 수원시 단위인구(10만명당 평생교육 기관 수)	106
〈표 3-37〉 2016년~2020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평생교육기관 수	107
〈표 3-38〉 2016년~2020년 경기도 내 평생교육기관 수 순위	108
〈표 3-39〉 2016년~2020년 경기도 내 평생교육기관 순위별 단위인구(10만명)당 평생교육관 수	108
〈표 3-40〉 2016년~2020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교원 1인당 학생 수	110
〈표 3-41〉 경기도 내 교원 1인당 학생 수 순위	111
〈표 3-42〉 최종지표 도출	112
〈표 4-1〉 조사 설계	115
〈표 4-2〉 조사 내용	116
〈표 4-3〉 응답자 분포	117
〈표 4-4〉 건강상태 응답자별 특성	119
〈표 4-5〉 건강관리 응답자별 특성	120
〈표 4-6〉 흡연 여부 응답자별 특성	122
〈표 4-7〉 의료비 지출관련 응답자별 특성	124
〈표 4-8〉 건강검진 관련 응답자별 특성	125
〈표 4-9〉 건강 문제 관련 응답자별 특성	127
〈표 4-10〉 수원시 의료서비스 만족도 응답자별 특성	129
〈표 4-11〉 자녀의 교육정도 응답자별 특성	130
〈표 4-12〉 자녀 교육비 지출 응답자별 특성	132
〈표 4-13〉 사교육 관련 응답자별 특성	134

〈표 4-14〉 특수학교 설립 찬성 응답자별 특성	136
〈표 4-15〉 특수학교 설립 반대 응답자별 특성	137
〈표 4-16〉 직장어린이집 설치 찬성 응답자별 특성	139
〈표 4-17〉 직장어린이집 설치 반대 응답자별 특성	141
〈표 4-18〉 비정규직 긍정적 응답자별 특성	142
〈표 4-19〉 비정규직 부정적 응답자별 특성	144
〈표 4-20〉 노인일자리 문제점 관련 응답자별 특성	147
〈표 4-21〉 직장 주변 환경 만족 이유 응답자별 특성	148
〈표 4-22〉 직장 주변 환경 불만족 이유 응답자별 특성	150
〈표 4-23〉 경제 수준 응답자별 특성	153
〈표 4-24〉 여가활동의 주된 목적 응답자별 특성	156
〈표 4-25〉 월 평균 여가·문화생활 지출 응답자별 특성	158
〈표 4-26〉 여가활동 주요 장소 응답자별 특성	160
〈표 4-27〉 전자기기 이용 종류 응답자별 특성	162
〈표 4-28〉 주거 형태 응답자별 특성	165
〈표 4-29〉 소유 형태 응답자별 특성	166
〈표 4-30〉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자별 특성	170
〈표 4-31〉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응답자별 특성	172
〈표 4-32〉 환경서비스 우선 필요 응답자별 특성	174
〈표 4-33〉 4대약 중 취약 분야 응답자별 특성	178
〈표 4-34〉 수원시의 안전관련 정책 관련 응답자별 특성	181
〈표 4-35〉 본인 삶의 만족도 응답자별 특성	183
〈표 4-36〉 이상적인 삶과 현재의 삶의 비교 응답자별 특성	185
〈표 4-37〉 일과 삶의 균형 방해요인 응답자별 특성	187
〈표 4-38〉 일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요인 응답자별 특성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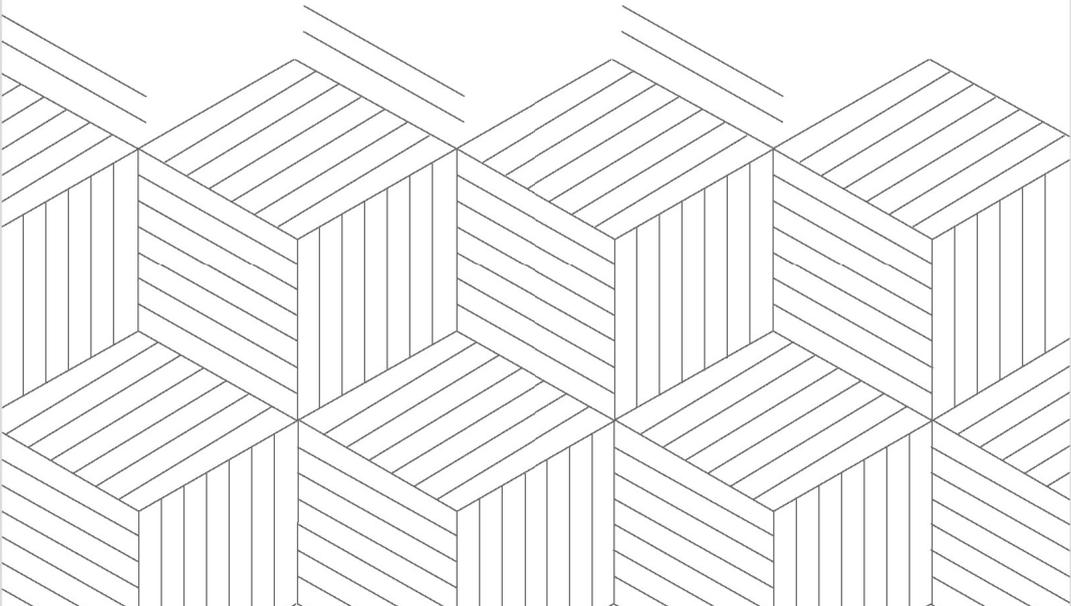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5
〈그림 3-1〉 수원시 행정구별 지니계수	77
〈그림 4-1〉 본인의 건강상태	118
〈그림 4-2〉 건강관리 방법	120
〈그림 4-3〉 흡연 정도	121
〈그림 4-4〉 실손 의료보험 가입 정도	123
〈그림 4-5〉 의료비 지출현황	123
〈그림 4-6〉 건강검진 여부	125
〈그림 4-7〉 성인 건강문제 인식 조사	126
〈그림 4-8〉 수원시 의료서비스 만족도	128
〈그림 4-9〉 자녀의 교육정도	130
〈그림 4-10〉 자녀 교육비 지출 정도	131
〈그림 4-11〉 구별 자녀 교육의 질 및 학교 선호 지역	133
〈그림 4-12〉 사교육의 목적	134
〈그림 4-13〉 특수학교 설립 찬성 응답 이유	135
〈그림 4-14〉 특수학교 설립 반대 응답 이유	137
〈그림 4-15〉 직장어린이집 설치 찬성 응답 이유	138
〈그림 4-16〉 직장어린이집 설치 반대 응답 이유	140
〈그림 4-17〉 비정규직에 대한 긍정적 응답 이유	142
〈그림 4-18〉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응답 이유	143
〈그림 4-19〉 근로 가능 노인 연령	145
〈그림 4-20〉 노인일자리 문제점	146
〈그림 4-21〉 직장 주변의 환경 만족도	148
〈그림 4-22〉 직장 주변 환경 불만족도	149
〈그림 4-23〉 가계소득 및 소비규모 변화	151
〈그림 4-24〉 가계 지출 항목 변화 이유	151
〈그림 4-25〉 경제 수준 비교	152

〈그림 4-26〉 경제적 부담 항목	154
〈그림 4-27〉 코로나19 이전/이후 여가활동	155
〈그림 4-28〉 여가활동의 목적	156
〈그림 4-29〉 월 평균 여가·문화생활 지출 금액	157
〈그림 4-30〉 주택 주변 문화기반 시설 현황	159
〈그림 4-31〉 이용 가능한 전자 기기 현황	161
〈그림 4-32〉 전자기기 활용능력	163
〈그림 4-33〉 주거 형태	164
〈그림 4-34〉 소유 형태	166
〈그림 4-35〉 주거생활의 문제	168
〈그림 4-36〉 주거지 이동시 고려항목	169
〈그림 4-37〉 향후 주택가격 상승 및 이유	170
〈그림 4-38〉 향후 주택가격 하락 및 이유	171
〈그림 4-39〉 경제·환경·사회적 문제 관심도	173
〈그림 4-40〉 환경서비스 선호도	173
〈그림 4-41〉 환경서비스 제공도	175
〈그림 4-42〉 환경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176
〈그림 4-43〉 안전인식 수준	176
〈그림 4-44〉 안전 위협요소 발견 및 신고경험	177
〈그림 4-45〉 4대악 중 취약한 분야	177
〈그림 4-46〉 지역경찰 순찰 활동 장소	178
〈그림 4-47〉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	179
〈그림 4-48〉 안전강화를 위한 도시 사업	180
〈그림 4-49〉 수원시 안전관련 정책 인식 수준	180
〈그림 4-50〉 삶의 만족도	182
〈그림 4-51〉 생활조건 만족도	183
〈그림 4-52〉 이상적인 삶과 현재의 비교	184
〈그림 4-53〉 자원봉사 경험 조사	185
〈그림 4-54〉 일과 삶의 균형 부정적	186
〈그림 4-55〉 일과 삶의 균형 긍정적	18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 배경

- 사회 발전에 따라 격차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국민 갈등의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 다양한 가치와 이익집단이 공존하는 다원화 사회일수록 격차 문제는 갈등의 주요 요소로 자리함
-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의 압축 성장을 겪으며 억눌렸던 사회적 갈등이 안정화 사회에 접어들며 표출되고 있음
 -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의 정책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차원의 노력과 연구들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격차는 지역 내에서 뿐 아니라 지역 간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양방향에서 격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의 필요성 대두
- 그동안 수원시의 공간, 지역, 소득분배, 임금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격차 연구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적은 있으나, 격차 해소를 위한 기준지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음
 -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구체적인 지표 도출을 통한 연구는 부족함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구체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표 개발 연구가 부재함

■ 목적

- 본 연구는 수원시 격차해소를 위한 기준 지표 수립 및 격차 해소 방안을 목적으로 함
- 수원시의 지역 환경에 기반을 둔 시민 생활환경을 파악하여 수원시민의 격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데이터에 기반을 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그동안의 지표개발은 ‘협치’라는 명목 하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단체들이 참여하여 지표 주고받기 식의 선정과정을 거침
- 이런 방식을 지양하고 실효성, 적용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둔 격차지표를 도출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 범위
 - 기준 : 2021년
 - 1차 활용 : 2022년 ~ 2026년(5개년)
 - 이후 : 시대변화에 따른 항목 재설정
- 내용 범위
 - 선행연구
 - 사례분석
 - 수원시 각 구별 각 격차 지표 부문
 - 공간, 지역, 소득, 임금, 행복도, 복지, 성평등 등
 - 지표 발굴 이후 추진 방향
 - 종합 및 시사점

2. 연구방법

- 연구방향 수립
 - 수원시 격차해소의 비전 및 목표 도출
- 선행연구
 - 격차해소 선행연구의 이론 고찰
- 지표 현황 분석
 - 수원시 격차 관련 지표 현황 및 특성 분석
 - 수원시 격차해소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기준 지표 및 실행 단계 설정
- 자문회의 및 세미나

- 전문가 자문회의
- 수원시 격차해소 방안 세미나 개최
- 설문조사
 - 수원시민 대상 설문조사 수행
- 결과도출
 -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의 층위별 적용 가능한 지표 도출
 - 상호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선명한 지표 도출
- 보고서 발간
 - 수원시민대상 시민인식 설문조사 진행
 - 영상보고서 발간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1. 연구 참여자

- 공동연구진

〈표 1-1〉 계획 수립 참여연구진 및 전문가

직책	성명	소속
연구 책임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실장
공동연구진(원내)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원내)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원내)	이성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원내)	조한라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공동연구진(원내)	김민성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2. 연구 수행 과정

〈표 1-2〉 연구 수행 과정

일정	논의사항
착수보고	격차관리 지표발굴의 중요성 및 필요성 향후 연구의 방향 및 기대효과 논의
전문가 서면 자문착수보고	경제, 행정, 복지, 주거 등 각 분야 서면 자문 및 착수보고
전문가 자문회의	경제, 주거, 교통 등 분야별 격차 원인 자문 회의 수원시 주거 격차 추가 자문 원인별 격차 원인에 대한 자문
연구진 서면회의	연구 분석 및 개선 논의 추가 지표 관련 자문
시민대상 설문조사	시민들이 대상으로 격차 관련 설문조사 실시
중간 보고회	세미나 형식의 중간 보고회 개최
영상 보고서 촬영	수원시민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 보고서 발간
최종보고서 발간	-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지표 연구

- 기존의 지표 연구들은 빈곤, 소득, 노동, 지역차이에 집중되어 있음
 - 빈곤문제, 소득 불평등, 임금문제, 고용률, 실업률, 지역고용의 분산, 지역 간 차이 등의 연구가 대다수를 이룸
- 최근에는 건강불평등, 교육불평등, 사회보호기제, 고령층고용, 보건 접근 불평등, 성별불평등, 주거불평등, 삶의 질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공적지출의 사회 투입, 국가 성평등, 주거환경의 질, 행복지표, 지역균형발전 등의 연구가 주요 이슈
- 기존 연구들은 격차 지표 설정을 다룬 연구들이 존재하나 해외지표 사례를 기준으로 국가 간 비교를 다루고 있음
 - 해외의 지표 사례를 분석하다보니 국내 사정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적합성이 결여
- 민간차원에서 실천될 수 있는 지표구축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지표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통적으로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각종협의체, 지역 활동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협업의 형태로 연구를 수행하다보니 학문적 뒷받침이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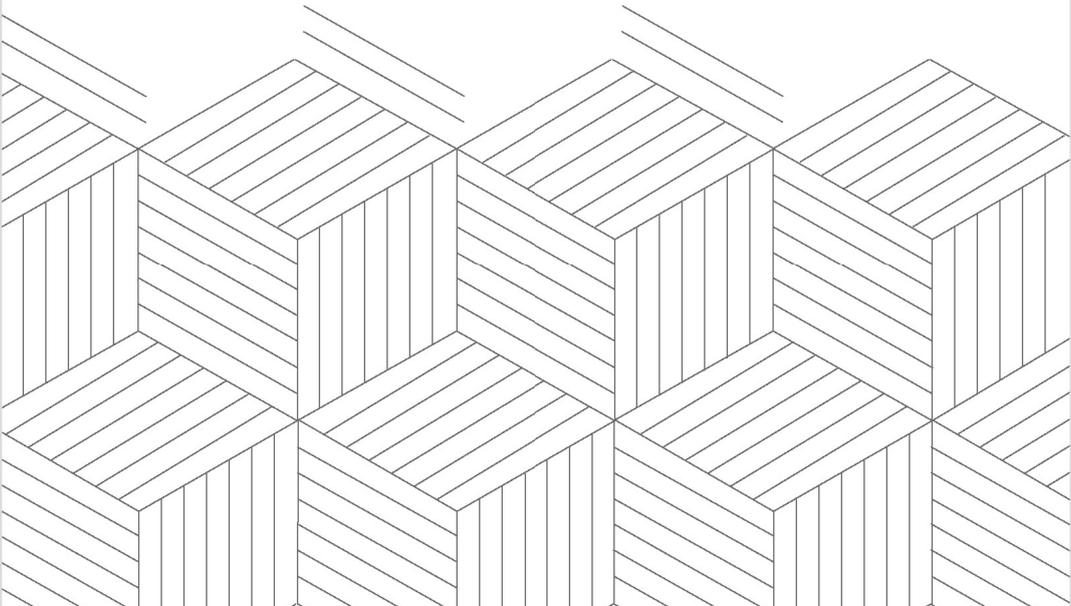
■ 본 연구의 특성

- 본 연구는 수원시 지역 환경에 기반을 둔 지표를 구성하고 있음
 - 수원형 지표 구축을 통해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표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
- 지속적으로 지표분석을 진행하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지표항목을 재설정하고 분석하여 현실에 적합한 깊이 있는 연구 수행 추구
- 연구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 연구진들이 자문위원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지표 발굴에 있어서 학문적 배경을 중시함
 - 격차해소를 위한 방향성 및 방안 도출에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
- 수원시민대상 시민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지표기준이 수원시민 친화적이고 생활에 밀접한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음
 - 수원시 지역 내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 관련 시민인식 현황 파악에 주력
- 시민들이 연구 내용에 쉽게 접근하도록 영상보고서를 제작하여 연구 내용과 시민간의 거리를 최소화
 - 수원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시민들이 연구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추구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전문가 자문
제3절 지표선정 기준 및 체계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격차 지표 관련 연구

■ 기존 연구 경향

- 지표 관련 연구들은 정책제언을 위한 연구로써 주로 정책연구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

- 지역 격차에 관한 연구는 지자체별 현황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한 기초연구 수행
- 지역 격차에 관한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
- 지역 간, 지역 내 격차 해소를 위한 현황조사 및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연도별 격차 연구 분류

■ 2000년대

- 이주희(2002)는 서울시의 도심기능이 강남·서초구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격차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완화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
 - 강남과 강북의 지역격차를 53개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자 함
 - 결과적으로 서울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7대 전략과 21과제를 제시함
- 김겸훈 외(2006)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방정부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했던 양성평등지표 및 개발에 대해 연구
 -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지표개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표개발 및 모형개발의 절차를 제안

- 지방정부차원에서 양성평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표개발 및 모형개발의 절차를 제안
- 지역사회의 여건과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좌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의 차이점을 보임
- 신상영 외(2008)는 주거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 단순히 주택의 양적공급이 아닌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과 주택정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 세계 다른 도시들의 주거환경 질의 평가체계인 해외지표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의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서울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 장명림 외(2009)는 육아지원 정책은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 및 향후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일정한 기준의 육아지표의 개발 및 주기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
- 기존연구들은 유아교육·보육(육아지원기관 중심),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지표에 초점을 둬
- 부모의 양육 진단 지표를 포함하여 한국의 육아 실태와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둬
- 3개 부문에서 110개의 육아지표를 제시하였으나 지표값 산출 및 지수 산출 체계화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 2010년대

- 진미운 외(2010)는 주택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주택수요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밝히고 주택수요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실용화 방안을 강구
- 전국 232개 시군구의 인구, 가구, 주택재고, 주택가격, 주택거래와 주택수요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주택수요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25개 지표를 제안
- 기존에는 주택공급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주택수요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한편, 어느 지역에 주택공급이 적합한지를 보는 공급지표의 양면성을 지닌다는 한계가 있음

- 김인희 외(2012)는 지역격차 실태분석과 지역상생발전의 방향제시를 위하여 전국 15개 시도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 간 격차를 지표와 설문조사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성을 제시
 - 기존 지표 관련 연구들은 경제성장과 생산중심의 국가경쟁력에 초점을 맞춤
 - 2000년대 후반부터 질적 성장이 강조되며 삶의 질 향상과 주민체감형 지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
 - 지역 간 격차를 4가지(정상적 격차, 조정적격차, 정책적격차, 구조적격차) 개념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으며 4가지 격차유형들이 서로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 안창희 외(2012)는 인천시민들의 건강도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
 -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해외의 지표사례인 WHO의 건강도시지표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
 - 해외지표가 지역적 맥락에서 고려해야하는 건강 및 안전의 문제들에 대해 한계가 있음을 인지
 - 차후 연구에서는 학술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검토 및 모형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힘
- 이인재 외(2013)는 삶의 질과 사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복지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
 - 수원시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현황고찰 및 기존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기초연구를 진행
 - 주제별 대지표 15개, 대상별 대지표 9개 그리고 최종 하위지표로 341개의 개별지표를 선정
 - 차후 연구에서는 기초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수원시에 맞는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역사회 복지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
 - 상대적 비교와 복지수준 진단을 통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윤희철 외(2014)는 인구변화추세에 의해 기존 도시계획들을 재수립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인구감소시대의 도시문제 특징을 살펴보고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도시의 삶의 질 지표와 우선순위를 도출
 - 10개 영역에서 37개의 지표를 제시하였고 가중치 적용과 계층화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시대에 삶의 질 지표의 우선순위를 도출
 - 하지만 제시된 지표 중 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해 설명이 불가능한 지표가 존재

- 지역마다의 특성으로 인해 지표의 보편성이 결여되어 지표를 타 도시에 공통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 김주현 외(2015)는 문화, 국가와 상관없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노인차별에 주목하였으며 다양한 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평가 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차별지표를 개발
 - 기존 노인관련 지표들은 노인인구집단에 초점을 맞춰 삶의 질 혹은 특성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개발
 - 다른 연령의 인구집단과 차별적 상황에 주목하여 노인차별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
 - 5개 영역에서 30개의 하위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영역별 가중치 작업이 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이상대 외(2015)는 국내 외 중장기 기본계획 및 미래계획에 포함된 지표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지표체계와 후보지표들에 대한 평가를 구상
 - 구상한 미래지표계획(안)을 경기도에 적용하여 가능성을 검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표체계와 미래지표들의 활용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
 - 다른 연구처럼 세계 유력 기관의 지표 및 사례를 분석했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지표들로 확장하여 분석하려고 했다는 차이가 있음
 - 또한 현재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아닌 ‘미래 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여 5개 영역에서 30개의 지표를 도출
- 변미리(2015)는 UN의 세계행복보고서 발간 이후 공공부문에서 시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
 - ‘서울형 행복지표’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지표 사례인 OECD ‘삶의 질 지표’의 틀을 유지하면서 서울시민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
 - ‘서울형 행복지표’를 통한 정책 간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국의 ‘시민 참여형 행복지표 위원회’ 벤치마킹을 제안
 - 서울시민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영역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층조사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서울시민 행복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 서인석(2016)은 지역발전의 측정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논의한 커뮤니티 웰빙을 활용한 지역의 유형화 기준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 Kee et al(2014)의 커뮤니티웰빙 6자본 요인을 활용하여 40개의 세부지표를 구성하고 지역 유형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님
- 웰빙을 구현할 때 각 지역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지표가 무엇인가를 점수로 환산하여 비교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위해서는 더욱 분류를 세분화해야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 임보영 외(2016)는 도시쇠퇴지표의 궁극적인 목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적 방향이 단순한 인구, 경제, 환경의 거시적 지표 값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 쇠퇴도시 거주민들의 삶의 질, 건강, 환경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있음
 - 삶의 질 지표를 검토하여 도시쇠퇴지표와의 유사점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도시쇠퇴지표에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삶의 질 지표가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음
- 김선재(2017)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강화라는 지역 정책 목표에 따라 지역사회의 격차를 측정
 - 분야별 특정지표의 지수측정을 통하여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악하고 비교
 - 3개 부문 19개 세부지표를 구성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 시, 도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각 지역별 경제지표의 지수 합을 통해 순위를 확인
 - 지역 간 격차를 지역발전지표 지수로 측정하여 지역 간 비교 및 부문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이를 보임
 - 다만, 지수측정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부여 및 분석방법의 정교함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음
- 최지연(2017)은 수원시 지역통계가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이 미흡하고 데이터가 분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연계가 되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
 - 이에 수원시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지표와 통계자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 영역별 지표를 10개로 분류하여 조사 및 체계를 구축하여 수원도시지표의 체계의 초안을 작성
- 김숙희 외(2018)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며 수원시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을 부각
-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이에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지표(안)을 9개의 추진과제와 추진과제별 16개 키워드, 54개 지표로 구성

- 다른 연구와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순 도시지표 수립이 아닌 이행 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
-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관련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인 수원시지속가능 도시재단이 실제 정책 활용 및 업무 평가에 활용하도록 도시재단형 도시지표(안)을 제안
- 김고운 외(2019)는 2015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발표됨에 따라 타 연구와 마찬가지로 해외사례지표를 참고하여 서울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와 연계된 서울형 지표를 구축하고자 함
- 이에 2017년 서울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표한 96개 세부목표에 대응하는 지표체계를 구축
- 서울시 체계와 UN의 체계간의 연계성을 개선하고자 함 최종적으로 126개 (중복제의 118개) 후보 지표를 서울형 지표안으로 제시
- 변미리(2018)는 서울시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성장기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한 지표 개발 추진
- 경제·사회적 불안징후는 심화되고 있으나 사회문제의 해법은 역부족인 상황
- 2010년대 이후부터 OECD 및 UN에서 ‘포용도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서울시는 사회적 배제 완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포용성을 높이는데 주목해야 함
-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3개 부문 34개 지표로 개발하여 분석
- 양적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질적 데이터가 부족한 한계가 있음
- 서울시민들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차원적 배제 원인 규명 및 사회적 웰빙 영역 개선을 위한 지표구축에 대한 시도에 의의
- 윤호 외(2019)는 주거복지지표 중 주거사회환경 지표를 개발하여 기초자치단체 중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적용
- 기존의 주거복지 관련연구는 대부분 주거내부환경 지표에 대한 연구들이 대다수였으나 주거외부의 환경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 간 주거사회환경의 격차문제를 확인하고자 함
- 대분류(2개), 중분류(6개), 평가지표(11개)를 도출하여 기초자치단체기준으로 설계
- 광역시도의 주거사회환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음

■ 2020년대

- 김수혜 외(2020)는 서울시 내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초·중·고 학교 수준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추이 분석을 서울교육종단연구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다수의 연구와 같이 국제기구의 지표 및 사례인 교육형평성 지표(OECD)를 적용하여 분석
 - 교육격차의 원인은 가정배경의 영향력, 부모학력, 가구소득, 가족구조로 나타났으며 취약한 가정배경에서도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의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한다는 결론을 도출
- 최준석(2020)은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지역 여건변화를 분석하여 지역격차를 측정
 -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개별지표를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 부문별로 종합하여 살펴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핵심지표 및 주거, 교통, 보건복지 부문은 수도권 및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지역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환경부문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
- 통계청은 2014년부터 국민 삶의 지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
 -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11개 영역 71개 지표로 구성되고 있으며 전기대비 개선지표 및 악화지표를 발표하고 국가의 경제규모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지 않아 놓치기 쉬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반영하여 조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 통계청은 한국의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979년부터 한국의 사회지표를 매년 발표
 - 11부문, 3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여 국민생활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를 측정함으로써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종합

- 본 연구는 국내 문헌조사를 통해 ‘격차’ 및 ‘지표’와 관련한 100여건의 선행연구를 검토
 - 연구 과정에서 통계조사가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를 참고하거나 지표에 포함하지 않고 분석
-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에 관한 지표 연구를 검토하였음
- 다양한 격차 지표를 살펴보기 위하여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음
 -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됨
 - 수원시의 격차 지표 발굴 및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표 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지표에 관한 연구는 지표 체계 구축, 개발, 지역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미래계획 및 정책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표 2-1〉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제목	주요 내용
이상대 외	경기도 미래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중장기 기본계획 및 미래비전에 포함된 지표들을 분석하고 평가 • 미래지표체계(안)을 경기도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을 검증 • 5개 영역, 30개 지표를 도출하여 정책제언
김선기 외	지역 간 경제성장격차 변화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균형발전지표(2019)를 활용하여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고 격차를 측정 • 핵심지표 및 8개 부문지표를 통하여 지역 간 격차가 큰 분야의 우선순위 및 해소에 활용하고자 함
이주희	서울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 전략(上),(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과 강북을 11개 지표로 분석하여 지역격차 발생 원인을 분석 • 지역격차의 해소전략을 7대전략 21과제로 제시
임보영 외	도시쇠퇴지표와 삶의 질 지표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쇠퇴지표가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 • 도시재생의 세부 목표와 BNI, 서울형 행복지표를 연계하여 도시쇠퇴지표를 보완하고 이를 통한 정책활용을 제시
전국 시도연 구원협의회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발전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영역, 18개 세부영역을 통해 지표를 구성하고 16개 시도 간 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진행 • 지역 간 경제적 격차 개념을 4가지로 정의하고, 해소방법 및 정책제언을 제시
안창희 외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지표 개발 및 중요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도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모형개발 및 인지도 및 중요도 확인 • WHO에서 제시한 지표가 아닌 지역적 맥락을 포함한 지역 주도적 방식을 효과적으로 제시

〈표 2-1〉 관련 선행연구(계속)

연구자	제목	주요 내용
변미리	서울시민의 행복 체감도와 행복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행복지표' 활성화를 통하여 세계 도시민과 서울시민의 행복정도 비교를 통해 실제 정책과의 연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11개 영역, 24개 지표 구성을 통하여 면접조사 실시 · 매년 '서울시민 행복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제시
신상영 외	서울시 주거환경의 질 지표와 평가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주거환경의 질을 근린생활권 수준에서 측정·평가 가능한 주거환경지표를 개발 및 지속적인 평가방안 제시 · 서울시 12개 지역 주거환경 질 사례 분석 및 평가를 통해 3대 주거기준 평가체계 구축
김고운 외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지표체계 구축과 평가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UN체계 간 정합성을 한층 더 개선하기 위한 구축방안 제시 · 17개 목표, 96개 세부목표에 대응하는 126개 지표체계를 제안
김숙희 외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제시 · 9개 추진과제와 16개 키워드, 54개 지표를 구성
이인재 외	수원시 지역사회복지지표 개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 · 지역사회복지 매트릭스 지표를 통해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결합한 복지지표의 이론적 관점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최지연	수원의 지역사회지표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위한 기초 지표를 구성하고 제안 · 향후 수원시 100대 시정지표를 제시
김겸훈 외	양성평등지표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전광역시의 지표개발사례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차원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양성평등지표와 지표개발 절차에 관한 기본모형 및 정책적 대안을 탐색 · 6개 측정영역과 20개 측정내용, 47개 세부측정지표 제시
윤희철 외	인구감소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도시의 삶의 질 지표 연구 -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시대에 적절한 도시의 삶의 질 지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제시에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제안 · 10개 영역 37개 지표를 통해 AHP분석을 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냄
윤호 외	주거사회환경지표의 설계와 도시 내 적용연구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별 격차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사회환경지표를 개발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적용시켜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확인하고자 함 · 2가지 대분류와 6개 부문 11개 평가지표로 분석하여 나타냄

〈표 2-1〉 관련 선행연구(계속)

연구자	제목	주요 내용
진미윤 외	주택수요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비해 수요정책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주택수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주택수요 평가지표 적용가능성을 규명하고자 함
김선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 지역별 특정지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정지표의 지수측정을 통해 각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함 3개 부문 각각 18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 시, 도를 공간범주로 분석
서인석	커뮤니티웰빙 지표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의 탐색적 유형화 : kee의 커뮤니티 6자본요인 및 지표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연구재단의 연차결과로 제시된 Kee의 커뮤니티웰빙 6자본 요인 및 지표는 이론적 개선 및 지표의 적실성을 높여 좀 더 타당한 지역유형화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함 향후 본 연구가 조사한 27개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시 자치구들의 4개 유형별 맞춤형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변미리	포용도시를 향하여_서울형 포용도시 지표개발과 포용성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형 포용도시는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하고 지표를 구성 사람·공간·거버넌스 포용성 3개 부문 34개 지표개발을 통해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전략을 제시
김주현 외	한국의 노인차별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차별의 다양한 특성을 검토하고 평가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차별지표 개발에 목적을 둠 5개영역 30개의 하위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국가 간 비교를 위한 노인차별지표의 첫 성과라 볼 수 있음
김수혜 외	OECD 형평성 지표로 본 교육격차 추이 -서울교육총단연구 1~9차연도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격차의 파악은 서울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부터 11개 영역 71개 지표로 삶의 질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통계청	2020 한국의 사회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9년부터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있음 11개 영역 37개 중분류로 조사하고 있음

제2절 전문가 자문회의

- 내부 회의
 - 연구 진행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 착수보고 및 자문과 내부 착수보고 및 자문을 각 1회 개최하였음
- 외부 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도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자료구득 및 내용공유를 통하여 진행하였음

〈표 2-2〉 자문회의 개요

일시	참석자	비고
1월 29일	자문위원 : 심○○(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 연구원 : 조용준 연구위원, 김민성 연구원	개별자문
2월 1일~5일	자문위원: 김○○(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남○○(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손○○(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서면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병행
2월 8일	자문위원 : 손○○(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원 : 조용준 연구위원, 김민성 연구원	추가자문
2월 26일	자문위원 : 김○○(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 조용준 연구위원, 김민성 연구원	추가자문
3월 4일	연구원 : 최병대 원장, 이세구 초빙연구위원 조용준 연구위원, 양은순 연구위원 한연주 연구위원, 이성호 연구위원 조한라 연구원, 김민성 연구원	내부 착수보고회
4월 9일	자문위원 : 노○○(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원 : 조용준 연구위원, 김민성 연구원	개별자문
6월 25일	자문위원 : 노○○(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민○○(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원 : 조용준 연구위원, 김민성 연구원	자문회의
8월 26일	자문위원 : 이○○(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상법 전임교수) 연구원 : 조용준 연구위원, 김민성 연구원	자문회의
9월 30일	자문위원 : 이○○(경상대 지리교육과 교수) 연구원 : 조용준 연구위원, 김민성 연구원	자문회의
10월 1일	자문위원 : 김○○(동의대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변○○(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전○○(단국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자문회의
11월 11일	자문위원 : 김○○(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송○○(희망제작소 이사) 연구원 : 조용준 연구위원	자문회의

제3절 지표선정 기준 및 체계

1. 선제적 고민

- 선정과정
 - 본 연구는 격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의 연구임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원시 내의 격차지표들을 추적하고 격차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사례
 - 선행연구 분석결과, 서울연구원은 현재 각종 지표들 추적하고 있으며 격차 및 삶의 질 지표 관련 연구도 사전에 진행한 사례가 있음
 - 수원시 역시 격차 지표에 대한 지속적 발굴과 데이터 구축 및 기초자료 수집 등의 과정이 필요
 - 향후 격차 해소를 위한 고민을 미리 시작하는 선제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함

2. 지표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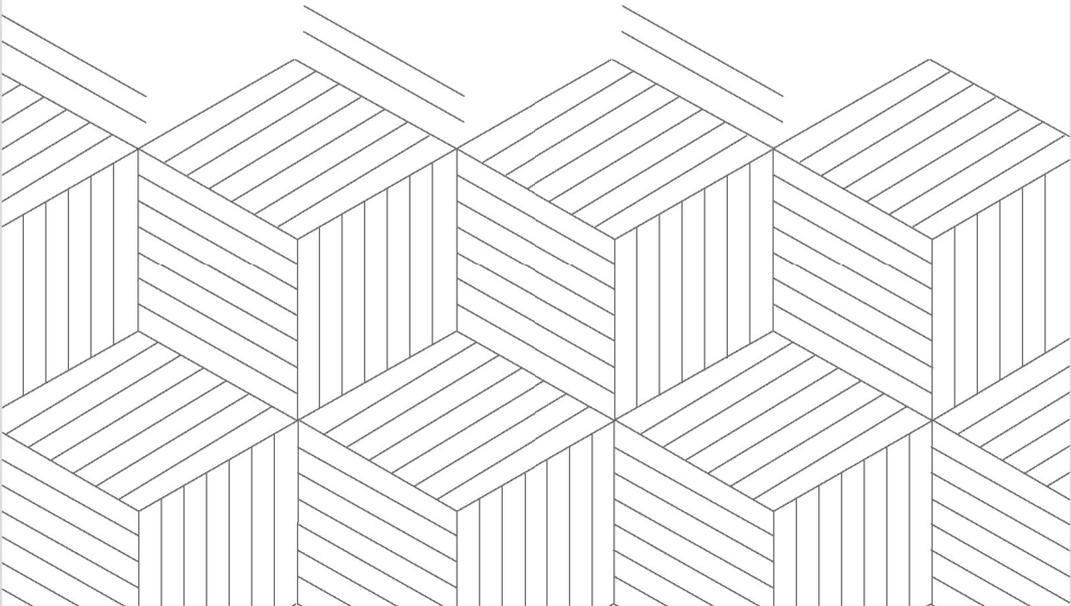
- 도시의 규모
 - 인구 100만 도시로서 현재 수원시의 격차의 결과로 보여 지는 현상들과 원인들을 파악하고 지표로 발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임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격차도 심화 되는 시기라고 여겨짐
 - 이러한 요인에 의해 수원시 및 수원시민에게 미칠 영향과 결과, 격차 지표의 기초적 수집·분석을 통해 연구의 토대를 만들고자 함
- 비교 가능 지표 발굴
 - 지표선정에 있어서 전국단위, 서울 및 수도권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행정구별로 격차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우선시 함
 - 부문별로는 공간, 소득, 행복도, 복지, 문화, 온라인 접근성, 성평등 등의 격차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고자 함
 - 지표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요도와 시급성을 파악하고자 함

3. 지표 체계

- 통계청 지표
 - 지표 발굴을 통하여 수원시와 타 시를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원시 관내의 격차도 비교·분석하기 용이하도록 함
 - 현재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사회지표의 지표 체계와 분류방식을 같게 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표 분류
 - 성장, 고용과 노동, 소득·소비·자산, 주거와 교통, 인구, 가족, 건강, 교육, 여가, 범죄와 사법정의, 사회통합,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변화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15개 분류로 나누어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하였음

제3장 수원시 격차해소 관련 지표

제1절 격차해소 지표 개요
제2절 지표 도출 과정
제3절 지표검토 및 채택여부



제3장 수원시 격차해소 관련 지표

제1절 격차해소 지표 개요

- 개요
 - 지표란 특정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를 의미하며,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 혹은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통계청 자료에서 제공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격차지표를 분류해 유형화 과정을 진행하고자 함
- 선별과정
 - 문헌연구 100여건을 통한 지표의 선별화 작업을 진행하였음
 - 현재 통계청의 지표자료 110여개를 토대로 격차와 연계할 수 있는 지표의 유형화 과정을 추진

제2절 지표 도출과정

1. 통계청 지표자료

- 분류
 - 성장, 고용과 노동, 소득·소비·자산, 주거와 교통, 인구, 가족, 건강, 교육, 여가, 범죄와 사법정의, 사회통합,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변화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15개 분류로 나누어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
- 성장
 - 경기종합지수
 - 경기종합지수란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동향을 알기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 투자, 고용, 소비 등의 경제부문별로 경기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경제지표들을 선정하고 지표들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종합적으로 작성

- 개별의 구성 지표들에 대한 증감률에 의해서 경기변동의 변동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방향이나 국면, 전환점 등은 물론이며 속도도 분석할 수 있어 종합경기지표로서 널리 활용 가능
- ICT생산(매출)액
 - 상품은 주로 전자 수단을 통한 전송 및 표시를 포함한 것으로 정보의 처리나 통신기능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시설을 공급, 설치 운영 또는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방송기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
-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 경제성장 지표는 GDP 및 GNP로 분류할 수 있음
 - GDP란 소유와는 관계없이 한 나라에 있는 노동 및 자본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를 결합으로 만들어낸 최종생산물의 합이며 생산 활동 지표라고 함
 - GNP는 한 나라가 소유한 생산요소들을 국내·외의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을 합을 말하는 소득지표임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 소상공인·전통시장의 BSI는 격월로 조사·비교를 통해 현 시점의 경기상황이나 매출변화·상황, 자금사정 등을 나타내는 것임
 - 이를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미래 경영계획 및 경기대책, 매출에 대한 계획, 자금조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다만 응답자의 자의적 판단 및 주관적인 경제심리를 반영하게 되므로 경기변화·방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경기의 국면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 지역 내 총생산(GRDP)
 -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 가능
 - 지역 내 소득의 생산·분배·지출의 각 측면 및 경제주체 간의 소득 순환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실태를 큰 틀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지역의 재정·경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노동생산성 지수
 - 생산성이란 생산과정에서의 자본·노동 등 투입요소(Input)와 산출물(Output)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이며, 투입요소의 한 단위가 산출하는 생산량(또는 부가가치)으로 정의

-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이란 노동투입량에 대비 산출량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을 물적 노동생산성이라고 함
- 노동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라고 함
- 물적 노동생산성은 생산과정에 있어서 생산효율의 향상정도, 기술수준의 변화 등 주로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하며,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경제적 효율성, 성과배분, 국제경쟁력 비교 등의 중요한 지표로 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반 현황
 - 영업이익률, 임금격차, R&D 격차 등은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근로자간 소득, 혁신역량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표
 -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은 물론 고용 및 경영, 혁신 현황을 비교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지표로 활용
- 산업기술인력 현황
 - 산업기술인력의 현원과 부족인원에 대한 산업별, 직업별, 지역별, 규모별로 조사하여 수급동향을 제공
 - 국내 산업기술인력의 정확한 수급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 인력수급을 원활함을 위한 유관기관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민간투자사업 현황
 - 기존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 민간투자사업 규모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규모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로써, 연도별 협약체결 규모 및 현재까지 추진한 민자사업의 규모를 파악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
-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
 - GDP 대비 공교육비는 총 공교육비/우리나라 GDP로 산출
 - 한 해 동안 지출한 공교육비를 당해 연도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임
 - 공교육비는 부담 주체에 따라 정부부담 공교육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해외부담 공교육비로 구분함
 -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정규교육에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과 사학 법인 등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및 시도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합한 금액을 의미

- 민간부담 공교육비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정규교육에 학생 및 학부모가 교육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예: 등록금)과 기타민간이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
- 해외부담 공교육비는 국제기구, 외국기업 등 해외에서 교육기관 및 정부부처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 혹은 지원금을 의미
- 창업기업 동향
 - 개인 및 법인을 포괄하는 전체 기업의 창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현장경기를 진단하고 창업 지원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
 - 창업기업이란 국제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 등록일자가 해당 월에 속하는 영리기업(개인, 법인기업 포함)이며, 영리사업자 및 법인의 지점·지사를 제외하여 영리기업 단위로 집계
 - 기술기반업종이란 EU 및 OECD 정의를 준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과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정의한 업종분류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을 말함
-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는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기업 인증 등을 획득한 기업수를 합산하고 중복 인증한 기업수를 차감하여 산정
 - 일반중소기업의 혁신형 기업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잠재 혁신형 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필요
- IMD과학·기술 인프라
 - 국제경영개발원(IMD)은 매년 상반기에 63여개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세계경쟁력연감'을 발간함
 - IMD이란 국가경쟁력을 국가의 영토 내에서 활동 하는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국가의 능력이며,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의 환경 능력이라고 함
- WEF혁신역량·ICT보급
 - 특정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정도를 측정하며, 5개 지표(정량5), <혁신역량 부문> 양적, 질적인 연구개발 및 혁신을 장려하는 역량 등을 평가하며, 10개 지표(정량 6, 설문 4)로 구성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란 매년 9월부터 10월에 전 세계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고 발표함
- 2006년부터는 이전의 성장경쟁력지수를 세계경쟁력지수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체계를 개편
- 고용과 노동
 - 산업별·직종별·사업체 규모별 노동력 수요동향
 - 상용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32,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세부직종별 상용, 임시, 일용 및 외국인 근로자의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을 조사
 - 부족인원이 많은 산업 중심으로 훈련 인력 양성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의 정책 수립
 - 고용센터 구인, 구직 및 취업현황
 -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기관인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구인구직 신청 및 홈페이지(work-net)를 통한 구인구직 신청을 고용센터의 구인구직 현황으로 처리
 - 구인자와 구직자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연결(Job Match)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활성화하며, 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취업률) 증감 추이 분석해 취업시장 변화파악함으로써 노동시장 정책수립에 활용
 - 노인일자리 및 노후생활 현황
 -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가능)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정부에서 보수 등을 지원하여 창출·제공하는 일자리
 - 노인의 건강유지,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인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인 여성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말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정도를 파악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 OECD에서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란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는 차이가 있음
 - 일반고용동향
 -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의 비중으로, 노동공급에 대한 가장 순수한 측정치로 사용

- 국민의 경제활동, 즉 취업·실업·비경제활동인구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의 기본자료
- 비정규직 고용동향
 -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서의 결과로서 임금근로자에 대한 기본항목 자료의 토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를 이용
 - 비정규직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정책수립 시 참고하기 위함
-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설정하고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함
 -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및 여성권한의 척도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임
 -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을 매년 분석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의 촉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
- 내역별·산업별·규모별 노동비용
 - 노동비용은 기업체에서 상용근로자 1인을 고용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직·간접비용을 집계한 것으로 상기통계표는 내역별 월평균 노동비용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파악하여 노동정책 입안 자료는 물론 기업의 임금 및 복지후생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실태 현황
 - 정규 및 비정규근로자의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실태를 파악
 - 비정규근로자 보호 대책,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 분석
- 소득·소비·자산
 - 기준 중위소득 추이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임
 -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소비동향

-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를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동차판매업 중 승용차부분, 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체의 실제로 거래된 월간판매액을 100으로 지수화한 것
- 민간소비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중요 지표로 활용
- 소비자동향지수(CSI)
 -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조사에 의한 자기기입방식과 미회수 가구에 대한 전화인터뷰 조사를 실시
 - 소비자들의 경기나 생활형편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 미래의 소비지출 계획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 한 것
 - 소비자동향지수는 경제인식·전망, 소비자 지출전망, 가계저축·부채, 물가전망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짐
 - 개별지수는 현재의 생활형편, 현재의 경기판단, 앞으로의 생활형편 전망, 향후의 경기전망, 취업기회의 전망, 향후의 금리수준, 향후 가계수입, 향후 소비 지출, 현재의 저축수준, 향후 가계저축, 현재의 가계부채, 향후 가계 부채, 물가수준의 전망, 향후 주택 가격, 임금 수준의 전망, 물가에 대한 인식, 기대인플레이션 등 17개 지수로 나눔
- 가계신용
 - 가계신용이란 일반가정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및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대금 등을 합으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
 - 가계부채 수준 등 금융부담 및 지속 가능성 점검(향후 소비감소에 대한 선행점검 차원)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추정
- 노인 빈곤율
 -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노인인구 중 상대적인 빈곤층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
- 지니계수
 -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수치는 '0'과 '1'사이의 비율로 정의함
 - 연간 소득분배 상황을 반영한 통계 생산을 통해 정책 및 연구 기초자료 제공함
 - 지니계수는 국가 간 비교를 넘어 다양한 계층 간의 비교도 할 수 있고, 국가 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득 분배의 변화를 추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알 수 있음
- 생산자물가지수

-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요금(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상품 부문 781개, 서비스 부문 103개 등 총 884개 품목조사)
-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써 경기동향 판단지표, GDP 디플레이터 등으로 이용됨
- 소비자물가지수
 - 38개 도시의 상품 및 서비스 등 460개 품목을 조사하여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 매월 상품가격의 변동률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률을 측정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 변동 및 구매력 변동 등의 측정에 활용
- 주거와 교통
 - 주택매매가격 동향
 - 전국의 시·군·구에 있는 주택들을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추출한 28,360개(아파트 17,190호, 연립 6,350호, 단독주택 4,820호, 2020년 기준)를 조사대상의 표본으로 선정
 - 조사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결과를 통해 지역별 주택가격지수를 산출하여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주택전세가격 동향
 - 전국의 시·군·구에 있는 주택들을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추출한 28,360개(아파트 17,190호, 연립 6,350호, 단독주택 4,820호, 2020년 기준)를 조사대상 표본으로 선정
 - 조사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결과를 통해 지역별 주택가격지수를 산출하여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유형별재고주택현황
 - 한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으로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등을 말함
 - 재고주택을 유형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 건물 내 주택)로 구분한 자료로서 향후 주택관련 전망예측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자가점유비율

- 자가점유비율이란 일반가구 중에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
- 주택보급률이 비슷한 지역이지만 자가점유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두 지역 간의 주택을 점유하는 주민들의 주택 개념에 대한 사고방식차이나 외지인 거주자 비율, 다주택자의 비율, 전·월세 비율, 잠재수요자의 파악 등과 같은 각종 거주형태·구조·배분 비율 등을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
- 주택보급률
 - 주택보급률이란 국가나 특정한 지역에 주택재고가 거주하는 가구들의 수에 비하여 어느 정도 부족하고, 여유가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양적지표
 - 우리나라는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주택정책 지표로 활용함
- 고속국도 차량이용 현황
 - 고속도로 통행권 발급 및 통행차량 현황 조사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고속도로 유지보수 계획, 교통사고 분석, 인·물적 자원 이동 분석 및 영업시설 개선자료 등으로 활용
- 고속철도 여객 수송동향
 - 한국철도공사 및 (주)SR에서 운영하는 KTX, SRT 이용자수로 고속여객 수송동향을 분석하여 지역별 이용수요, 개통효과 등을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음
- 인구
 - 수도권과 지방현황
 -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수도권 비율은 전국대비 수도권 비율이고, 권역별 비율은 수도권 대비 권역별 비율임)
 - 권역별 현황 분석을 통하여 권역의 특성에 맞는 수도권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안에서 인구·산업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
 -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 지역별 인구란 각각의 지역별로 거주하는 인구를 의미
 - 지역별 인구밀도란 각각 지역별 인구를 그 지역의 면적으로 나누어 구하며 1km²당 거주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를 알 수 있음
 - 통계청이 조사한 장래인구추계와 국토교통부의 지적통계를 근거로 하는 지표로 장기적·장기적 국가와 지역 발전의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의 인구전망과 관련한 각종 경제·사회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음

- 총인구, 인구성장률
 - 2017년 인구 총 조사(등록 센서스) 결과를 기초로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별 실적자료 추이를 반영하여 작성한 장래인구 추계결과임
 - 국가의 인구 및 인구성장률은 국가의 장기적·단기적인 국가발전 계획수립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로서 인구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
- 남녀별 연령별 인구구조
 - 인구구조란 인구규모 분석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이며, 인구규모가 인구의 양적인 측면을 의미한다면 인구구조는 인구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인구구조는 성·연령별·지역·사회·경제적인 상황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를 예측하는데 활용
- 가족의 형태별 분포
 - 가족의 형태를 핵가족, 직계가족 등으로 구분하여 그 분포를 파악하는 지표임
 -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 증가 등 가족 환경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근로자 지원, 가족친화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한 가사분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13세 이상 응답)와 부부(19세 이상, 주말 부부 포함)의 실제 가사 분담 실태
 - 가사에 대한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사회분위기 조성 및 파악을 위한 지표임
- 가족친화인증 기업체수
 -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 제도를 부여받은 기업·기관의 수
 -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감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촉진에 활용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수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통계작성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의 개소 수는 가족지원 인프라 구축강화와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의 측정을 위한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지표
-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

- 지방자치단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취합
 - 어린이집 중에서 장애아 어린이집의 증가추이를 나타내는 지표임
 - 장애아 어린이집 증가추이 지표를 통하여 장애아 보육정책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장애아 보육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
- 건강
-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 기대수명이란 국민의 현재 연령별 사망수준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추정하여 작성한 통계표
 - 보건정책 및 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 피해 시 산정할 수 있는 보상비 등의 기초자료 및 장래인구추계 작성,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경제·사회·보건수준 비교의 기초자료로 활용
 -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별 어린이 식생활안전·영양수준·환경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년 주기로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발표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환경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
 - 지자체 간 우수한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는 맞춤형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여 전반적인 식생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 하는데 활용
 - GDP대비 경상의료비 추이
 - GDP 대비는 경상금액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경상의료비 비중으로 경상의료비 지출수준을 보기위한 지표임
 - 경상의료비 지출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생물의약품산업현황(바이오의약품)
 - 생물의약품산업현황을 통해 해마다 생산되는 품목 수, 생산액, 수입액, 증감률, GDP대비를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규모 등에 대한 추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산업 규모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생물의약품산업현황을 나타내는 통계로 생산 활동 실태 및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산업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세대당 건강보험료 부담액
 - 건강보험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 등을 의미
 - 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 증가추이와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수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한 지표임
- 의료급여 수급 현황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이 목적
 -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지표임
 -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등 의료급여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 비용관리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줄이고 의료급여 수급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 효율화하기 위함

■ 교육

-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초·중·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3월부터 5월 및 7월부터 9월간 월별 사교육비를 각각 5월부터 6월과 9월부터 10월에 조사함
 - 우리나라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비용과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 1주일동안 사교육을 받는 평균시간을 수록하며,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비용도 함께 조사하여 수록
 - 사교육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 및 사교육비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연속성 있는 시계열 자료를 확보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 특수학급에 있는 일반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정도를 알아봄으로써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원 정도를 알 수 있음

■ 여가

-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가구 내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거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집계함
- 우리나라 가구의 인터넷 이용환경(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 컴퓨터 보유 여부)을 파악하여 인터넷 관련 정책 및 비즈니스 전략 수립, 연구 활동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방송통신 관련 국제지수 산출을 위한 주요 평가항목으로 활용
-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로서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말함
 - 체육시설의 증가 요인은 국민소득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확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국민의 지속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
 -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적극 투입한 결과이며, 체육활동이 여가생활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결과로 분석하고 있음
-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지표
 - 공연장 및 문예회관 현황에 대한 집계를 통해 국내 공연예술 인프라의 발전 및 현황을 알 수 있으며, 문화예술분야 기반시설 기초통계자료로 활용
-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 일반국민 및 4대 소외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및 신소외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조사를 통해 지수 산출(조사통계)
 -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유무선 융합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 대비(100을 가정) 정보소외계층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을 종합한 점수를 의미
- 범죄와 사법정의
 - 112신고접수 현황
 -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112신고 현황 통계 분석
 - 112신고건수의 변화추이를 통해 치안수요 증가 및 112신고 접근성의 향상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
 - 매년 발생하는 화재, 도로·교통사고, 산불, 붕괴, 폭발 등 사고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이며, 각 자료는 소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서 작성, 관리하는 것을 취합한 자료임

- 화재, 산불,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통계데이터를 제공하여 재난관리정책 수립과 연구기관 및 학계의 재난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
- 사회통합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통계시점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 수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자원봉사 참여(성인)
 - 총 성인 인구수 대비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하여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성인 자원봉사자 인원 비율
 - 자원봉사 참여율은 우리나라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 정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며, 매년 자원봉사 참여 인구수를 분석하여 자원봉사 정책방향의 기본 자료로 활용
 -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 각 국 여성의 정치참여 정도를 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
 -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정치, 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하여 여성권한을 측정하는 지표
 -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수 및 생활현황
 - 만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에게 주거와 생계를 제공하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수를 조사
 - 한정된 시설의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지표이나, 전체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인구의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시대에 알맞은 요양보호 수요가 증가
 - 노인인구의 취미 등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 및 공간 확보가 필요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욕구 해소를 위해 국가나 사회가 확충한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연도별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알맞은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

- 사회복지 지출규모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사회적 위험(노령화·질병·실업·재해 등)에 노출된 개인에 대한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으로 지원하는(현금, 재화, 서비스 등)재정적 지원을 말함
 - 국제기준인 OECD등 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 및 평가 자료로 활용
- 성불평등지수(GII)현황
 - GII는 2010년부터 UNDP가 각 국의 성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한 지수임
 - 기존의 여성관련 지수로 분석되고 발표되던 여성권한 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대체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남녀평등에 관한 지표들의 한계를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가수준에서 상호 중복된 불평등을 설명하는 지표로 볼 수 있음
 - 성불평등지수(GII)는 여성을 향한 불이익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성평등 목표를 향한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해 볼 수 있으며, 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책무를 가지게 유도
-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현황
 -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시설
 -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 소득보장, 이동 및 접근의 장벽제거를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 1995년 UN 제4차 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에 따르면, 정부기구 및 위원회에 성비 균형 목표를 수립하는데 전념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 조치를 통해 여성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특정 목표를 설정
 - 정부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는 정책 수립과정에 균형 있는 양성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중요한 지표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분야와 보건 분야의 예산액이 전체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

- 사회복지분야 8개 부문으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이며, 보건 분야 2개 부문으로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으로 나뉘어져 있음
- 사회복지비 비중은 재정여건과 변화, 투자방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및 복지정책수립 기준에 중요한 지표
- 향후 늘려야할 복지서비스
 -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가 생각하는 생활 주변에서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표
 -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가 생각하는 향후 가장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파악하여 사회복지정책 및 연구 자료로 제공
- 생활환경과 오염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연도별 및 규모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수와 과거 10년간의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며, 순수한 대기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장 수
 - 대기배출업소 관리·감독기관(관할 행정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파악한 연도별 자료
 - 주요도시 대기오염도
 - 전국의 전체적인 대기오염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통해 상시 측정된 자료로 대기 오염도를 분석하여 대기보전 정책수립에 활용
 - 주요도시의 빗물의 산도
 - 빗물의 산도는 공장이나 화력발전소 등과 같은 사업장과, 자동차, 항공기 등 의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주요 원인물질임
 - 전국에 있는 40개의 산성강하물 측정소에서 빗물의 산성도를 측정하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빗물의 산성도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황사발생 빈도
 - 연별 황사발생횟수와 지속일수를 조사. 대기 중에 나타나는 기상현상의 일종으로서 목측 관측을 기준으로 하며, 계기관측을 병행

- 황사발생횟수란 중국 및 몽골 등의 황사발원지에서의 황사발생일수가 아닌 한반도에 영향을 준 황사의 사례별 횟수를 의미하며, 지속일수는 사례별로 황사 유입시점에서 소멸시점까지의 기간(일)을 의미
-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량 현황
 - 폐수발생량이란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량, 폐수방류량이란 폐수발생량 중 재이용수, 증발량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량
 - 폐수배출업소 및 배출량 변화 추이 등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과학적인 수질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하수도 보급률 변화추이
 - 총 인구 대비 공공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 포함)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인구비율로 산정
 - 매년 하수도보급률을 통해 하수도시설투자 현황 시계열 분석 및 하수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시 활용
- 생활, 사업장(일반, 건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발생량이란 시·군·구 단위에서의 가정이나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연성, 비가연성, 재활용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시설 등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을 매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조사함
 - 종량제 봉투 시행 이후의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는 효과,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제도 정착 이후의 매립 및 소각용 폐기물의 감량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자원화 계획 수립 전망 등에도 활용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을 포함하여 총 23종이 이에 해당
 - 장래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고 새로운 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며 현행 폐기물 관리제도의 효과 검증에 활용
-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 조사대상연도 재활용폐기물량은 전년도 보관량을 포함한 대상 업체의 전체 재활용처리량을 의미

- 재활용관련 업체의 현황 및 연간 재활용실적을 파악하여 재활용산업육성 및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화학물질 배출량 및 통계 조사
 - 화학물질 배출량이란 사업장의 화학물질 제조·사용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총량
 - 화학물질 유통량이란 사업장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수출량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양을 파악하고 매년 보고함으로써 사업장 스스로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각종 환경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화학물질 통계조사(유통량조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물질별 제조·수입·수출량 등을 2년 마다 조사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대상 우선물질 선정 등의 환경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환경오염방지 투자현황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기·소음·진동·수질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을 말함
 -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의 지난해 방지시설공사 수주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하여 지수화하여 분석하고 산업발전전략 추진 및 추진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소음·진동 배출시설 현황
 - 소음진동규제법령상 소음진동을 많이 발생시키는 기계나 기구에 대하여 소음·진동배출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함
 - 소음진동을 많이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 등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고소음 진동발생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지역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배출업소수와 그 외 지역의 배출업소수를 파악하여 관리하는데 활용
- 토양오염도 현황
 - 전국적으로 토양오염실태나 오염도의 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 예방 등 토양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실태 및 오염도 추이 등은 토양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
-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 환경관련 주요 정책 및 환경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식 및 태도를 평가하는 지표

- 환경관련 주요 정책 및 환경관련 사안에 대한 의식 및 태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환경정책의 보완점 및 추진방향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활용
-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 수목원 현황
 - 자연에서 생육하는 다양한 식물 종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 및 수집, 증식 및 보존, 관리를 통하여, 식물유전자원의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식물자원의 서식지를 제외한 보전기관으로써, 국민의 자연학습장 및 문화 휴식공간임
 - 연도별로 조성하고 운영 중인 수목원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가의 기본자산 중 하나인 식물자원을 보전하여 식물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
 - 자연휴양림 운영. 이용 현황
 -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
 - 직장인들의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 및 휴양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민들의 산림휴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전국 도시 숲 현황
 - 국민들의 휴양 및 정서함양, 다채로운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되고 관리하는 삼림 및 수목공원, 명상 숲, 산림공원 등을 말함
 - 도시 숲 조성은 국유지 및 공유지의 미활용 혹은 저활용 토지를 활용하여 작은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도시생태계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도시림면적 및 생활권도시림 면적은 도시 숲을 누리는 국민들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로서 의미가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가동률이란 수도시설의 일 최대생산량을 시설용량으로 나눈 값의 비율로 '20년 기준 시설용량은 일일 17,751천 톤으로 일일 최대생산량 13,828천 톤을 공급하여 '20년 가동률은 77.9% 수준임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가동률은 상수도 시설용량에 대한 최대생산량(1일 기준)의 비율이며 상수도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정도와 여유 량을 나타내는 지표임

- 상수도 급수현황(보급 및 급수량)
 - 총 인구에서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급수인구/총인구)을 말함
 - 수도물의 생산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향후 상수도 보급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수도물 생산시설의 추가적인 규모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자원 현황
 - 수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수, 치수, 환경생태 등의 수자원 분야별 지표(숫자) 또는 말로 표현한 것으로 수자원계획의 수립과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 현재의 물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장래 수요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비한 최적의 수자원이용·개발·보전 계획에 활용
- 하천정비(제방)현황
 - 전국 수계별 하천에 대한 제방축조, 노후제방 보강을 위한 하천정비 현황으로서 홍수로부터 주택, 농경지, 산업시설 등을 보호
- 기후변화와 에너지
 - CO₂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우리나라 대기 농도를 파악
 - 이산화탄소(CO₂)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지구 온난화의 연구를 위한 과학적 기초 자료로 활용
 - 화재발생 현황
 -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함
 - 증가하는 화재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에서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재통계를 대 국민서비스차원으로 실시간 유지, 관리
 - 가스(LNG)수급 동향
 - 우리나라의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및 수요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
 -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청정에너지 및 고급에너지의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중장기 도입계약 등을 통한 공급안정성 확보가 필요
 - 석유수급 동향
 - 석유수급 동향이란 원유의 도입부터 제품에 대한 수·출입, 제품 생산, 내수·수출 등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에 대한 수급 현황을 총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 통계 작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이용
- 석탄(무연탄)수급 동향
 - 석탄(무연탄)수급 통계 중 생산은 국내생산 무연탄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입석탄은 제외. 국내생산 무연탄의 소비는 용도별로 연탄용과 발전용, 산업용으로 구분
 - 석탄수급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석탄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에너지 수급현황
 - 에너지 수급현황은 매년 조사되는 연간통계이며 우리나라에서 수입·생산하여 공급된 에너지(1차 에너지)와 에너지 형태로의 전환과정을 거친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최종에너지)의 현황을 말함
 - 제유가 급등, 고유가 지속,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수급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에너지수급 통계, 전망 필요
-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 각 발전기의 연료 사용량, 각 연료별 발열량을 기초로 산출되는 발전량을 말함
 - 발전설비는 단기간에 건설이 불가능한 설비로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전력수요 예측 및 발전설비 건설계획이 중요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도별 전력수급동향을 참고하여 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전력수급 안정에 이바지함
- 전력수급 동향
 -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하고 매순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하므로 항상 최대 전력수요보다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공급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여유정도는 예비율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도별 전력수급동향을 참고하여 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전력수급 안정에 이바지함
-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비재생폐기물 제외)을 말하며,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폐기물, 해양, 지열, 수열이 신재생에너지에 속함
 -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로, 머지않아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실용화하고자 함

〈표 3-1〉 1차 지표 목록

대분류	중분류	지표
성장	성장	경기종합지수
성장	성장	ICT생산(매출)액
성장	성장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성장	성장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성장	성장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	생산성	노동생산성 지수
성장	생산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반 현황
성장	생산성	산업기술인력 현황
성장	생산성	민간투자사업 현황
성장	인적자원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
성장	기업동향	창업기업 동향
성장	기업동향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성장	혁신	IMD과학·기술 인프라
성장	혁신	WEF혁신역량·ICT보급
고용과 노동	고용과 노동	산업별, 직종별, 사업체 규모별 노동력 수요동향
고용과 노동	고용과 노동	고용센터 구인, 구직 및 취업현황
고용과 노동	고용과 노동	노인일자리 및 노후생활 현황
고용과 노동	고용과 노동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고용과 노동	고용과 노동	일반고용동향
고용과 노동	고용형태	비정규직 고용동향
고용과 노동	임금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고용과 노동	임금	내역별, 산업별, 규모별 노동비용
고용과 노동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실태 현황
소득·소비·자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추이
소득·소비·자산	소비	소비동향
소득·소비·자산	소비	소비자동향지수(CSI)
소득·소비·자산	소비	가계신용
소득·소비·자산	소득불평등	노인 빈곤율
소득·소비·자산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소득·소비·자산	물가	생산자물가지수
소득·소비·자산	물가	소비자물가지수

〈표 3-1〉 1차 지표 목록(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주거와 교통	주거비	주택매매가격 동향
주거와 교통	주거비	주택전세가격 동향
주거와 교통	주거의 질	유형별 재고 주택현황
주거와 교통	주거의 질	자가점유비율
주거와 교통	주거의 질	주택보급률
주거와 교통	교통인프라	고속국도 차량이용 현황
주거와 교통	교통인프라	고속철도 여객 소송동향
인구	인구변화	수도권과 지방현황
인구	인구변화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인구	인구변화	총인구, 인구성장률
인구	인구구조	남녀별 연령별 인구구조
가족	가족형성	가족의 형태별 분포
가족	가족관계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가족	가족관계	가족친화인증 기업체수
가족	가족관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수
가족	기타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건강	건강형태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GDP대비 경상의료비 추이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생물의약품산업현황(바이오의약품)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세대당 건강보험료부담액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수급 현황
교육	교육기회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교육	교육기회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여가	여가지원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여가	여가지원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여가	여가지원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지표
여가	기타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범죄와 사법정의	범죄발생	112신고접수 현황
범죄와 사법정의	범죄발생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

〈표 3-1〉 1차 지표 목록(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사회통합	연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사회통합	연대	자원봉사 참여(성인)
사회통합	포용성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사회통합	포용성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수 및 생활현황
사회통합	포용성	노인복지시설 현황
사회통합	포용성	사회복지 지출규모
사회통합	포용성	성불평등지수(GII)현황
사회통합	포용성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현황
사회통합	포용성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사회통합	포용성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
사회통합	기타	향후 늘려야할 복지서비스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주요도시대기오염도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주요도시의 빗물의 산도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황사발생 빈도
생활환경과 오염	수질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량 현황
생활환경과 오염	수질	하수도 보급률 변화추이
생활환경과 오염	폐기물	생활, 사업장(일반, 건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생활환경과 오염	폐기물	지정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생활환경과 오염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생활환경과 오염	유해물질	화학물질 배출량 및 통계조사
생활환경과 오염	환경관리	환경오염방지 투자현황
생활환경과 오염	기타	소음, 진동 배출시설 현황
생활환경과 오염	기타	토양오염도 현황
생활환경과 오염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육상생태	수목원 현황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육상생태	자연휴양림 운영 및 이용 현황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육상생태	전국 도시숲 현황

〈표 3-1〉 1차 지표 목록(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수자원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수자원	상수도 급수현황(보급 및 급수량)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수자원	수자원 현황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수자원	하천정비(제방)현황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CO2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연재해	화재발생현황
기후변화와 에너지	1차 에너지	가스(LNG)수급 동향
기후변화와 에너지	1차 에너지	석유수급 동향
기후변화와 에너지	1차 에너지	석탄(무연탄)수급 동향
기후변화와 에너지	1차 에너지	에너지 수급현황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력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력	전력수급동향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2. 공동연구진 제안지표

■ 사회복지분야

○ 기초연금 지급률

-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하위 70%의 노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지급률을 말함
- (기초연금 지급자 수/만 65세 이상 인구 수)×100로 구하며,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지급률

- 장애로 인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임
- (장애인연금 지급자 수/장애인연금 대상자 수)×100로 구하며, 장애인들의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 (장애인 체육관 수+기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장애인구 수×10,000명으로 구할 수 있음
- 단위인구(십만 명)당 작은 도서관 수
 - 공공도서관이 아닌 지방 자치 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도서관으로 지역민들에게 지식·정보의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의 수를 말함
 - 국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에 대한 부분 및 생활 친화력 도서관 문화에 대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장애인 고용률
 -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상시근로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의 형평성을 측정할 수 있음
-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기관 수
 - 평생교육기관이란 국민의 학습욕구를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함
 -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기관 수가 많다는 것은 기초지자체 단위의 주민평생 학습지원시스템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교육기관과 주민의 학습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
 - 즉, 지역사회가 시민의 자아실현의 토대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주는 지를 알 수 있음
- 인구 1만 명 당 의사 수
 - 인구 1만 명 당 의사 수는 의료의 질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보건의료의 취약성을 판단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란 전체 등록 장애인 수와 2급 이상 장애인 수를 더한 규모로 볼 수 있음
 - 장애인 복지영역 중 생애과정의 단계마다 이루어져야하는 과업이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적 혹은 사회적 욕구가 있음을 인지하여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에 대한 부분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간주
 - 가족 부담이나 갈등의 일정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 어린이집 정원
 - 장애인 복지영역 중 아동 돌봄의 영역으로 관내 0~5세 영유아 인원 천 명당 특수 어린이집 정원을 말함
 - 장애아 보육정책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장애아 보육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활용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아동 비율도 증가하는데, 이는 공보육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의 지표 측정은 보육사각지대의 해소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알아보는 데 활용

〈표 3-2〉 공동연구진 제안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표
사회복지	노인복지	기초연금 지급률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지급률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 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사회복지	교육기회	단위인구(십만 명)당 작은 도서관 수
사회복지	교육기회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기관 수
사회복지	교육기회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 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사회복지	노동	장애인 고용률
사회복지	의료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사회복지	보육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사회복지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제3절 지표검토 및 채택여부

1. 지표 채택 기준체계

- 지표의 개념
 - 지표란 특정한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유의미한 통계치를 이룸
 - 지역 내 구조 분석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 지역의 제반 현상에 대한 자료인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격차와 불균형에 대한 연구이므로 수원시에 대한 지표 발굴 연구를 통해 지역 내,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제안해보고자 함
- 기준 체계
 - 참고문헌 및 통계자료 검토, 기존 연구 확인, 전문가 자문, 공동연구진 제안을 통해 1차 지표로 113개를 선정했음
 - 1차 지표들을 토대로 4가지 분류를 통해 조사가능 한 지표들을 2차 지표로 분류함
 -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에서 조사 가능한지를 조사한 후 수원시의 지표를 찾을 수 없는 지표는 제외함
 - 제외된 지표 중에서 유의미하고 연구에서 필요한 지표들도 존재하나 지역별 조사(수원시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추가 지표 제안에서 다루기로 함
 - 수원시의 격차를 해당 지표만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주관적인 내용들이 들어간 지표들은 포함시키지 않음

〈표 3-3〉 1차 지표 추출 가능 여부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성장	성장	경기종합지수	『산입활동동향 인입활동동향』 (매 익월 하순)	X	X	X
성장	성장	ICT생산(매출)액	ICT실태조사 및 ICT주요품목동향조사(매년)	X	X	X
성장	성장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한국은행「국민소득」 (분기별)	X	X	X
성장	성장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매달)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3년 주기), 수원시 클목 길상권 소상공인 현황(매년)	수원시 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3년 주기), 수원시 클목 길상권 소상공인 현황(매년)
성장	성장	지역내 총생산(GRDP)	통계청「지역소득」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성장	생산성	노동생산성 지수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통계DB(매년)	X	X	X
성장	생산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반 현황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중기중앙회「중소기업위상 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 개발활동조사 보고서」 매년	X	X	X

(표 3-3) 1차 지표 추출 가능 여부(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성장	생산성	산업기술인력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조사 보고서」(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	×
성장	생산성	민간투자사업 현황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매년)	×	×	×
성장	인적자원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	OECD(각 연도)	×	×	×
성장	기업동향	창업기업 동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정책관 통계분석과 (매월)	×	×	×
성장	기업동향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매년)	×	×	×
성장	혁신	IMD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력과 (매년)	×	×	×
성장	혁신	WEF혁신역량·IC T모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력과 (매년)	×	×	×

〈표 3-3〉 1차 지표 추출 가능 여부(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고용과 노동	고용과 노동	산업별, 직종별, 사업체 규모별 노동력 수요동향	고용노동부「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반기)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고용과 노동	고용과 노동	고용센터 구인, 구직 및 취업현황	고용노동부 (매월/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고용과 노동	고용과 노동	노인일자리 및 노후생활 현황	보건복지부 (내부행정자료, 2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황	시니어매장현황, 경기복지재단(경기도노인 일자리지원센터),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황	시니어매장현황, 경기복지재단(경기도노인 일자리지원센터),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황
고용과 노동	고용과 노동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경제활동인구조사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시군(9개도)까지 표시	x
고용과 노동	고용과 노동	일반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시군(9개도)까지 표시	x
고용과 노동	고용형태	비정규직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고용과 노동	임금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매년)	x	x	x
고용과 노동	임금	내역별, 산업별, 규모별 노동비용	고용노동부「기업노동비용조사보고서」(매년)	x	x	x

〈표 3-3〉 1차 지표 추출 가능 여부(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고용과 노동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실태 현황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매년)	x	x	x
소득·소비·자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추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매년)	x	x	x
소득·소비·자산	소비	소비동향	한국은행「국민소득」, 통계청「산업활동동향」 (분기별/매년)	x	x	x
소득·소비·자산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CSI)	한국은행「소비자동향조사」 (매월)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소득·소비·자산	자산	가계신용 동향	한국은행「가계신용동향」 (분기)	x	x	x
소득·소비·자산	소득불평등	노인 빈곤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매년)	x	x	x
소득·소비·자산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통계청「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가계금융 복지조사」(매년)	x	x	x
소득·소비·자산	물가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생산자물가지수」 (매월)	x	x	x

〈표 3-3〉 1차 지표 추출 가능 여부(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소득·소비·자산	물가	소비지물가지수	통계청「소비지물가지수」(매월)	x	x	x
주거와 교통	주거비	주택매매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매월)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주거와 교통	주거비	주택전세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매월)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주거와 교통	주거의 질	유형별재고주택현황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 까지 표시
주거와 교통	주거의 질	자기점유비율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주거와 교통	주거의 질	주택보급률	국토교통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 까지 표시
주거와 교통	교통인프라	고속국도 차량이용 현황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통행권발급 및 통행차량현황 조사」(매년)	x	x	x
주거와 교통	교통인프라	고속철도 여객 소송동향	한국철도공사 및 (주)SR에서 제공하는「KTX, SRT 여객 수송 통계」(매년)	x	x	x
인구	인구변화	수도권과 지방현황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매년)	x	x	x

(표 3-3) 1차 지표 추출 가능 여부(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인구	인구변화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7~2047」, 국토교통부「지역통계」(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인구	인구변화	총인구, 인구성장률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7~2067년」中 중위추계 결과(2019년 13월)(5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 까지 표시
인구	인구구조	남녀별 연령별 인구구조	통계청「장래 인구 추 계: 2017~2067년」中 중위추계 결과(2019년 13월) (5년)	x	x	x
가족	가족형성	가족의 형태별 분포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가족	가족관계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통계청 「사회조사」(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가족	가족관계	가족친화인증 기업체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제」(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가족	가족관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표 3-3) 1차 지표 추출 가능 여부(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가족	기타	장애이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	보건복지부「보육통계」(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통계청,「생명표, 국가승인 통계 제11035호」(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건강	건강형태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식품의약품안전처(3년)	x	x	x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GDP대비 경상의료비 추이	보건복지부, OECD(매년)	x	x	x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생물의약품산업현황(바이오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연보(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세대당건강보험료 부담액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보험정책과(매년)	x	x	x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수급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교육	교육기회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매년)	x	x	x
교육	교육기회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교육부「특수교육 연차보고서」(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표 3-3〉 1차 지표 추출 가능 여부(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여가	여가지원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매년)	x	x	x
여가	여가지원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여가	여가지원	공연장/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문화체육관광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여가	기타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매년)	x	x	x
범죄와 사법정의	범죄발생	112신고접수 현황	경찰청, 『경찰백서』(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범죄와 사법정의	범죄발생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사회 재난)』(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사회통합	포용성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매년)	x	x	x
사회통합	포용성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현황	보건복지통계연보(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표 3-3〉 1차 지표 추출 가능 여부(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사회통합	포용성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반기)	x	x	x
사회통합	포용성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매년)	x	x	x
사회통합	기타	항후 노력야할 복지서비스	통계청, 「사회조사」(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환경부「환경통계연감」(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주요도시대기오염도	환경부「대기환경연보」(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주요도시의 빗물의 산도	환경부「대기환경연보」(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황사발생 빈도	기상청 국가후데이터센터 통계분석시스템(매년)	x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생활환경과 오염	수질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량 현황	환경부, 「공정폐수의 발생과 처리」(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생활환경과 오염	수질	하수도 보급률 변화추이	환경부「하수도통계」(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표 3-3) 1차 지표 추출 가능 여부(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생활환경과 오염	폐기물	생활, 사업장(일반, 건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생활환경과 오염	폐기물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생활환경과 오염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환경부 「전국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매년)	x	x	x
생활환경과 오염	유해물질	화학물질배출량 및 통계조사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생활환경과 오염	환경관리	환경오염방지 투자현황	환경부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 수주실적」(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생활환경과 오염	기타	소음·진동 배출시설 현황	환경부 「환경통계연감」(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생활환경과 오염	기타	토양오염도 현황	환경부 「토양측정량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매년)	x	x	x
생활환경과 오염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환경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5년)	x	x	x

〈표 3-3〉 1차 지표 추출 가능 여부(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육상생태	수목원 현황	산림청 『임업통계연보』(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수목원 없음	수원시 수목원 없음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육상생태	자연휴양림 운영·이용 현황	산림청 『임업통계연보』(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휴양림 없음	수원시 휴양림 없음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육상생태	전국 도시숲 현황	산림청, 전국 도시림현황통계(2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수자원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매년)	x	x	x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수자원	상수도 급수현황(보급 및 급수량)	환경부 『상수도통계』(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수자원	수자원 현황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수자원	하천정비(제방)현황	국토교통부 『한국하천일람』(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CO2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기상청 『지구대기감시 보고서』(매년)	x	수원도시공사, 매년	수원도시공사, 매년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연재해	화재발생현황	소방청 『화재통계연보』(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표 3-3〉 1차 지표 추출 가능 여부(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기후변화와 에너지	1차에너지	가스(LNG)수급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매년)	X	X	X
기후변화와 에너지	1차에너지	석유수급 동향	한국석유공사「석유수급통계」(매월)	X	X	X
기후변화와 에너지	1차에너지	석탄(무연탄)수급 동향	산업통상자원부「광물생산보고서」(매월)	X	X	X
기후변화와 에너지	1차에너지	에너지 수급현황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연보」(매년)	X	X	X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력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매월)	X	X	X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력	전력수급동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매월)	X	X	X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사회복지	노인복지	기초연금 수급률	보건복지부(매월)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표 3-3〉 1차 지표 추출 가능 여부(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명군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수급률	보건복지부(매월)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 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대한장애인체육회(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내부자료	수원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내부자료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보건복지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사회복지	교육기회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국기도서관통계시스템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사회복지	교육기회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기관 수	교육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사회복지	교육기회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 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보건복지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보육이동과 내부자료	수원시 보육이동과 내부자료
사회복지	노동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고용공단(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x	x
사회복지	의료	인구 1만 명당 의사수	국민건강보험공단(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사회복지	보육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근로복지공단(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2. 1차 지표 분류

■ 분류 기준

- 1차 지표 분류를 통해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의 자료 중 존재하지 않은 자료는 제외
- 국가 전체에 대한 지표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세부적으로 각 시도별 지표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지표를 살펴보면 소득·소비·소득 영역 중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는 두 가지(노인 빈곤율 및 지니계수)임
 - 이외에 불평등 관련지표로는 성불평등지수(GII) 및 디지털정보격차 현황이 있음
- 전반적으로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가 부족하며, 국가평균만 조사하고 있거나 광역단위 까지만 조사하므로 지역 간 격차 혹은 지역 내 격차를 조사하기 어려움
-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 문항이거나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0~10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함
 - 국가평균 조사가 대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지역 간 비교 혹은 지역 내 비교가 불가능함
-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지표 중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는 학력별 임금격차, 공무원 보수 추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반 현황,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등이 있음
 -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들은 대부분 국가평균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비교 및 지역 내 비교가 불가능함

■ 보완

- 수원시 지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지표 중 유의미한 지표들은 다음 절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지방지표를 참고하여 격차관련 지표를 2차 지표목록에 추가하고자 함
- 통계청에 공개되어있는 지표들을 토대로 격차 및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고 지역 내 비교와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선별하여 도출 예정
- 제3장에서는 논의하지 못했으나 제4장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재는 측정할 수 없는 지표임에도 추후 필요하고 조사해야 하는 지표 역시 제안

〈표 3-4〉 1차 분류 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성장	성장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매달)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3년 주기), 수원시 골목길상권 소상공인 현황(매년)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3년 주기), 수원시 골목길상권 소상공인 현황(매년)
고용과 노동	고용과 노동	노인일자리 및 노후생활 현황	보건복지부 (내부행정자료, 2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황	시니어매장현황, 경기복지재단(경기도노인일 자리지원센터),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황	시니어매장현황, 경기복지재단(경기도노인일 자리지원센터),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황
고용과 노동	고용과 노동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경제활동인구조사(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시군(9개도)까지 표시	x
고용과 노동	고용과 노동	일반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시군(9개도)까지 표시	x
주거와 교통	주거의 질	유형별재고주택현 황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 까지 표시
주거와 교통	주거의 질	주택보급률	국도교통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 까지 표시
인구	인구변화	총인구, 인구성장률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7~2067년」중 중위추계 결과(2019년 13월)(5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 까지 표시
가족	가족형성	가족의 형태별 분포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표 3-4〉 1차 분류 지표(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가족	가족관계	가족친화인증 기업체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제」(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가족	가족관계	건강기정지원센터 설치 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가족	기타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여가	여가지원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여가	여가지원	공연장/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지표	문화체육관광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사회통합	포용성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현황	보건복지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주요도시대기오염도	환경부「대기환경연보」(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주요도시의 빗물의 산도	환경부「대기환경연보」(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생활환경과 오염	수질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량 현황	환경부, 「공정폐수의 발생과 처리」(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CO2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기상청「지구대기감시 보고서」(매년)	x	수원도시공사, 매년	수원도시공사, 매년

〈표 3-4〉 1차 분류 지표(계속)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사회복지	노인복지	기초연금 수급률	보건복지부(매월)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수급률	보건복지부(매월)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 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대한장애인체육회(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내부자료	수원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내부자료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보건복지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사회복지	교육기회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국기도서관통계시스템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사회복지	교육기회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기관 수	교육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사회복지	교육기회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보건복지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보육이동과 내부자료	수원시 보육이동과 내부자료
사회복지	의료	인구 1만 명당 의사수	국민건강보험공단(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사회복지	보육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근로복지공단(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3. 1차 지표 도출

- 1차 분류 지표에 따라 10개의 대분류와 17개의 중분류 26개의 지표를 추출함
- 1차 분류 지표에서 수원시 및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추출이 가능하고 지표로서 의미가 있으나, 격차를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표는 최종지표에서 삭제
- 격차분석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은 최종지표 목록에서 삭제
 - 현황 파악 및 흐름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지표로서 격차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거나 중복의 우려가 있음
- 수원시 지방지표를 참고하여 지표를 추가하여 최종지표를 도출

4. 2차(수원시 적용 가능) 지표 도출

-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는 총보육시설수를 주민등록인구(0~5세)로 나누고 1,000을 곱하여 구함
 -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을 모두 포함
 -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에 영향을 주며 보육여건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임
 - 전국, 서울 및 경기, 수도권, 수원시까지 매년 조회가능하나 수원시 관내지표는 현재 부재한 상태임
- EQ-5D
 - EQ-5D란 삶의 질 지수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5가지 차원인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임
 -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3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면 육체적 영역(운동능력, 자기관리), 심리적 영역(통증·불편, 불안·우울), 사회적 영역(일상 활동) 등임
 - 한국에서 유일한 삶의 질 측정도구로 볼 수 있으며, 단일한 점수로 환산되어 지역 간 비교 및 지역 내 비교가 가능함
 - 전국, 서울 및 경기, 수도권, 수원시, 수원시 관내지표까지 모두 매년 조회 가능함
- 교원 1인당 학생수

-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교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뜻하며, 총학생수를 총교원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음
 - 교원 수는 학교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며, 교육여건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임
-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해 질 가능성이 높으며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전국, 서울 및 경기, 수도권, 수원시까지 매년 조회가능하나 수원시 관내 지표는 부재한 상태임
-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는 기반시설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후 100,000을 곱하여 구함
 -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및 문화기본권을 기반시설 수를 통해 측정해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전국, 서울 및 경기, 수도권, 수원시까지 매년 조회가능하나 수원시 관내 지표는 부재한 상태임
- 일반가구의 주택소유율
 - 통계청에서 명명한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및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말함
 - 일반가구의 주택소유율은 이러한 일반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을 말함
 - 주택소유율은 총 가구, 주택소유가구, 주택소유가구비율, 무주택가구, 무주택가구 비율을 알 수 있음
 - 주거안정 및 주거격차를 측정해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전국, 서울 및 경기, 수도권, 수원시, 수원시 관내 지표까지 매년 조회 가능함

〈표 3-5〉 2차 지표 도출

대분류	중분류	지표	추출 가능 여부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성장	소득	지니계수	가계금융·복지조사 (매년)	직접산출	직접산출	직접산출
사회복지	보육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보건복지부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사회복지	삶의 질	EQ-5D	보건복지부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 단위까지 표시
사회복지	교육기회	교원 1인당 학생 수	한국교육개발원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여가	여가지원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문화체육관광부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주거와 교통	주거	일반기구의 주택소유율	통계청 행정통계과 (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제4절 예시로 검증

1. 소득

■ 소득격차 측정방법

- 한 집단 내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개인별 소득 자료를 토대로 측정
 - 그러나 개인 소득 자료를 얻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현재 시민 소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소득구간별 가구의 분포에만 접근 가능
- 지역의 지니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회조사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가정이 필요
 - 첫째, 각 소득구간에 속한 가구의 소득은 각 소득구간의 중간 값으로 균등분포라 가정
 - 둘째, 지역의 수원시 사회조사에 응한 가구의 최고소득 구간 상한액은 월 800만 원으로 가정
- 위의 두 가지 가정을 따를 때, 다음과 같이 수원시의 지니 계수를 구할 수 있음

$$G = \frac{1}{2n^2\mu} \times \sum_{i=1}^n \sum_{j=1}^n |Y_i - Y_j|$$

n=수원시 가구 수, Yi=수원시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 μ =평균 소득

- 이럴 경우, 최상위소득계층을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 최대 소득액을 보수적(월 750만 원)으로 잡았다는 점, 소득구간별로 가구소득이 균등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가정을 채택했다는 점은 과소 추정의 한계를 안고 있음
 - 특히, 소득구간별로 가구소득이 균등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은 각 소득구간 내의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자료구득과 추정방법의 차이 때문에 지역 산출 지니계수를 OECD, 대한민국, 경기도의 지니계수와 비교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음
 - 다만, 수원시 행정구 간 지니계수의 비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수원시의 지니계수

- 2015 기준, 수원시와 대한민국의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3-6〉 2015년 수원시와 대한민국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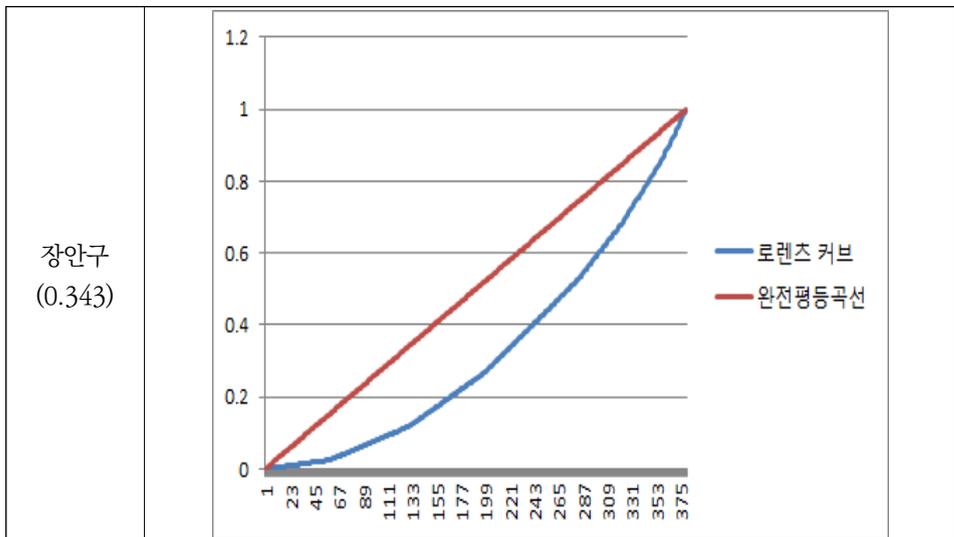
	수원시	대한민국		
		전체가구	2인 이상 비농가	도시 2인 이상
지니계수	0.35	0.341	0.307	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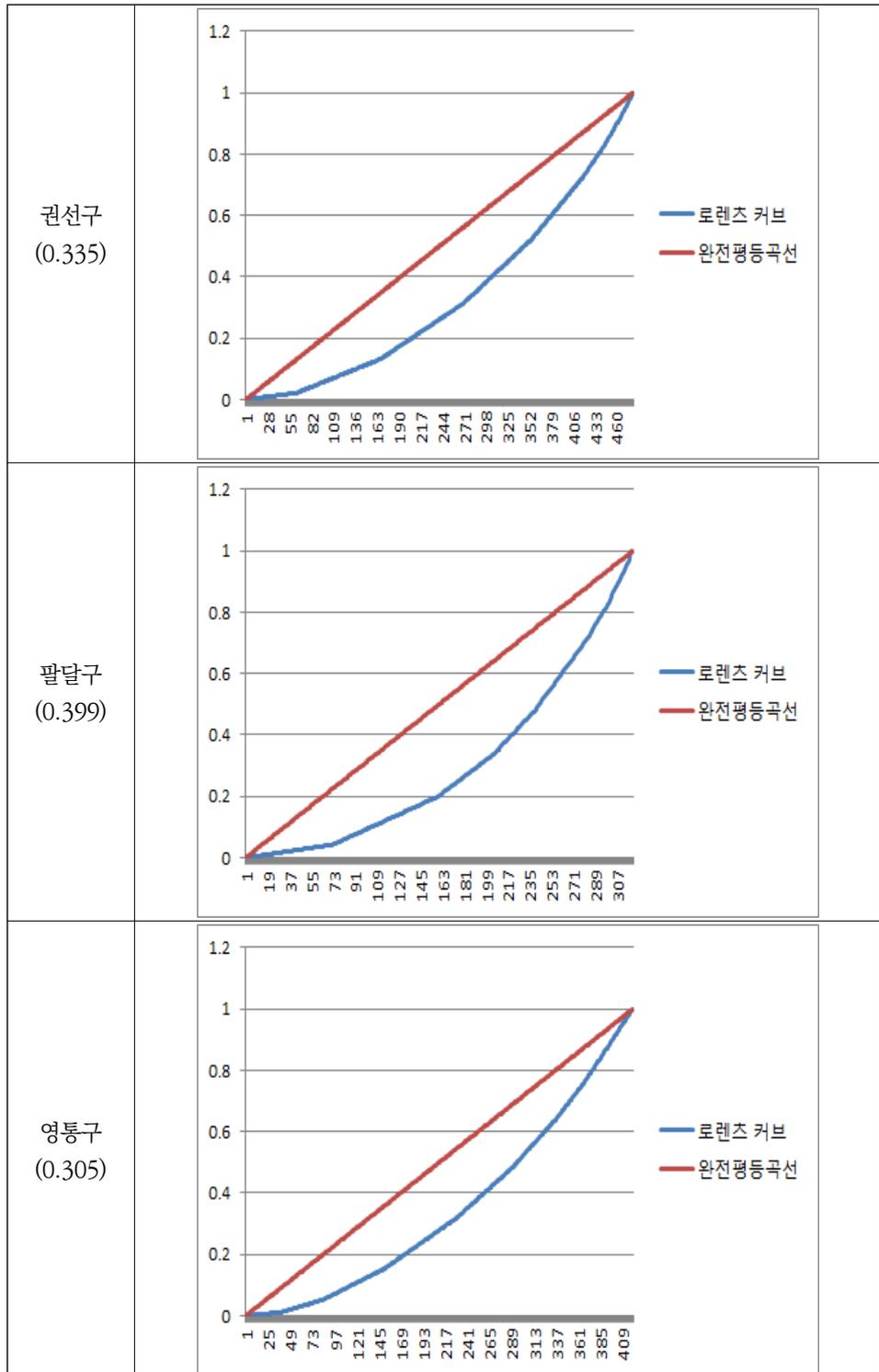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 수원시 가구의 전체 지니계수는 0.35로 측정됨
 - 같은 기간 측정된 전국단위 전체가구, 2인 이상 비농가, 도시 2인 이상 가구로 측정된 지니계수보다 모두 더 높게 나타남
- 수원시 최상위계층 내에서의 소득격차를 과소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수치보다 더 높게 산출됨
 - 도시형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형 특성은 불평등도의 수치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

■ 수원시 각행정구별 지니계수

- 아래의 그림은 수원시 각 행정구별 지니계수 추정 값을 나타냄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그림 3-1〉 수원시 행정구별 지니계수

- 수원시의 각 행정구별 지니계수를 추정해보면 장안구는 0.343, 권선구는 0.335, 팔달구는 0.399, 영통구는 0.305로 나타남

〈표 3-7〉 2015년 수원시 및 수원시 각 구의 지니계수

	수원시 전체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지니계수	0.35	0.343	0.335	0.399	0.305

자료: 수원시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 각 구별 지니계수의 함의

- 두 사람만 존재하는 어떤 사회에서 두 사람의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하면(두 사람 모두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이 사회의 지니계수는 0이 됨
- 반면, 두 사람 중 한사람만 소득을 올리고 다른 한 사람은 소득이 없다면 이 사회의 지니계수는 1이 됨
 - 즉, 소득 불평등이 이루어질수록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남
- 지니계수가 크다는 것은 비교대상인 동일한 지역의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반대로 로렌츠 곡선은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할 때 기울기가 1인 대각선의 형태로 나타남

2. 주거

■ 일반가구의 주택소유율

- 주택이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되고 헌법에도 주거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가구의 주택소유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한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주택문제가 정부정책 중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
- 한국에서 '부동산시장', '내 집 마련' 등으로 일컬어지는 주택가격 변동과 주택소유에 관한 문제는 큰 이슈이며 각종 언론에서 매일 다루다시피 하고 있음
- 지역에서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하고 주택 가격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주거격차를 줄일 수 있음
- 수원시는 서울시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택소유율을 주요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차후연구의 보완지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주택가격의 상승 및 하락은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주택가격 차이발생이 가구자산에 영향을 미침
- 2015년 지표는 조사되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2016년부터 4개년 자료만 제공되어 부득이하게 4개년 자료로 분석함

〈표 3-8〉 2016~2019년 전국,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일반가구의 주택소유율

연도	문항	전국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2016년	총가구	19,367,696	3,784,705	4,484,424	436,304
	주택소유가구	10,743,492	1,864,059	2,466,749	231,351
	주택소유가구비율	55.5	49.3	55.0	53.0
	무주택가구	8,624,204	1,920,646	2,017,675	204,953
	무주택가구비율	44.5	50.7	45.0	47.0
2017년	총가구	19,673,875	3,813,260	4,602,950	445,309
	주택소유가구	11,000,007	1,875,189	2,542,649	237,503
	주택소유가구비율	55.9	49.2	55.2	53.3
	무주택가구	8,673,868	1,938,071	2,060,301	207,806
	무주택가구비율	44.1	50.8	44.8	46.7
2018년	총가구	19,979,188	3,839,766	4,751,497	450,819
	주택소유가구	11,233,906	1,884,423	2,642,084	243,946
	주택소유가구비율	56.2	49.1	55.6	54.1
	무주택가구	8,745,282	1,955,343	2,109,413	206,873
	무주택가구비율	43.8	50.9	44.4	45.9
2019년	총가구	20,343,188	3,896,389	4,907,660	457,351
	주택소유가구	11,456,266	1,894,875	2,745,423	246,964
	주택소유가구비율	56.3	48.6	55.9	54
	무주택가구	8,886,922	2,001,514	2,162,237	210,387
	무주택가구비율	43.7	51.4	44.1	46

■ 주택소유율의 추이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의 일반가구 주택소유율을 살펴보면 총가구, 주택소유가구, 주택소유가구비율은 지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임
 - 전국적으로는 무주택가구는 증가하였으나 무주택가구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주택소유가구 및 주택소유가구비율은 크게 변함이 없으나, 무주택가구 및 무주택가구비율은 증가하였음

- 경기도와 수원시에 경우 무주택가구가 증가하였으나 무주택가구비율은 감소하였음
- 전국, 경기도, 수원시에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택소유가구비율이 높으나 서울에 경우에는 무주택가구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에 경우 2019년 기준 경기도의 평균 주택소유가구비율보다 낮으며, 무주택가구비율은 높음

〈표 3-9〉 2016~2019년 수원시 구별 주택소유율

연도	문항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2016년	총가구	436,304	104,948	130,273	78,986	122,097
	주택소유가구	231,351	61,641	67,183	36,786	65,741
	주택소유가구비율	53.0	58.7	51.6	46.6	53.8
	무주택가구	204,953	43,307	63,090	42,200	56,356
	무주택가구비율	47.0	41.3	48.4	53.4	46.2
2017년	총가구	445,309	105,494	134,198	79,095	126,522
	주택소유가구	237,503	62,237	70,884	36,794	67,588
	주택소유가구비율	53.3	59.0	52.8	46.5	53.4
	무주택가구	207,806	43,257	63,314	42,301	58,934
	무주택가구비율	46.7	41.0	47.2	53.5	46.6
2018년	총가구	450,819	103,605	141,221	75,222	130,771
	주택소유가구	243,946	62,144	75,218	35,417	71,167
	주택소유가구비율	54.1	60	53.3	47.1	54.4
	무주택가구	206,873	41,461	66,003	39,805	59,604
	무주택가구비율	45.9	40	46.7	52.9	45.6
2019년	총가구	457,351	103,478	141,421	74,470	137,982
	주택소유가구	246,964	61,334	74,762	35,147	75,721
	주택소유가구비율	54	59.3	52.9	47.2	54.9
	무주택가구	210,387	42,144	66,659	39,323	62,261
	무주택가구비율	46	40.7	47.1	52.8	45.1

- 수원시 관내를 살펴보면 장안구에 경우 2017년까지는 총가구수가 증가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감소하였음
 - 주택소유가구비율은 2018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감소하였음
 - 무주택가구비율은 2018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증가하였음
 - 수원시 관내에서 무주택가구비율이 가장 낮은 곳임
- 권선구에 경우 주택소유가구 및 비율이 2018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감소하였음
 - 무주택가구비율은 2018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증가하였음

- 권선구는 2019년 기준으로 수원시 평균 무주택가구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팔달구에 경우에는 수원시 관내에서 유일하게 주택소유가구비율보다 무주택가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통구는 2017년부터 주택소유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무주택가구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음
- 장안구와 영통구는 수원시 평균 주택소유가구비율보다 높고, 권선구와 팔달구는 수원시 평균 무주택가구비율보다 높음
- 장안구와 영통구보다 권선구와 팔달구가 주택소유율에 대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10〉 경기도 내 주택소유율과 무주택가구비율

행정구역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택소유 가구비율	무주택가 구비율	주택소유 가구비율	무주택가 구비율	주택소유 가구비율	무주택가 구비율	주택소유 가구비율	무주택가 구비율
양평군	60.40	39.60	61.50	38.50	62.60	37.40	64.10	35.90
광주시	60.20	39.80	61.80	38.20	63.00	37.00	63.70	36.30
용인시	59.80	40.20	60.00	40.00	59.80	40.20	61.50	38.50
안양시	60.90	39.10	61.10	38.90	61.30	38.70	60.90	39.10
여주시	58.40	41.60	60.10	39.90	60.60	39.40	60.70	39.30
이천시	57.30	42.70	59.20	40.80	60.10	39.90	60.30	39.70
군포시	60.40	39.60	59.90	40.10	60.30	39.70	59.50	40.50
부천시	57.80	42.20	58.10	41.90	59.10	40.90	59.10	40.90
광명시	58.80	41.20	58.40	41.60	58.90	41.10	58.90	41.10
의왕시	59.80	40.20	60.00	40.00	60.00	40.00	58.70	41.30
수원시	53.00	47.00	53.30	46.70	54.10	45.90	54.00	46.00

-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주택소유가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양평군이며, 가장 낮은 곳은 하남시로 주택소유비율이 47.4%로 나타남
- 주택소유율 조사 중, 구 단위 조사는 수원시(4개구), 성남시(3개구), 안양시(2개구), 안산시(2개구), 고양시(3개구), 용인시(3개구)에서만 실시
- 구 단위로 조사한 곳 중에 주택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고양시의 일산서구로 65.1%이며, 무주택가구비율은 34.9%로 나타남
- 수원시는 경기도 내 주택소유가구비율 순위 중 23위를 기록하며, 경기도 전체의 주택소유가구비율 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3. 여가

■ 공공체육시설 현황

- 공공체육시설은 22가지 시설 항목으로 나눌 수 있음
 - 육상경기장: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 ○○경기장 등으로 일컬어짐
 - 축구장: 축구 경기 가능시설로 육상경기장 내의 축구경기장은 제외
 - 하키장: 하키 전용 경기장에 한함
 - 야구장: 본루로부터 1,3루 측 야외거리가 98m 이상, 백스크린까지 110m이상 또는 유사한 규격
 - 사이클경기장: 일주거리 실내 250~400m, 실외 250m~500m, 주로 폭 7m의 규격
 - 테니스장: 가로 10.97m, 세로 23.77m(마을체육시설 수준의 테니스장은 제외하며, 간의 운동장으로 분류)
 - 씨름장: 경기 경기장 높이 30cm 이상 70cm 이하, 경기장 직경 8m 이상인 원형의 모래시설과 경기장 밖 1.5m 이상의 보조경기장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 간이운동장: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기구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거주지 인근의 마을체육시설
 - 체육관: 구기체육관(구기 종목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투기체육관(투기 종목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생활체육관(각종체육시설이 복합 설치된 체육관)을 말함
 -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식 규격의 게이트볼장으로 지붕, 기둥 또는 벽면으로 구성된 경기장
 - 수영장: 경영풀, 다이빙풀, 비정규를 통합하여 말함
 - 롤러스케이팅장: 정규트랙경기장, 정규로드경기장, 간이경기장을 통합하여 말함
 - 사격장: 공기총사격, 화약총사격, 클레이사격, 러닝 타겟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격장
 - 국궁장: 사정거리는 관저 중심에서 사대 중심까지 145m, 과녁 사이 5m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 양궁장: 30m, 50m, 60m, 70m, 90m 거리의 경기 가능
 - 승마장: 마장마술, 장애물 비월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승마장
 - 골프연습장: 골프 연습 타석을 갖춘 시설
 - 조정카누장: 조정 경기 가능 시설, 카누 경기 가능 시설

- 요트장: 요트 경기에 필요한 시설 및 요트의 수납, 정비용 시설이 갖춰진 경기장 또는 유사경기장
- 빙상장: 쇼트트랙 및 400m트랙 또는 유사한 규격
- 설상경기장: 스키점프장, 바이애슬론경기장, 크로스컨트리경기장,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경기장
- 기타 체육시설: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체육시설
- 1인당 체육시설 면적
 -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 청소년관련체육시설을 해당연도의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함
 - 이 중에서 지역을 망라하여 설치하는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등은 제외함

〈표 3-11〉 2015년~2019년 전국공공체육시설수

시설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서울	경기	수원																
합계	22,662	2,796	3,677	189	24,303	2,859	3,941	192	26,927	2,893	4,541	209	28,578	2,967	4,806	211	30,185	3,005	5,105	245
육상경기장	254	3	53	1	257	3	52	1	256	3	44	1	255	3	45	1	252	3	43	1
축구장	886	65	180	12	928	66	196	12	984	69	216	12	1,019	73	243	12	1,040	74	247	11
하키장	16	1	3	-	16	1	3	-	16	1	3	-	16	1	3	-	16	1	3	-
아구장	222	13	54	1	241	15	59	1	264	16	64	1	293	17	74	2	309	19	77	2
사이클경기장	12	1	1	-	11	1	1	-	11	1	1	-	11	1	1	-	11	1	1	-
테니스장	718	60	151	8	740	58	162	10	772	57	178	9	797	62	185	9	818	66	194	10
씨름장	54	-	11	1	62	-	13	1	66	-	15	1	66	-	15	1	71	-	17	1
간이(운동장 ¹⁾)	17,111	2,374	2,541	150	18,394	2,426	2,653	150	20,602	2,445	3,127	163	21,947	2,472	3,257	164	22,866	2,476	3,265	164
체육관	905	123	210	10	955	125	229	11	1,010	133	243	12	1,066	139	262	12	1,139	146	296	13
게이트볼장 ²⁾	1,294	7	245	1	1,362	8	277	1	1,479	11	319	1	1,594	13	344	1	1,742	22	408	31
수영장	370	89	75	2	379	89	77	2	406	90	92	5	428	91	100	5	457	95	112	6
롤러스케이팅장	147	14	29	-	159	15	33	-	157	14	36	-	165	16	42	-	172	16	48	1

1) 마을체육시설
2) 전천후 시설

〈표 3-12〉 2019년 경기도 내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수 순위

순위	행정구역 별	경기도 내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 순위)												
		계	축구 장	배구 장	농구 장	씨름 장	테니스 장	게이 트볼 장	운동 광장	배드 민턴 장	체조 장	롤러 장	수영 장	기타
1	안산시	390	27	3	48	3	49	54	2	86	-	11	-	107
2	수원시	320	11	-	71	-	44	30	1	134	-	14	-	15
3	성남시	316	2	-	35	-	24	37	3	161	3	9	-	42
4	화성시	315	30	17	65	4	13	26	15	59	-	9	1	76
5	용인시	256	2	-	40	-	32	9	1	95	-	10	-	67
6	부천시	205	2	-	35	-	7	12	7	89	-	2	-	51
7	고양시	145	18	11	41	1	22	23	-	27	-	-	-	2
8	의정부시	128	9	1	9	1	10	11	1	14	-	-	4	68
9	포천시	101	8	-	-	1	5	48	-	-	-	1	1	37
10	양주시	96	-	5	11	-	17	7	2	30	-	1	2	21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임
-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 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배구장, 씨름장, 체조장, 수영장 등이 없음

〈표 3-13〉 1인당 체육시설 면적

1인당 체육시설 면적	전국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2015	3.89	4.79	6.31	3.24
2016	4.05	4.76	6.56	3.19
2017	4.28	4.59	7.21	3.32
2018	4.45	4.62	7.48	3.28
2019	4.51	4.48	7.62	3.66

- 각 시·군별로 체육시설 보유실태 및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시·군의 실정에 맞게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야함
- 생활체육시설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기 위하여 시설확충을 하고자 추가공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2015년부터 전국, 경기도, 수원시 기준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서울시는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수원시는 1인당 체육시설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수원시의 여유 및 유휴 면적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운동 시설 구축이 필요
-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지표
- 문화시설을 크게 공연장 및 문예회관의 개수로 살펴보면 공연장의 경우 서울시가 전국의 1/3이 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문예회관의 경우,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더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문화시설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문화향유를 위하여 현재의 불균형한 문화시설의 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으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격차가 나타남
 - 수원시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연장의 개수 및 문예회관은 각 2개씩 증가하였음

〈표 3-14〉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지표

		전국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2016	공연장	1,024	388	151	15
	문예회관	229	19	34	1
2017	공연장	1,024	355	122	15
	문예회관	236	20	35	2
2018	공연장	1,029	359	121	16
	문예회관	251	23	42	3
2019	공연장	1,062	367	146	16
	문예회관	255	21	44	3
2020	공연장	1,101	379	161	17
	문예회관	256	21	44	3

-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
- 문화기반시설이 지표를 통해 문화기본권을 신장할 수 있으며,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을 포함함
- 문화기반시설 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모두 증가
 - 서울시는 경기도 보다 문화기반시설수가 적고,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도 적음
- 수원시의 경우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가 경기도의 전체 평균에 못 미침
 - 2021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3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수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

〈표 3-15〉 문화기반시설 수 및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전국	서울	경기	수원
2015	문화기반 시설수	2,595	356	492	33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5	3.6	3.9	2.8
2016	문화기반 시설수	2,657	365	504	35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5.1	3.7	4.0	2.9
2017	문화기반 시설수	2,749	386	526	34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5.3	3.9	4.1	3.1
2018	문화기반 시설수	2,825	399	537	39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5.5	4.1	4.1	3.2
2019	문화기반 시설수	3,017	410	567	43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5.8	4.2	4.3	3.6

- 경기도 내 문화기반시설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1위 용인시 44개, 2위 수원시 43개, 3위 파주시 40개, 4위 고양시 35개, 5위가 부천시 31개로 나타남
- 경기도 내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1위 여주시 21.6개, 2위 과천시 18.9개, 3위 가평군 16개, 4위 양평군 15.4개, 5위 연천군 13.7개로 나타남

- 경기도 내 문화기반시설수 순위와 경기도 내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순위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남
-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문화기반시설수÷주민등록인구×100,000)로 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가 적은 도시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됨

〈표 3-16〉 2019년 경기도 내 문화기반시설수 1위~5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9	지역	용인시	수원시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문화기반 시설수	44개	43개	40개	35개	31개

- 경기도 내 문화기반시설은 용인시가 44개로 가장 많으며, 수원시는 43개로 2위를 기록

〈표 3-17〉 2019년 경기도 내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1위~5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9	지역	여주시	과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21.6	18.9	16	15.4	13.7

3. 사회통합

■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중증장애, 장애영유아, 단기 공동시설 등을 포함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 체육시설, 수어통역센터, 이동지원센터, 점자도서관, 도서 및 출판시설, 수련시설, 재활치료시설, 의료재활시설을 포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을 포함
-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지역별 장애인복지시설

- 2020년의 서울시 거주시설은 2016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은 2016년에 비하여 2020년에 증가하였음
- 경기도는 2016년에 비하여 2020년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
- 수원시는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하였을 때,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센터는 동수이고 직업재활시설은 4곳 증가하였음
-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 지체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운영 중임
- 수원시 내의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청각·언어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수원시 내에 장애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이 부족 한 것으로 보임

〈표 3-18〉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현황

		전국	서울	경기	수원
2016	거주시설	1,484	290	310	15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1,248	197	205	14
	직업재활시설	560	120	93	11
2017	거주시설	1,505	284	311	15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1,303	200	216	15
	직업재활시설	582	124	98	12
2018	거주시설	1,527	276	313	17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1,373	208	233	15
	직업재활시설	651	132	115	15
2019	거주시설	1,557	281	318	16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1,486	221	266	20
	직업재활시설	683	133	130	16
2020	거주시설	1,539	265	316	15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1,519	221	264	14
	직업재활시설	720	138	145	15

4. 생활환경과 오염

- 주요도시 대기오염도 - 아황산가스(SO_2)
 - 아황산가스는 대기오염물질로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함
 - 공장 및 산업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고농도로 검출되며, 공기 중으로 배출된 아황산가스는 산성비의 원인으로 작용
 -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켜 다양한 형태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침
 - 아황산가스는 국가평균 및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의 수치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감소함
 - 서울시의 경우에는 수치가 감소하고 있으나, 2020년 현재 국가평균과 비슷한 수준이고 경기도와 수원시는 국가평균보다는 수치가 낮음

〈표 3-19〉 2016~2020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아황산가스 대기오염도

측정망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가평균	0.005	0.004	0.004	0.004	0.003
서울시	0.006	0.006	0.005	0.004	0.003
경기도	0.006	0.004	0.004	0.004	0.002
수원시	0.006	0.005	0.004	0.004	0.002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내 아황산가스 배출 순위를 보면 평택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간 환경기준이 0.02이므로 수원시의 아황산가스 수치는 연간 환경기준과 같음
- 아황산가스 등급기준에 따르면 0~0.02는 좋음, 0.021~0.05는 보통, 0.051~0.15는 나쁨, 0.151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분류
 - 수원시의 경우 좋음에 속하므로 아황산가스 수치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20〉 2016~2020년 경기도 내 아황산가스 배출 순위 5위

측정망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택시	0.006	0.005	0.004	0.004	0.005
군포시	0.005	0.006	0.004	0.004	0.005
부천시	0.006	0.005	0.005	0.005	0.005
화성시	0.006	0.005	0.003	0.005	0.005
동두천시	0.005	0.007	0.005	0.006	0.005
수원시	0.006	0.005	0.004	0.004	0.002

■ 주요도시 대기오염도 - 이산화질소(NO_2)

- 이산화질소는 자동차와 발전소와 같은 고온 연소과정 과정이나 화학물질의 제조 과정에서 연소나 산화로 생성됨
 - 고농도에 노출되거나 저농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만성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의 이산화질소 대기오염도는 국가평균보다 높음
 - 연간 환경기준이 0.03인데, 수원시의 이산화질소 대기오염도는 이를 초과함
- 이산화질소 등급기준에 따르면 0~0.03은 좋음, 0.031~0.06은 보통, 0.061~0.15는 나쁨, 0.151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분류함
 - 수원시의 경우 2020년 기준 보통으로 분류되어 이산화질소 대기오염도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21〉 2016~2020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이산화질소 대기오염도

측정망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가평균	0.028	0.026	0.025	0.024	0.022
서울시	0.036	0.034	0.035	0.035	0.032
경기도	0.033	0.032	0.032	0.031	0.028
수원시	0.041	0.037	0.040	0.038	0.036

- 수원시는 2020년 기준 이산화질소 배출 순위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인근 시·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차량운행량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 동월 농도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이산화질소 배출순위가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높으며 서울시보다도 높게 측정되고 있음

〈표 3-22〉 2016~2020년 경기도 내 이산화질소 배출 순위 5위

측정망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원시	0.041	0.037	0.040	0.038	0.036
안양시	0.030	0.039	0.041	0.038	0.034
성남시	0.041	0.038	0.039	0.036	0.033
의왕시	0.040	0.040	0.038	0.037	0.033
군포시	0.039	0.034	0.038	0.036	0.033

- 주요도시 대기오염도-미세먼지(PM-10)
 - 직경이 10 μ m이하인 먼지이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폐 깊숙이 침투하여 각종호흡기질환을 유발함
 - 크기가 미세하여 한번 몸에 침투하면 빠져나가지 않는 특징이 있음
 - 수원시는 '2021~2025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수원시 8개 지점을 통해 대기오염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수원시 자체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2019년부터 수원시는 '계절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연말(12월)부터 연초(3월)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때 보다 높은 시기임을 인지하고 있음
 - 관리를 강화하여 부문별로 노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임
 - 국가평균,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점차 미세먼지 수치가 개선되고 있음
 - 서울시보다 경기도, 수원시의 개선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수원시는 경기도의 평균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보임
 - 미세먼지의 등급의 경우 0~30까지는 좋음이며 31~80까지는 보통, 81~150은 나쁨, 151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분류함
 - 수원시의 경우 보통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3〉 2016~2020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미세먼지(PM10) 대기오염도

측정방법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가평균	48	47	45	39	38
서울시	48	50	43	42	42
경기도	56	54	50	47	46
수원시	55	44	44	43	44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내 미세먼지 배출순위를 살펴보면 포천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서 2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접도시인 화성시와 같은 순위임

〈표 3-24〉 2016~2020년 경기도 내 미세먼지(PM10) 배출 순위 5위

측정망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포천시	62	62	55	56	55
여주시	63	55	54	49	54
광주시	61	67	53	57	52
안성시	59	59	51	48	51
김포시	71	69	51	48	50
수원시	55	44	44	43	44

■ 주요도시 대기오염도-미세먼지(PM-2.5)

- 직경이 2.5 μ m이하인 먼지이며 초미세먼지라고 함
 - 산업시설, 자동차, 난방 및 에너지 사용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배출되기도 함
- 초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은 수송 분야로 자동차와 건설장비 등에 의한 배출량이 많음

〈표 3-25〉 2016~2020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미세먼지(PM2.5) 대기오염도

측정망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가평균	30	30	25	26	18
서울시	30	32	24	28	19
경기도	34	35	28	31	19
수원시	29	30	25	29	18

- 국가평균,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는 2016년에 비하면 2020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 된 것으로 보임
 - 서울시와 경기도는 2020년 기준 국가평균보다 수치가 높으나 수원시는 국가평균보다 낮음
- 수원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2019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에 따른 효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저하된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및 소비활동의 감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초미세먼지의 등급기준에 따르면 0~15는 좋음, 16~35는 보통, 36~75는 나쁨, 76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분류함

- 수원시는 보통의 기준으로 분류되므로 초미세먼지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 배출 순위 상위 5개시를 살펴보면, 부천시(가장 높았으며 평택시(2위), 군포시(3위), 시흥시(4위), 안양시(5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의 요인으로는 무풍비율 및 평균풍속의 증가로 인한 대기정체의 감소, 강수일수 증가 등의 복합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수원시는 미세먼지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초미세먼지관리사’를 2020년부터 지자체 중 최초로 미세먼지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음
- 초미세먼지관리사는 실내동기 측정, 미세먼지 대응 요령교육, 환기시설 등 시설별 관리 요령 교육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수료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파견되어 방문 교육도 진행함
- 수원시의 대기오염 노출에 대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생활환경 속에서 농치기 쉽지만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타 지자체들과는 다름

〈표 3-26〉 2016~2020년 경기도 내 미세먼지(PM10) 배출 순위 5위

측정망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부천시	26	36	31	34	29
평택시	-	33	31	29	22
군포시	-	32	24	28	22
시흥시	-	35	30	35	22
안양시	31	39	27	33	21
수원시	29	30	25	29	18

5. 사회복지

-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는 공통적으로 0~5세의 유아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보육시설의 수 또한 점차 감소하였으나,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출생아수의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수의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

- 다만,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의 감소 속도는 출생아수의 감소 속도보다 빠르며, 이는 유아 보육에 대한 격차로 이어지므로 개선이 필요함
- 서울시는 전국 평균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전국 평균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전국 평균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7〉 2016~2020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전국	서울	경기	수원
2016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15.3	14	16.6	16.9
	보육시설	41,084	6,368	12,120	1,187
	주민등록인구 (0~5세)	2,680,088	453,439	729,339	70,161
2017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15.7	14.5	16.7	17.1
	보육시설	40,238	6,226	11,825	1,153
	주민등록인구 (0~5세)	2,568,516	429,218	706,088	67,584
2018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16.2	15.2	17.2	18.2
	보육시설	39,171	6,008	11,682	1,135
	주민등록인구 (0~5세)	2,415,349	394,198	677,880	62,451
2019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16.4	15.4	17.4	18.4
	보육시설	37,371	5,698	11,305	1,062
	주민등록인구 (0~5세)	2,285,605	369,938	651,271	57,817
2020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16.7	15.8	17.5	18.8
	보육시설	35,352	5,370	10,761	982
	주민등록인구 (0~5세)	2,121,390	339,289	615,708	52,228

- 수원시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동의 권리, 행복추구권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음
- 2016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를 2016년부터 2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음

-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원시는 2017년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인증 받아 4년간 유지하였음
 - 정책 효과로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및 유아 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
- 보육시설 수
-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육통계를 살펴보면 수원시의 보육시설 수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에 경우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출생아수를 비교해보면 남양주시를 제외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는 인구의 규모 및 출생아수가 비슷함
 - 수원시의 경우 인구수 및 출생아수 규모가 비슷한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와 비교했을 때, 보육시설의 개수는 가장 많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수는 화성시 및 고양시보다 적음
 - 사회복지법인 관련 어린이집의 개수는 용인시와 같지만 화성시보다는 적음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의 수도 용인시보다 적음
 -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수원시의 경우 보육주체와 가족이 다양한 보육시설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표 3-28〉 2020년 기준 경기도내 보육시설 종류 및 개수

행정구역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어린이 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 이집	가정어린 이집	협동어린 이집	직장어린 이집
소계	10,761	1,066	64	112	3,431	5,717	67	284
수원시	982	57	4	7	309	574	4	27
화성시	866	98	8	5	241	504	0	10
용인시	860	47	4	13	295	468	7	26
고양시	717	82	2	2	190	406	8	27
남양주시	620	74	4	10	207	321	2	2

-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기도 내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순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동두천시(1위), 안성시(2위), 의정부시(3위) 등이며, 수원시는 11위를 차지

- 수원시의 보육시설 수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를 구하는 방법에 유아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원시의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가 낮게 나타남

〈표 3-29〉 경기도 내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순위 10위

순위	행정구역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동두천시	25.2	26.4	27.2	27.0	26.6
2	안성시	21.7	22.4	22.4	22.8	22.9
3	의정부시	22.6	21.7	22.4	22.0	21.7
4	양주시	22.8	22.2	22.8	22.2	21.1
5	포천시	19.4	19.7	19.9	20.7	20.6
6	군포시	16.4	18.0	20.2	20.6	20.3
7	광명시	18.1	19.1	20.1	19.8	20.1
8	오산시	15.8	16.7	17.8	19.0	20.0
9	안양시	17.3	17.8	18.4	18.6	19.7
10	안산시	18.4	18.5	19.2	19.5	19.4
11	수원시	16.9	17.1	18.2	18.4	18.8
경기도		16.6	16.7	17.2	17.4	17.5

■ EQ-5D

- EQ-5D는 삶의 질 중에서도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며,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고령화 사회의 진전속도가 빠르며 이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할 수 있음
-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삶의 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조율(점)은 해당 연도 및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표준화율(점)은 연도 및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라 표준인구로 보정한 결과를 말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율(점)을 기준으로 비교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삶의 질 지수(EQ-5D)를 살펴보면 2018년까지는 삶의 질 지수가 상승하였으나 2019년에는 감소하였음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삶의 질 지수(EQ-5D)를 살펴보면 2015년과 2016년은 삶의 질 지수가 같으며, 2018년까지는 삶의 질 지수가 상승하였으나 2019년에는 삶의 질 지수가 감소하였음
- 수원시의 삶의 질 지수는 가장 최근 조사인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0〉 2015~2019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삶의 질 지수(EQ-5D)

연도	항목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2015	응답자수(명)	23,000	41,171	3,654
	조율(점)	0.948	0.951	0.957
	표준화율(점)	0.953	0.954	0.956
2016	응답자수(명)	22,944	41,018	3,650
	조율(점)	0.951	0.950	0.954
	표준화율(점)	0.956	0.954	0.955
2017	응답자수(명)	22,948	40,988	3,651
	조율(점)	0.950	0.952	0.956
	표준화율(점)	0.957	0.957	0.957
2018	응답자수(명)	22,901	40,955	3,643
	조율(점)	0.954	0.954	0.965
	표준화율(점)	0.962	0.960	0.966
2019	응답자수(명)	22,921	41,855	3,647
	조율(점)	0.944	0.950	0.958
	표준화율(점)	0.953	0.956	0.960

-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원시 내 삶의 질 지수를 비교해보면 장안구는 2015년보다 2016년의 삶의 질 지수가 감소했음
 - 2018년까지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9년에 다시 삶의 질 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다만, 2019년의 수치는 수원시 전체 평균 삶의 질 지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선구는 같은 기간 삶의 질 지수가 증가, 2017년까지는 소폭 감소, 2018년에 다시 상승, 2019년에는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음
 - 2019년을 기준으로 권선구는 수원시 전체 평균 삶의 질 지수보다 낮은 것으로 측정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팔달구의 삶의 질 지수의 경우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삶의 질 지수가 감소하였으나, 2019년까지는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팔달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삶의 질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2019년을 기준으로 수원시 전체 평균 삶의 질 지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내 4개 구의 삶의 질 지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가장 낮음
- 영통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삶의 질 지수가 감소하였고 2017년까지는 삶의 질 지수에 변함이 없음
- 2018년에는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9년에 삶의 질 지수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영통구의 경우 삶의 질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9년을 기준으로 수원시 전체 평균 삶의 질 지수보다 높으며, 수원시 내 4개구의 삶의 질 지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높음

〈표 3-31〉 2015~2019년 수원시 내 삶의 질 지수(EQ-5D)

연도	항목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2015년	응답자수(명)	3,654	913	914	912	915
	조율(점)	0.957	0.962	0.954	0.937	0.969
	표준화율(점)	0.956	0.962	0.953	0.942	0.964
2016년	응답자수(명)	3,650	913	915	910	912
	조율(점)	0.954	0.955	0.961	0.930	0.962
	표준화율(점)	0.955	0.958	0.961	0.938	0.957
2017년	응답자수(명)	3,651	911	920	910	910
	조율(점)	0.956	0.960	0.958	0.939	0.961
	표준화율(점)	0.957	0.963	0.959	0.948	0.957
2018년	응답자수(명)	3,643	912	910	909	912
	조율(점)	0.965	0.961	0.967	0.953	0.972
	표준화율(점)	0.966	0.966	0.968	0.963	0.969
2019년	응답자수(명)	3,647	909	913	911	914
	조율(점)	0.958	0.957	0.958	0.942	0.967
	표준화율(점)	0.960	0.962	0.959	0.950	0.966

-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기도 내 삶의 질 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1위는 가평군, 2위는 광명시, 3위는 과천시로 나타났고 수원시는 9위를 기록

-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 단위의 삶의 질 지수의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대전광역시, 2위는 세종시, 3위는 전라남도였으며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10위를 차지하였음
-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는 경기도 전체 평균 삶의 질 지수보다는 높았으나 2018년보다 2019년에 삶의 질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
- 2018년에 경우 과천시, 용인시, 연천군과 지수가 같았으며 경기도 내에서 공동 5위를 차지
- 삶의 질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을 파악하여, 수원시민 삶의 질 지수가 상승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표 3-32〉 표준화율(점)으로 나타낸 2015~2019년 경기도 내 삶의 질 지수(EQ-5D) 순위

순위	행정구역별	삶의 질 지수(EQ-5D)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	가평군	0.955	0.964	0.971	0.970	0.972
2	광명시	0.957	0.959	0.963	0.965	0.972
3	과천시	0.955	0.959	0.963	0.966	0.971
4	광주시	0.940	0.948	0.966	0.970	0.968
5	연천군	0.946	0.962	0.971	0.966	0.967
6	구리시	0.969	0.961	0.956	0.964	0.963
7	용인시	0.959	0.964	0.964	0.966	0.962
8	의왕시	0.961	0.948	0.954	0.963	0.962
9	수원시	0.956	0.955	0.957	0.966	0.960
10	고양시	0.954	0.959	0.955	0.961	0.959

-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한 나라의 의료보건체계 및 서비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
 - 의료서비스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국내·외 의료격차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틀이라고 판단
 -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를 조사함
 - 이전까지는 인구 1만 명당 의사수를 조사하였으나, 의료체계의 보급과 발달로 최근에는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를 조사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수치 상으로는 시군구의 비교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를 지표로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OECD회원국 중 가 최하위권임
- 회원국 중 멕시코가 2.44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2.46명에 불과하여 2019년 당시 조사한 25개국 중 24위를 기록

■ 지역별 편차

-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국,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의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의사 수의 증가에 따라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서울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시·도 중 의사 수가 가장 많으며,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도 가장 많음
 -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서울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2020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과 함께 공동 13위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의사 수가 증가했고 인구 1만 명당 의사수도 증가하고 있음
- 전국 평균 기준과 비교했을 때 5개년도의 조사에서 경기도가 모두 낮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1만 명당 의사수인 25명(2020년 기준)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원시는 의사 수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증가, 전국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조사연도 5개년 모두 수원시가 높았음
 - 서울시와 비교하였을 때는 수원시의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낮지만 경기도와 비교하였을 때는 높은 수준을 보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기도 내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를 비교해보면, 성남시(1위), 구리시(2위), 수원시(3위) 등의 순위로 나타나 변동이 없음
 - 2020년 기준으로 성남시가 경기도 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수원시, 3위는 고양시로 나타남
- 인구 1만 명당 의사수가 많은 것은 의료체계 및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는 의미임
 -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고루 분포된 진료과목이 갖추어진 병원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함

-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가격이 비탄력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병원의 수, 의사의 수, 진료과목의 다양성이 일정 수준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현재 2년 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이 잘 대처했던 것에는 병원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병원접근성이 의사 수와 비례하여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한국에 경우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인력들이 많고 병상 수가 많다는 점이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한국의 의사 수에는 한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하면 의사 수가 조금 더 높게 측정됨

〈표 3-33〉 2016~2020년 전국,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연도	문항	전국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2016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27	40	22	28
	의사 수	141,600	39,640	27,728	3,331
	주민등록인구	51,696,216	9,930,616	12,716,780	1,194,041
2017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28	42	23	29
	의사 수	145,930	40,597	29,038	3,498
	주민등록인구	51,778,544	9,857,426	12,873,895	1,202,628
2018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29	42	23	30
	의사 수	149,022	41,369	30,130	3,561
	주민등록인구	21,826,059	9,765,623	13,077,153	1,201,166
2019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30	44	24	31
	의사 수	153,744	42,685	31,510	3,709
	주민등록인구	51,849,861	9,729,107	13,239,666	1,194,465
2020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30	45	24	32
	의사 수	156,992	43,581	32,830	3,835
	주민등록인구	51,829,023	9,668,465	13,427,014	1,186,078

〈표 3-34〉 경기도 내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순위

순위	행정구역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성남시	39	41	42	44	45
2	구리시	33	35	35	35	37
3	수원시	28	29	30	31	32
4	안양시	28	29	30	29	31
5	고양시	27	28	30	31	32
6	부천시	27	28	29	30	30
7	의정부시	25	26	27	27	28
8	안산시	23	24	25	27	26
9	광명시	20	21	21	23	24
10	군포시	20	21	21	23	23

-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원시 내 4개구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를 비교해 보면 모든 구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수원시 내 4개구의 2020년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2015년부터 5개년을 조사
- 장안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증가하거나 동수로 나타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원시 평균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안구의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뜻함
- 권선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증가 혹은 동수였음
 - 장안구와 마찬가지로 5개년도 모두 수원시 평균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보다 낮음
 - 수원시 4개구 가운데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가장 적었으며, 이는 수원시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권선구 주민들이 가장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뜻함
- 팔달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2015년과 2016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원시 평균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보다 많았으며, 5개년도 모두 수원시 4개구 가운데 팔달구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았음
 - 팔달구는 장안구 및 권선구의 주민등록 인구수보다 1/2배가량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는 2배가량 많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임
 - 수원시 관내에서 팔달구의 의료서비스가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영통구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음
-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팔달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 2019년 기준, 영통구는 팔달구보다 주민등록인구가 1.5배 많았으나 의사 수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팔달구보다 낮게 나타남

〈표 3-35〉 2015~2019년 수원시 내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연도	문항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2015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27	16	13	55	36
	의사 수	3,245	480	457	1,097	1,211
	주민등록인구	1,184,624	299,016	351,053	199,180	335,375
2016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28	16	13	55	36
	의사 수	3,331	480	495	1,106	1,250
	주민등록인구	1,194,041	296,479	358,393	198,515	340,654
2017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29	17	14	59	37
	의사 수	3,498	514	530	1,150	1,300
	주민등록인구	1,202,628	293,828	365,653	193,311	349,836
2018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30	17	14	65	37
	의사 수	3,561	511	534	1,184	1,332
	주민등록인구	1,201,166	286,433	377,647	180,974	356,112
2019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31	19	15	69	37
	의사 수	3,709	544	566	1,217	1,382
	주민등록인구	1,186,078	278,377	371,754	175,866	368,468

■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기관 수

-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을 비형식평생교육기관으로 한정함
- 평생교육기관은 ‘비형식’과 ‘준형식’으로 나누는데,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을 포함할 경우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넓은 의미로 초·중·고 및 대학과정까지 포함하는 문제 발생
-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 부설, 대학(원)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을 포함
- 평생교육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배움에 대한 보완 및 습득을 위한 곳으로 인문 교양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 참여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등이 존재함

- 이에 대한 반증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6년에 비해 2020년에는 기관수가 약300곳 정도 증가하였고, 프로그램 수는 약 40,000여개, 학습자수는 약 11,000,000명 정도 증가하였음
-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서울시가 평생교육기관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수 및 학습자수도 가장 많음
- 경기도는 2016년에 비해 2020년에는 평생교육기관수가 약 200곳 정도 증가하였고, 프로그램 수는 약10,000여개 가량 증가하였으며, 학습자수는 1,300,000명 정도 증가하였음
- 서울시와 비교하였을 때, 2020년 기준 경기도의 평생교육기관의 수는 서울시의 절반 수준이며, 프로그램 수도 3배가량 적고, 학습자 수도 1.5배 정도 적음
- 이는 서울시에 비해 생활전반에서 쉽게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보여줌
- 2020년 수원시 평생교육기관의 수는 2015년에 비해 약 30곳, 프로그램 수는 약 2,000개, 학습자 수는 7,000명 정도 감소하였음
- 평생교육기관의 수 및 프로그램 수는 증가하였으나, 학습자 수의 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경기도, 서울시, 수원시의 10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를 비교하면, 전국 평균보다 경기도는 5개년도 모두 적음
- 수원시에 경우에는 2019년부터는 전국의 평균 평생교육기관 수보다 많아짐
- 서울시에 경우 5개년도 모두 전국의 평균 평생교육기관의 수보다 2배가량 많았음

〈표 3-36〉 2016~2020년 전국, 경기도, 서울시, 수원시 단위인구(10만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행정구역별	평생교육기관 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	8	7.7	8	8.2	8.7
서울시	15.7	15.7	16.7	17.9	19.1
경기도	6.1	5.7	6.1	6.6	7.2
수원시	6.6	6.2	7.7	8.6	9.6

〈표 3-37〉 2016~2020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평생교육기관 수

연도	문항	전국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2016년	기관수	4,153	1,565	785	79
	프로그램수	212,339	96,082	36,999	2,995
	학습자수	11,336,564	7,580,578	1,352,502	151,781
	교강사수	73,204	26,559	13,356	1,556
	사무직원수	19,842	10,040	3,156	303
2017년	기관수	4,032	1,549	734	75
	프로그램수	214,413	98,661	34,212	2,913
	학습자수	11,897,236	7,905,563	1,499,963	143,316
	교강사수	71,723	26,086	12,202	1,433
	사무직원수	19,778	9,376	3,711	421
2018년	기관수	4,169	1,640	808	93
	프로그램수	216,980	99,720	32,355	3,320
	학습자수	16,344,658	11,840,275	1,861,760	198,490
	교강사수	72,783	26,595	13,012	1,618
	사무직원수	20,228	10,018	3,321	457
2019년	기관수	4,295	1,744	878	103
	프로그램수	244,421	120,015	38,122	2,830
	학습자수	16,348,842	10,834,610	2,522,806	200,330
	교강사수	75,492	27,380	13,569	1,790
	사무직원수	19,772	9,242	3,628	464
2020년	기관수	4,541	1,856	971	115
	프로그램수	281,420	140,677	47,734	5,275
	학습자수	24,397,282	18,791,062	2,658,852	144,469
	교강사수	73,829	28,632	13,750	1,720
	사무직원수	20,688	9,838	3,852	481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내 평생교육기관수를 살펴보면, 수원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고양시, 3위는 성남시가 차지하였음
- 수원시의 평생교육기관은 경기도 내의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고양시, 용인시 등과 비교해보아도 월등히 많은 수를 보유

〈표 3-38〉 2016년~2020년 경기도 내 평생교육기관 수 순위

순위	행정구역별	평생교육기관 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수원시	79	75	93	103	115
2	고양시	71	68	77	81	89
3	성남시	69	67	71	81	89
4	부천시	62	57	68	71	83
5	용인시	74	63	64	65	73
6	안산시	55	50	55	61	68
7	안양시	39	38	44	51	57
8	의정부시	35	35	34	41	41
9	화성시	32	28	28	30	37
10	광명시	23	19	20	27	33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내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기관의 수를 살펴봄
 - 2020년 기준, 10만 명당 평생교육기관수는 안산시와 안양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의 인구규모가 매우 큼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수와 다양성도 증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표 3-39〉 2016~2020년 경기도 내 평생교육기관 순위별 단위인구(10만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행정구역별	평생교육기관 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원시	6.6	6.2	7.7	8.6	9.6
고양시	6.8	6.5	7.3	7.7	8.2
성남시	7	6.9	7.4	8.5	9.4
부천시	7.2	6.7	8	8.5	10
용인시	7.4	6.2	6.1	6.1	6.7
안산시	7.9	7.3	8.3	9.3	10.3
안양시	6.5	6.4	7.6	8.9	10.3
의정부시	7.9	7.9	7.6	7.5	8.8
화성시	4.9	4	3.6	3.6	4.3
광명시	6.7	5.7	6.1	8.5	11

■ 교원 1인당 학생 수

-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적을수록 학습격차가 작아지므로, 학생중심 수업을 위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지표 활용에 있어 중요 지표임
 -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려는 노력은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권 및 예방차원에서 중요함
 -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은 학습 결손이나 학력에 대한 격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 사안으로 판단
-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뿐 만 아니라 생활 전반과 행정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 일정부분 해결이 가능함
- 통계청이 교원 수를 산출할 때, 교장, 교감, 시간제교사, 전문상담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사서 등을 포함하여 산출함
- OECD 기준을 충족하는 필수 교원 수에 교장, 교감 및 비교과 교사 등을 포함시켜 교원 수의 증가 폭이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음
 - 실제 OECD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 산출할 때 비교과는 교사는 제외함
 - 통계청의 교원 수 산출방식은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왜곡 오류 발생 의혹 제기
- 출생률 감소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재적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교육부가 '교육회복 종합 방안' 발표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하였으나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화된 수치보다는 장기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
-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전국,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모두 재적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재적학생 수, 교원 수 모두 감소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경기도는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재적 학생 수 모두 감소하였음
 - 하지만 교원 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와 비교해 봤을 때, 2019년까지는 경기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더 높았으나 2020년에는 서울시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가 교원 수를 늘렸는데 재학생 수가 줄어들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음
- 수원시의 경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재적 학생 수 모두 감소하였음
- 교원 수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 재적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함
- 교육격차 분석의 대표적 지표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이용되고 있음
- 하지만 재적학생 수의 감소와 변화하는 학교 현장에 맞춰 ‘학급 당 학생 수’와 같은 지표를 공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 적정 학급 규모와 교원 수 및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

〈표 3-40〉 2016~2020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교원 1인당 학생 수

연도	문항	전국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2016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16.8	16.94	17.47	16.82
	재적학생 수	9,418,097	1,629,305	2,206,654	215,506
	교원 수	560,696	96,185	126,340	12,811
2017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16.33	16.58	16.96	16.46
	재적학생 수	9,189,413	1,587,612	2,170,261	210,232
	교원 수	562,865	95,770	127,978	12,774
2018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15.86	16.21	16.57	16.06
	재적학생 수	8,981,562	1,546,841	2,137,485	205,724
	교원 수	566,345	95,398	129,011	12,813
2019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15.51	16.03	16.15	15.61
	재적학생 수	8,763,576	1,507,375	2,101,116	199,608
	교원 수	565,034	94,010	130,119	12,786
2020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15.17	15.84	15.81	15.23
	재적학생 수	8,593,199	1,479,479	2,077,809	194,843
	교원 수	566,340	93,406	131,435	12,797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연천군’이 1위로 나타남
- 2위(가평군), 3위(양평군) 역시 군단위로 나타나서 실제 통계라기보다는 산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함

-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구할 때 재적학생 수가 영향을 미치므로 재적학생 수가 적은 도시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으로 수원시는 재적학생 수가 비슷한 용인시와 비교하였을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의 2020년 기준 재적학생 수는 약 19만 명으로 집계
- 재적학생 수가 15만 명 이상인 도시는 화성시(약 16만 명)와 용인시(약 19만 명)가 있음
- 수원시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적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표 3-41〉 경기도 내 교원 1인당 학생 수 순위

순위	행정구역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연천군	10.03	9.44	9.19	8.34	7.82
2	가평군	11.32	10.94	10.56	10.13	9.79
3	양평군	12.74	12.25	11.76	11.25	10.69
4	과천시	14.57	13.66	13.14	12.62	12.57
5	광명시	14.80	14.27	13.83	13.25	13.03
6	동두천시	15.61	15.05	14.53	13.53	13.38
7	구리시	15.34	14.75	14.28	13.58	13.46
8	군포시	15.84	15.17	14.47	14.04	13.58
9	고양시	15.84	15.28	14.74	14.17	13.95
10	하남시	14.05	14.32	14.25	14.17	14.19
16	수원시	16.82	16.46	16.06	15.61	15.23
26	용인시	19.02	18.56	18.16	17.63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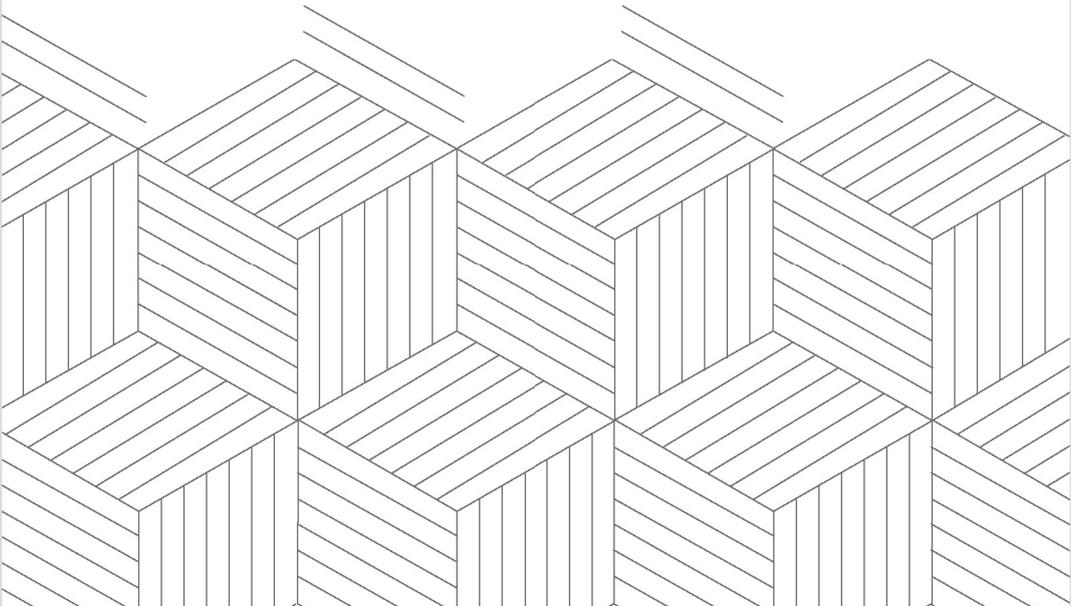
제5절 최종지표 도출

〈표 3-42〉 최종지표 도출

지표	추출 가능 여부			수원시 관내
	국가평균	광역단위	수원시	
성장	소득	지니계수	가계금융·복지조사	직접산출
일반기구의 주택소유율	통계청 행정통계과(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지표	문화체육관광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인구 심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문화체육관광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현황	보건복지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주요도시대기오염도	환경부「대기환경연보」(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보건복지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EQ-5D	보건복지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기관 수	교육부(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교원 1인당 학생 수	한국교육개발원(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x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국민건강보험공단(매년)	경기도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단위까지 표시	수원시 관내단위까지 표시

제4장 격차관리 시민인식 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제1장 격차관리 시민인식 조사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 격차 관련 조사
 - 『수원시 격차관리 지표발굴』에서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각 지표주제별로 시민들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점검·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획연구에 활용하고자 함
- 시민 대상 조사
 - 수원시의 격차(일상생활, 경제활동, 경제·정치·사회적 지역권, 주거기반, 상수도, 도로교통, 정보통신 이용관련, 교육, 문화, 사회복지, 보건위생·건강, 환경, 소득·소비, 사회분위기, 사회적임금지표) 등을 조사하여 시민 행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 조사 설계내용

〈표 4-1〉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만 20~69세 수원시민
표본크기	584(성별X연령별 할당)
조사방법	조사방법: 대면 조사
표본오차	±4.06%(신뢰수준 95%)
자료처리	SPSS(25ver)를 이용하여 분석 Microsoft office 356프로그램의 Excel을 이용하여 코딩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의미를 범주화하는 귀납적 분석
조사기간	2021.10.22 ~ 10.29

3. 자료 처리 및 분석

- 자료 처리 프로세스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과정을 거쳐 SPSS 20.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함
- 자료 분석
 - 빈도분석
 - 응답자별 설문내용 빈도 및 분포표상의 개괄적인 특성 파악, 상대적 백분율, 응답 누적빈도(비율) 등
 - 교차분석
 - 서로 다른 항목 변수의 범주를 교차시켜 교차된 집계 분석표를 통하여 두 변수 간의 상호 독립성이나 관련성 또는 개연성의 정도를 분석

4. 조사 내용

- 구분
 - 응답자 관련사항, 건강, 교육, 경제활동권, 소득·소비지표, 문화여가, 주거기반, 생활환경, 범죄·안전, 웰빙

〈표 4-2〉 조사 내용

구분	세부 항목
응답자 관련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지위, 소득, 가족구성원, 혼인, 자녀)
건강	건강관리, 운동여부, 흡연여부, 건강검진 여부, 의료서비스 인식
교육	자녀교육환경, 자녀교육 지출 금액,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찬성여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경제활동권	노인이 느끼는 문제, 노인 근로연령, 직장 만족도, 직장 주변 만족도, 통근통학 여부
소득·소비지표	개인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소득분배정도, 생활비 지출, 부채유무
문화여가	공연 및 스포츠 관람, 평일 주말시간,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동, 코로나 이전 이후 여가활동 변화
주거기반	거주기간 및 향후 거주의향, 정주의식, 주택만족도, 소속감, 만족도, 필요 공공시설
생활환경	환경 사회적 문제, 환경서비스 여부, 수원시 환경 서비스 만족도, 환경서비스 제공방식
범죄·안전	안전의식 수준, 안전 취약 분야, 안전 도시의 필수 요소, 안전 정책 평가, 분야별 안전도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자원봉사 참여, 기부, 사회적 계층의식

5. 응답자 분포

■ 성별

- 응답자 총 584명 중 여성 278명(52.4%), 남성 278명(47.6%)이 참여

■ 거주지

- 장안구 155명(26.5%), 권선구 164명(28.1%), 팔달구 86명(14.7%), 영통구 179명(30.7%)

〈표 4-3〉 응답자 분포

구 분		N	%	구 분		N	%
전 체		584	100.0	전 체		584	100.0
성별	남성	278	47.6	직업	농/임/어업	2	0.3
	여성	306	52.4		공무원/공기업	26	4.5
연령	20대 미만	126	21.6		교사/학원강사	16	2.7
	30대	125	21.4		자영업	23	3.9
	40대	140	24.0		일반기업(회사원)	230	39.4
	50대	118	20.2	전문직	38	6.5	
	60대 이상	75	12.8	프리랜서/자유직	59	10.1	
거주지역 (구)	장안구	155	26.5	지위상태	전업주부	95	16.3
	권선구	164	28.1		학생/무직	95	16.3
	팔달구	86	14.7		자영업주	22	3.8
	영통구	179	30.7		고용주	12	2.1
					무급가족종사자	2	0.3
최종학력	중졸	4	0.7	혼인여부	상용근로자	294	50.3
	고졸	129	22.1		임시근로자	20	3.4
	전문대졸	79	13.5		일용직근로자	13	2.2
	대졸	308	52.7		무직	162	27.7
	대학원 이상	64	11.0		미혼	224	38.4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39	6.7	자녀여부	기혼	337	57.7
	100~200만원	48	8.2		별거	0	0
	200~300만원	93	15.9		이혼	16	2.7
	300~400만원	118	20.2		사별	7	1.2
	400~500만원	96	16.4		기타	0	0
	500만원이상	190	32.5		있음	316	54.1
가족 구성원	1인 가구	78	13.4	자녀 수	없음	268	45.9
	2인 가구	101	17.3		1명	99	17.0
	3인 가구	141	24.1		2명	187	32.0
	4인 가구	226	38.7		3명	27	4.6
	5인 가구 이상	38	6.5		4명	3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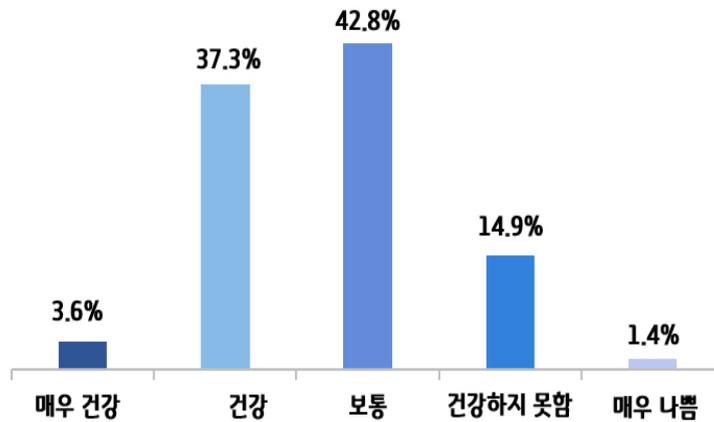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 건강

○ 건강상태

-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37.3%)', '건강하지 못함(14.9%)', '매우 건강(3.6%)', '매우 나쁨(1.4%)' 등의 순으로 응답
- '건강하다'는 비율이 '건강하지 않다'는 비율보다 21%p 높았으며,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림 4-1〉 본인의 건강상태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은 '건강하다'는 비율이 42.4%로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하지 못하다'는 비율은 여성이 17.3%로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도 '건강하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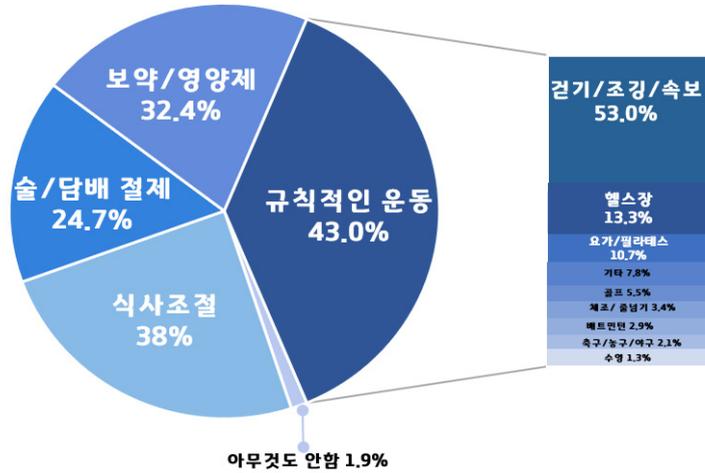
〈표 4-4〉 건강상태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건강		건강		보통		건강하지 못함		매우 나쁨	
		N	%	N	%	N	%	N	%	N	%
전체		21	3.6	218	37.3	250	42.8	87	14.9	8	1.4
성별	남성	12	4.3	118	42.4	111	39.9	34	12.2	3	1.1
	여성	9	2.9	100	32.7	139	45.4	53	17.3	5	1.6
연령	20대	5	4.0	47	37.3	51	40.5	20	15.9	3	2.4
	30대	6	4.8	51	40.8	48	38.4	19	15.2	1	0.8
	40대	4	2.9	54	38.6	57	40.7	23	16.4	2	1.4
	50대	3	2.5	37	31.4	60	50.8	17	14.4	1	0.8
	60대	3	4.0	29	38.7	34	45.3	8	10.7	1	1.3
거주 지역	장안구	6	3.9	53	34.2	74	47.7	22	14.2	0	0
	권선구	3	1.8	68	41.5	61	37.2	31	18.9	1	0.6
	팔달구	2	2.3	26	30.2	40	46.5	14	16.3	4	4.7
	영통구	10	5.6	71	39.7	75	41.9	20	11.2	3	1.7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	2.6	9	23.1	20	51.3	7	17.9	2	5.1
		0	0	14	29.2	23	47.9	10	20.8	1	2.1
	100-200만원	3	3.2	33	35.5	40	43	16	17.2	1	1.1
	200-300만원	7	5.9	41	34.7	47	39.8	23	19.5	0	0
	300-400만원	2	2.1	37	38.5	44	45.8	10	10.4	3	3.1
	400-500만원	8	4.2	84	44.2	76	40	21	11.1	1	0.5
500만원이상	11	4.9	82	36.6	90	40.2	37	16.5	4	1.8	
혼인 여부	미혼	10	3.0	127	37.7	152	45.1	44	13.1	4	1.2
	기혼	0	0	0	0	0	0	0	0	0	0
	별거	0	0	6	37.5	5	31.3	5	31.3	0	0
	이혼	0	0	3	42.9	3	42.9	1	14.3	0	0
	사별										

○ 건강관리

- 평소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규칙적인 운동’이 43%의 응답률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
- 그 다음으로 ‘식사조절’ 38%, ‘보약영양제’ 32.4%, ‘술·담배 절제’ 24.7%, ‘아무것도 안함’ 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 건강관리 방법



- ‘규칙적인 운동’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는 53.0%가 ‘걷기·조깅·속보’라고 응답
- 다른 운동으로는 ‘헬스장’ 13.3%, ‘요가·필라테스’ 10.7%, ‘기타’ 7.8%, ‘골프’ 5.5%, ‘체조·줄넘기’ 3.4%, ‘배드민턴’ 2.9%, 축구·농구·야구 2.1%, ‘수영’ 1.3% 등의 순으로 응답

〈표 4-5〉 건강관리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규칙적인 운동		식사조절		술 담배 절제		보약 영양제		아무것도 안함		기타		
	N	%	N	%	N	%	N	%	N	%	N	%	
전체	251	43	222	38	144	24.7	189	32.4	11	1.9	88	15.1	
성별	남성	141	32.5	102	23.5	73	16.8	74	17.1	42	9.7	2	0.5
	여성	110	23.4	120	25.5	71	15.1	115	24.4	9	9.8	46	11
연령	20대	53	26.9	51	25.9	32	16.2	44	22.3	2	1.0	15	7.6
	30대	51	26.3	36	18.6	38	19.6	41	21.1	2	1.0	26	13.4
	40대	51	24.6	52	25.1	40	19.3	39	18.8	3	1.4	22	10.6
	50대	54	29.2	45	24.3	25	13.5	41	22.2	3	1.6	17	9.2
	60대	42	34.4	38	31.1	9	7.4	24	19.7	1	0.8	8	6.6
거주지역	장안구	71	30.3	57	24.4	27	11.5	54	23.1	22	9.4	3	1.3
	권선구	68	26.8	59	23.2	44	17.3	52	20.5	29	11.4	2	0.8
	팔달구	35	26.1	34	25.4	23	17.2	24	17.9	14	10.4	4	3.0
	영통구	77	27.2	72	25.4	50	17.7	59	20.8	23	8.1	2	0.7
가구	100만원 미만	11	20	12	21.8	9	16.4	14	25.5	6	10.9	3	5.5
	100-200만원	18	25.7	17	24.3	19	27.1	9	12.9	6	8.6	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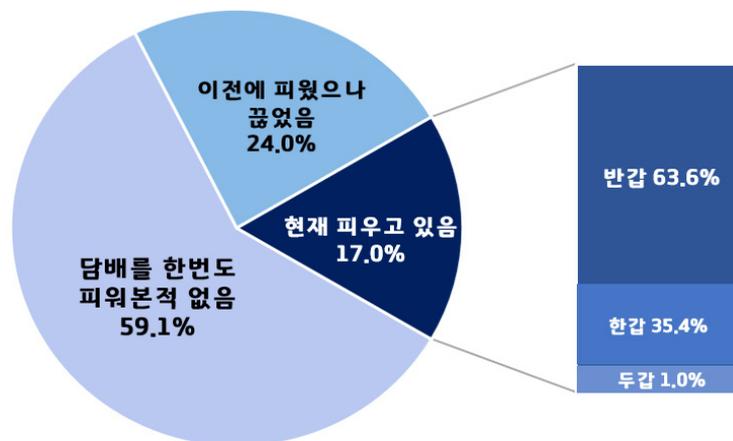
소득	200-300만원	40	29.4	36	26.5	13	9.6	29	21.3	17	12.5	1	0.7
	300-400만원	52	29.2	39	21.9	29	16.3	35	19.7	21	11.8	2	1.1
	400-500만원	44	29.1	39	25.8	21	13.9	32	21.2	14	9.3	1	0.7
	500만원이상	86	27.3	79	25.1	53	16.8	70	22.2	24	7.6	3	1.0

- 소득별로 살펴보면 300-500만원 이상 소득의 응답자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 ‘100-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보약·영양제’, ‘술·담배 절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흡연 여부

- 흡연 여부에 대한 질문에 ‘흡연을 한 번도 한적 없음’이라는 비율이 59.1% 가장 높았음
- 반면, ‘현재 피우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0%로 나타남
-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25%)을 고려하면, 여성 응답자의 비율로 인해 상쇄된 것으로 판단함

〈그림 4-3〉 흡연 정도



- 흡연을 하는 응답자(17%)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피우는 담배를 조사한 결과 ‘반 갑(10개피)’이라는 응답이 63.6%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 ‘한 갑’ 35.4%, ‘두 갑’ 1.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조사결과, ‘담배를 한 번도 피워 본적 없는’ 시민들의 비율이 현재 피우고 있거나, 금연에 성공한 응답자에 비해 18.1%p 높게 나타남

〈표 4-6〉 흡연 여부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께서는 현재 흡연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도 흡연경험 없음		이전에 피웠으나 끊었음		흡연 중	
		N	%	N	%	N	%
전체		345	59.1	140	24.0	99	17.0
성별	남성	86	30.9	106	38.1	86	30.9
	여성	259	86.6	34	11.1	13	4.2
연령	20대	89	70.6	21	16.7	16	12.7
	30대	76	60.8	24	19.2	25	20
	40대	73	52.1	37	26.4	30	21.4
	50대	70	59.3	29	24.6	19	16.1
	60대	37	49.3	29	38.7	9	12
거주 지역	장안구	80	51.6	37	23.9	38	24.5
	권선구	102	62.2	38	23.2	24	14.6
	팔달구	49	57	18	20.9	19	22.1
	영통구	114	63.7	47	26.3	18	10.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9	74.4	4	10.3	6	15.4
	100-200만원	34	70.8	9	18.8	5	10.4
	200-300만원	49	52.7	26	28	18	19.4
	300-400만원	69	58.5	27	22.9	22	18.6
	400-500만원	46	47.9	26	27.1	24	25
	500만원이상	118	62.1	48	25.3	24	12.6
혼인여부	미혼	145	64.7	39	17.4	40	17.9
	기혼	188	55.8	99	29.4	50	14.8
	별거	-	-	-	-	-	-
	이혼	7	43.8	2	12.5	7	43.8
	사별	5	71.4	0	0	2	28.6

- ‘한 번도 흡연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86.6%)이 남성(30.9%)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
- 응답자의 연령별 흡연 패턴은 20대부터 증가하다가 40대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는 ‘역U자’ 형태로 나타남
- 연령별 ‘흡연 경험’ 비율은 60대 51.7%, 20대 29.4%로, 그 차이는 22.3%p로 나타남
- 가구소득과 흡연율은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혼 상태인 응답자의 흡연비율(43.8%)이 미혼(17.9%)이나 기혼(14.8%) 상태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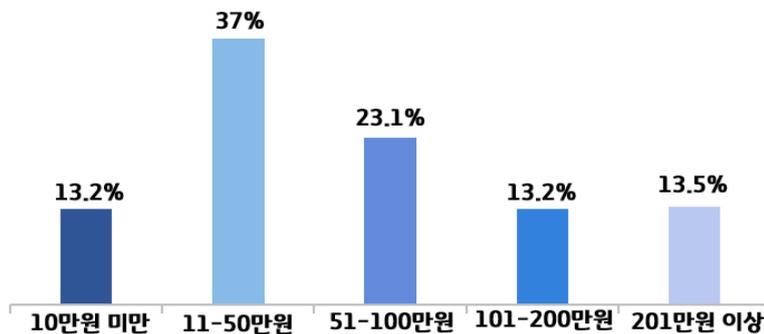
- 실손 의료보험
 - 실손 의료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말함
 - 실손 의료보험의 가입여부는 ‘가입되어 있음’(81.7%)이라는 응답이, ‘가입되어 있지 않음’(18.3%)이라는 응답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 실손 의료보험 가입 정도



- 실손 의료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말함
- 실손 의료보험의 가입여부는 ‘가입되어 있음’(81.7%)이라는 응답이, ‘가입되어 있지 않음’(18.3%)이라는 응답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의료비 지출현황



- 연간 의료비는 ‘11-50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51-100만원’ 23.1%, ‘10만원미만’ 13.2%, ‘101-200만원’ 13.2%, ‘201만원 이상’ 13.5% 등의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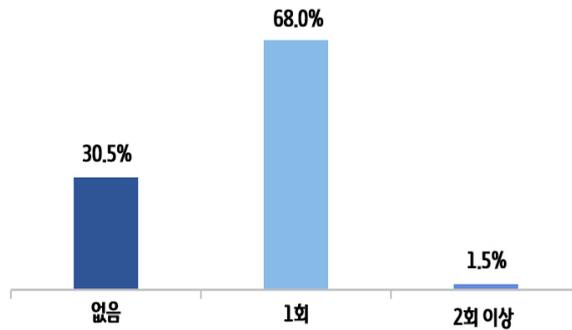
- 큰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으로 보장받아 자가 부담금을 낮추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예방 차원에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판단

〈표 4-7〉 의료비 지출 관련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 가구는 지난 1년간 의료비를 어느 정도 지출 하셨습니까?									
		10만원 미만		11-50만원		51-100만원		101-200만원		201만원이상	
		N	%	N	%	N	%	N	%	N	%
전체		77	13.2	216	37	135	23.1	77	13.2	79	13.5
성별	남성	42	15.1	97	34.9	63	22.7	42	15.1	34	12.2
	여성	35	11.4	119	38.9	72	23.5	35	11.4	45	14.7
연령	20대	21	16.7	47	37.3	28	22.2	17	13.5	13	10.3
	30대	20	16	54	43.2	25	20	13	10.4	13	10.4
	40대	13	9.3	56	40	28	20	22	15.7	21	15
	50대	15	12.7	37	31.4	30	25.4	15	12.7	21	17.8
	60대	8	10.7	22	29.3	24	32	10	13.3	11	14.7
거주 지역	장안구	29	18.7	57	36.8	36	23.2	16	10.3	17	11
	권선구	17	10.4	51	31.1	44	26.8	26	15.9	26	15.9
	팔달구	15	17.4	29	33.7	18	20.9	13	15.1	11	12.8
	영통구	16	8.9	79	44.1	37	20.7	22	12.3	25	14
가족 구성원	1인 가구	27	34.6	31	39.7	11	14.1	6	7.7	3	3.8
	2인 가구	11	10.9	43	42.6	19	18.8	11	10.9	17	16.8
	3인 가구	10	7.1	55	39	40	28.4	21	14.9	15	10.6
	4인 가구	22	9.7	76	33.6	56	24.8	33	14.6	39	17.3
	5인 가구 이상	7	18.4	11	28.9	9	23.7	6	15.8	5	13.2

- 연령별로 살펴볼 때, 20대의 37.3%, 30대의 43.2%, 40대의 40%, 50대의 31.4%가 연간 의료비로 '11-50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 60대의 32.0%는 연간 의료비로 '51-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료비를 비교적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나타남
- 건강검진
- 국가는 모든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짝수년 홀수년을 구분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함
 - 즉, 만 2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번 씩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음
 - 68.0%의 응답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에 2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는 응답자는 1.5%로 나타남
 - 1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30.5%에 이릅니다

〈그림 4-6〉 건강검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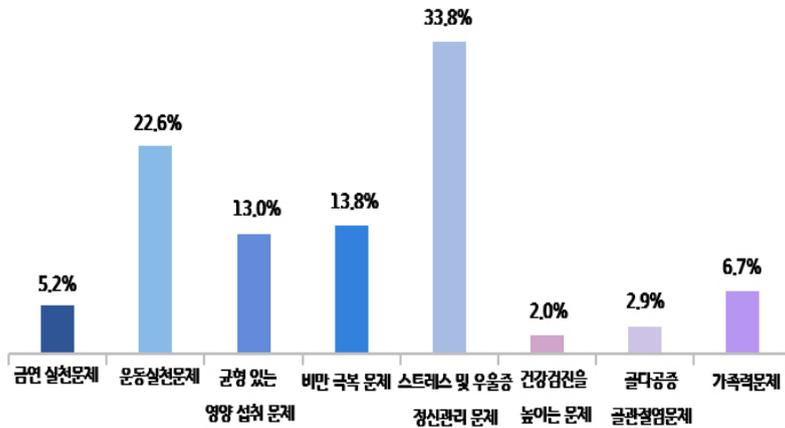
- 직장인들 중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함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30.5%의 응답자는 연령대가 낮거나 자영업자 혹은 가정주부일 가능성이 큼

〈표 4-8〉 건강검진 관련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몇 회 하셨습니다?					
		없음		1회		2회 이상	
		N	%	N	%	N	%
전체		178	30.5	397	68	9	1.5
성별	남성	76	27.3	197	70.9	5	1.8
	여성	102	33.3	200	65.4	4	1.3
연령	20대	52	41.3	74	58.7	0	0
	30대	47	37.6	78	62.4	0	0
	40대	29	20.7	109	77.9	2	1.4
	50대	30	25.4	86	72.9	2	1.7
	60대	20	26.7	50	66.7	5	6.7
거주 지역	장안구	47	30.3	106	68.4	2	1.3
	권선구	59	36	103	62.8	2	1.2
	팔달구	28	32.6	55	64	3	3.5
	영통구	44	24.6	133	74.3	2	1.1
가구 소득	100만원미만	20	51.3	19	48.7	0	0
	100~200만원	23	47.9	24	50	1	2.1
	200~300만원	23	24.7	69	74.2	1	1.1
	300~400만원	43	36.4	73	61.9	2	1.7
	400~500만원	23	24	71	74	2	2.1
	500만원이상	46	24.2	141	74.2	3	1.6
가족 구성원	1인 가구	27	34.6	51	65.4	0	0
	2인 가구	29	28.7	69	68.3	3	3
	3인 가구	39	27.7	97	68.8	5	3.5
	4인 가구	73	32.3	152	67.3	1	0.4
	5인 가구 이상	10	26.3	28	73.7	0	0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27.3%, 여성 33.3%의 응답률로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횟수가 낮음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응답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41.3%), 30대(37.6%), 60대(26.7%), 50대(25.4%), 40대(2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인 건강문제 인식
- 성인들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및 정신적 관리 문제’가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는 ‘운동실천문제’ 22.6%, ‘비만극복문제’ 13.0%, ‘가족력문제’ 6.7%, ‘금연실천문제’ 5.2%, ‘골다공증, 골관절 문제’ 2.9%, ‘건강검진을 높이는 문제’ 2.0%라고 응답함
 - 조사 결과,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정신관리’와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7〉 성인 건강문제 인식 조사



- 성인들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및 정신적 관리 문제’가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는 ‘운동실천문제’ 22.6%, ‘비만극복문제’ 13.0%, ‘가족력문제’ 6.7%, ‘금연실천문제’ 5.2%, ‘골다공증, 골관절 문제’ 2.9%, ‘건강검진을 높이는 문제’ 2.0%라고 응답함

- 조사 결과,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정신관리'와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건강 문제 관련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성인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금연실천 문제		운동실천 문제		영양섭취 문제		비만 극복 문제		정신관리 문제		건강검진 횟수문제		골관절 관리문제		가족력 문제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61	5.2	264	22.6	152	13	161	13.8	395	33.8	23	2.0	34	2.9	78	6.7	
성별	남성	40	7.2	132	23.7	56	10.1	86	15.5	173	31.1	15	2.7	11	2.0	43	7.7
	여성	37	6.9	106	19.8	85	15.9	74	13.8	186	34.7	9	1.7	7	1.3	32	6.0
연령	20대	16	6.3	45	17.9	46	18.3	30	11.9	88	34.9	6	2.4	5	2.0	16	6.3
	30대	17	6.8	59	23.6	37	14.8	37	14.8	82	32.8	3	1.2	2	0.8	13	5.2
	40대	8	2.9	69	24.6	27	9.6	45	16.1	102	36.4	5	1.8	6	2.1	18	6.4
	50대	14	5.9	57	24.2	20	8.5	33	14	81	34.3	5	2.1	9	3.8	17	7.2
	60대	6	4.0	34	22.7	22	14.7	16	10.7	42	28	4	2.7	12	8	14	9.3
거주 지역	장안구	22	7.1	66	21.3	44	14.2	45	14.5	97	31.3	8	2.6	9	2.9	19	6.1
	권선구	16	4.9	76	23.2	45	13.7	42	12.8	112	34.1	8	2.4	13	4	16	4.9
	팔달구	10	5.8	33	19.2	21	12.2	30	17.4	60	34.9	2	1.2	3	1.7	13	7.6
	영통구	13	3.6	89	24.9	42	11.7	44	12.3	126	35.2	5	1.4	9	2.5	30	8.4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	6.4	12	15.4	14	17.9	8	10.3	31	39.7	1	1.3	1	1.3	6	7.7
	100-200만원	6	6.3	13	13.5	16	16.7	15	15.6	34	35.4	4	4.2	1	1.0	7	7.3
	200-300만원	10	5.4	41	22	24	12.9	19	10.2	67	36	6	3.2	5	2.7	14	7.5
	300-400만원	14	5.9	53	22.5	30	12.7	31	13.1	80	33.9	3	1.3	9	3.8	16	6.8
	400-500만원	11	5.7	39	20.3	23	12	34	17.7	63	32.8	5	2.6	6	3.1	11	5.7
	500만원이상	15	3.9	106	27.9	45	11.8	54	14.2	120	31.6	4	1.1	12	3.2	24	6.3
직업	농/임/어업	0	0	1	25	0	0	0	0	0	0	1	25	1	25	1	25
	공무원/공기업	5	9.6	14	26.9	6	11.5	6	11.5	16	30.8	0	0	2	3.8	3	5.8
	교사/학원강사	1	3.1	10	31.3	0	0	4	12.5	13	40.6	0	0	1	3.1	3	9.4
	자영업	2	4.3	7	15.2	7	15.2	6	13	17	37	1	2.2	1	2.2	5	10.9
	일반기업	27	5.9	111	24.1	47	10.2	69	15	156	33.9	12	2.6	8	1.7	30	6.5
	전문직	4	5.3	18	23.7	12	15.8	11	14.5	24	31.6	0	0	2	2.6	5	6.6
	프리랜서/자유직	7	5.9	26	22	17	14.4	14	11.9	40	33.9	0	0	5	4.2	9	7.6
	전업주부	7	3.7	40	21.1	27	14.2	29	15.3	63	33.2	4	2.1	10	5.3	10	5.3
	학생/무직/기타	8	4.2	37	19.5	36	18.9	22	11.6	66	34.7	5	2.6	4	2.1	12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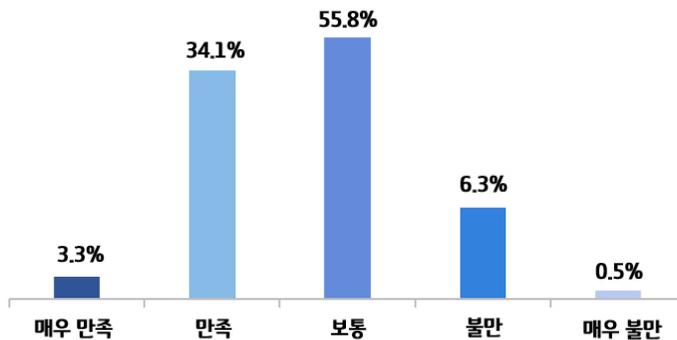
- 남성(23.7%)은 여성(19.8%)보다 '운동 실천'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여성(34.7%)은 남성(31.1%)보다 '정신 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

-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응답자의 17.9%는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이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는 정신적 문제를 원인으로 꼽음
- 남성(7.7%), 여성(6.0%) 모두 '가족력 문제'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

○ 수원시 의료서비스

- 수원시 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통'을 제외하고 37.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8%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수원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예방접종(A형 간염, 로타바이러스) 제공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다양한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이 다수로 나타남

〈그림 4-8〉 수원시 의료서비스 만족도



- 현재 수원시에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코드블루로 인한 정신상담 서비스 제공 또한 잘 이루어진다면 정신관리 문제가 건강에 영향 미치는 것을 낮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표 4-10〉 수원시 의료서비스 만족도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께서는 수원시 내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N	%	N	%	N	%	N	%	N	%
전체		19	3.3	199	34.1	326	55.8	37	6.3	3	0.5
성별	남성	8	2.9	99	35.6	150	54	18	6.5	3	1.1
	여성	11	3.6	100	32.7	176	57.5	19	6.2	0	0
연령	20대	4	3.2	54	42.9	60	47.6	7	5.6	1	0.8
	30대	4	3.2	39	31.2	68	54.4	13	10.4	1	0.8
	40대	7	5	48	34.3	75	53.6	10	7.1	0	0
	50대	4	3.4	36	30.5	73	61.9	5	4.2	0	0
	60대	0	0	22	29.3	50	66.7	2	2.7	1	1.3
거주 지역	장안구	6	3.9	57	36.8	84	54.2	7	4.5	1	0.6
	권선구	2	1.2	61	37.2	87	53	14	8.5	0	0
	팔달구	4	4.7	30	34.9	43	50	7	8.1	2	2.3
	영통구	7	3.9	51	28.5	112	62.6	9	5	0	0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	5.1	7	17.9	29	74.4	1	2.6	0	0
	100-200만원	1	2.1	18	37.5	26	54.2	3	6.3	0	0
	200-300만원	1	1.1	39	41.9	47	50.5	5	5.4	1	1.1
	300-400만원	6	5.1	30	25.4	73	61.9	8	6.8	1	0.8
	400-500만원	3	3.1	34	35.4	53	55.2	5	5.2	1	1.0
	500만원이상	6	3.2	71	37.4	98	51.6	15	7.9	0	0
직장 직위	자영업주	0	0	11	50	11	50	0	0	0	0
	고용주	0	0	4	33.3	7	58.3	1	8.3	0	0
	무급가족 종사자	0	0	1	50	0	0	0	0	1	50
	상용근로자	7	2.4	101	34.4	164	55.8	21	7.1	1	0.3
	임시근로자	0	0	8	40	11	55	1	5	0	0
	일용직근로자	0	0	7	53.8	5	38.5	1	7.7	0	0
	무직	9	5.6	50	30.9	90	55.6	12	7.4	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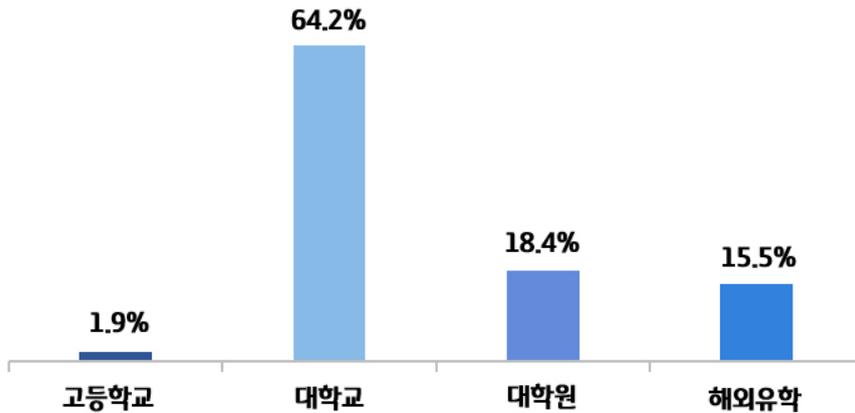
- 직장직위 특성별로 살펴보면 ‘무급가족종사자’는 만족(50%)과 불만족(50%)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남
- 그 외의 자영업주, 상용근로자, 임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무직 등 모든 직위에서는 보통 혹은 만족으로 응답함
- 인구학적 특성의 모든 대상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만족’의 응답이 높음
- 시민들은 수원시의 의료서비스 운영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 자녀의 교육정도

- 자녀가 있는 응답자 54.1%를 대상으로 조사함
- 자녀의 최종 학력에 대한 희망 정도는 ‘대학교(64.2%)’, ‘대학원(18.4%)’, ‘해외유학(15.5%)’, ‘고등학교(1.9%)’ 등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4-9〉 자녀의 교육정도



- 저출산 위기에도 경제력 상승에 따른 자녀 1인당 교육 수요는 지속해서 상승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1〉 자녀의 교육정도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께서는 자녀가 어느 정도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해외유학	
		N	%	N	%	N	%	N	%
전체		6	1.9	203	64.2	58	18.4	49	15.5
성별	남성	2	1.4	105	70.9	21	14.2	20	13.5
	여성	4	2.4	98	58.3	37	22	29	17.3
연령	20대	-	-	-	-	-	-	-	-
	30대	0	0	24	77.4	2	6.5	5	16.1
	40대	3	2.7	72	64.9	19	17.1	17	15.3
	50대	3	3	63	62.4	19	18.8	16	15.8
	60대	0	0	44	60.3	18	24.7	11	15.1
거주 지역	장안구	3	3.4	54	61.4	15	17	16	18.2
	권선구	1	1.1	55	62.5	19	21.6	13	14.8
	팔달구	1	2.8	27	75	4	11.1	4	11.1
	영통구	1	1.0	67	64.4	20	19.2	16	15.4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	18.2	5	45.5	3	27.3	1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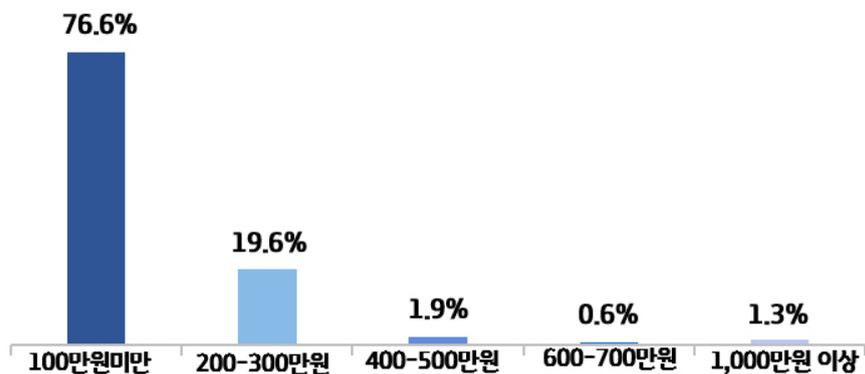
	100-200만원	0	0	13	76.5	1	5.9	3	17.6
	200-300만원	1	2.8	22	61.1	6	16.7	7	19.4
	300-400만원	2	2.9	47	67.1	10	14.3	11	15.7
	400-500만원	1	1.7	44	73.3	8	13.3	7	11.7
	500만원이상	0	0	72	59	30	24.6	20	16.4
자녀 수	1명	1	1.0	65	65.7	16	16.2	17	17.2
	2명	4	2.1	116	62	37	19.8	30	16
	3명	1	3.7	21	77.8	3	11.1	2	7.4
	4명	0	0	1	33.3	2	66.7	0	0
	5명	-	-	-	-	-	-	-	-

- 직장직위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대학원 교육까지 희망하는 직위는 ‘일용직 근로자(100%)’, ‘자영업주(76.5%)’, ‘상용근로자(66.7%)’, ‘무직(6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거주 구,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자녀의 최종학력으로 ‘대학교’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자녀 교육비 지출 정도

- 자녀가 있는 54.1%를 대상으로 조사함

〈그림 4-10〉 자녀 교육비 지출 정도



- 자녀의 월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100만원 미만(76.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1.3%를 기록함
- 자녀의 월 교육비가 ‘200-300만원’이라는 응답도 19.6%에 이룸

- 초·중·고등학교는 매월 고정 교육지출비로 육성회비, 급식비를 지출하며, 자녀교육비는 가구소득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2) 자녀 교육비 지출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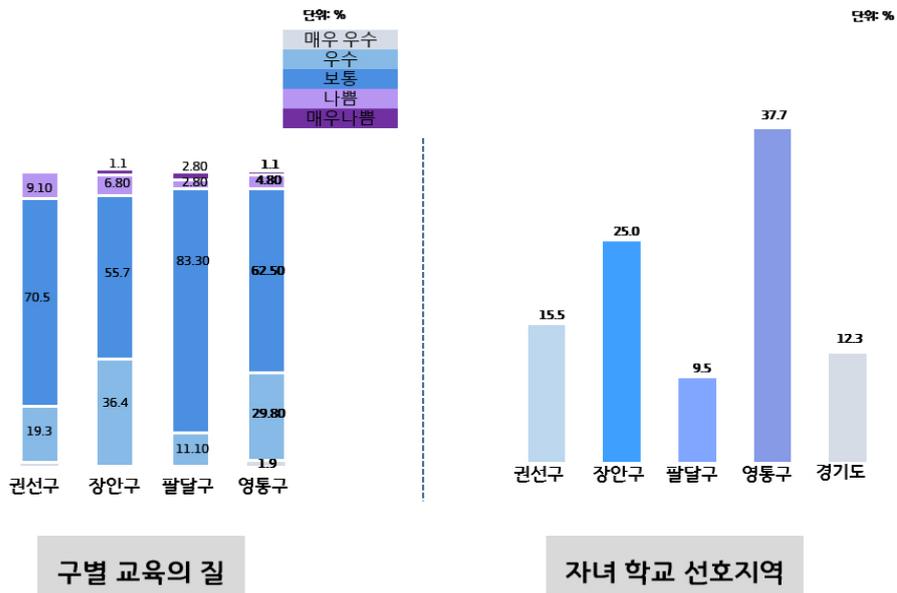
구분		귀하께서는 월 자녀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100만원 미만		200-300만원		400-500만원		600-700만원		1,000만원 이상	
		N	%	N	%	N	%	N	%	N	%
전체		242	76.6	62	19.6	6	1.9	2	0.6	4	1.3
성별	남성	103	69.6	39	26.4	2	1.4	1	0.7	3	2.0
	여성	139	82.7	23	13.7	4	2.4	1	0.6	1	0.6
연령	20대	-	-	-	-	-	-	-	-	-	-
	30대	28	90.3	2	6.5	0	0	0	0	1	3.2
	40대	86	77.5	23	20.7	1	0.9	0	0	1	0.9
	50대	69	68.3	24	23.8	4	4.0	2.0	2.0	2	2.0
	60대	59	80.8	13	17.8	1	1.4	0	0	0	0
거주 지역	장안구	71	80.7	14	15.9	0	0	1	1.1	2	2.3
	권선구	69	78.4	15	17.0	2	2.3	1	1.1	1	1.1
	팔달구	27	75.0	8	22.2	1	2.8	0	0	0	0
	영통구	75	72.1	25	24.0	3	2.9	0	0	1	1.0
가구 소득	100만원미만	11	100	0	0	0	0	0	0	0	0
	100-200만원	11	64.7	5	29.4	1	5.9	0	0	0	0
	200-300만원	31	86.1	5	13.9	0	0	0	0	0	0
	300-400만원	56	80.0	12	17.1	1	1.4	1	1.4	0	0
	400-500만원	46	76.7	10	16.7	1	1.7	1	1.7	2	3.3
직장 직위	500만원이상	87	71.3	30	24.6	3	2.5	0	0	2	1.6
	자영업주	13	76.5	4	23.5	0	0	0	0	0	0
	고용주	4	50	3	37.5	0	0	0	0	1	12.5
	무급가족 종사자	-	-	-	-	-	-	-	-	-	-
	상용근로자	117	75.0	32	20.5	3	1.9	2	1.3	2	1.3
	임시근로자	4	80.0	1	20.0	0	0	0	0	0	0
	일용직근로자	2	100	0	0	0	0	0	0	0	0
자녀 수	무직	80	84.2	11	11.6	3	3.2	0	0	1	1.1
	1명	82	82.8	12	12.1	3	3.0	1	1.0	1	1.0
	2명	138	73.8	43	23.0	2	1.1	1	0.5	3	1.6
	3명	20	74.1	7	25.9	0	0	0	0	0	0
	4명	2	66.7	0	0	1	33.3	0	0	0	0
5명	-	-	-	-	-	-	-	-	-	-	

- 1,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소득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1.6%, 400-500만원 구간에서는 3.3%로 나타남

○ 자녀 교육의 질 및 학교 선호 지역

- 자녀가 있는 54.1%를 대상으로 구별 학교 교육의 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장안구'가 36.4%로 높게 나타났으며, '권선구'는 9.1%를 기록함
-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선호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영통구(37.7%)', '장안구(25.0%)', '권선구(15.5%)', '경기도(12.3%)', '팔달구(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영통구는 수원시 전체에서 학원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장안구(정자동)는 상가 수 대비 학원의 수가 가장 많은 현실을 반영한 응답이라고 판단

〈그림 4-11〉 구별 자녀 교육의 질 및 학교 선호 지역



○ 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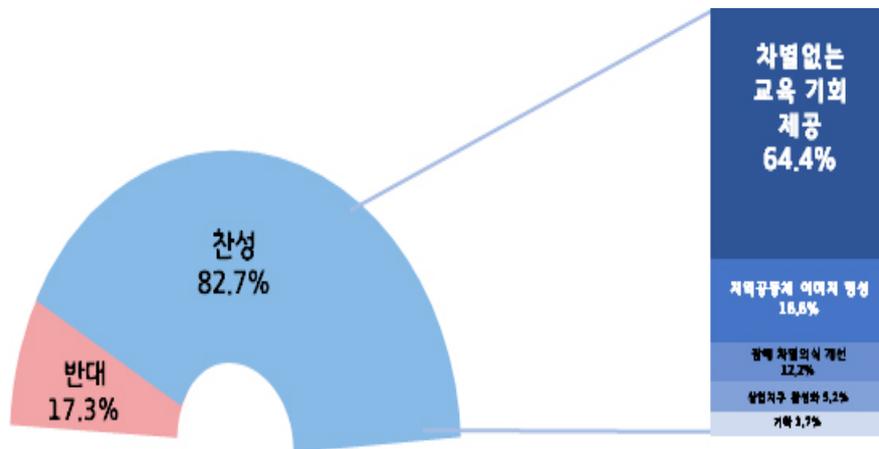
- 자녀가 있는 54.1%를 대상으로 사교육의 목적을 조사한 결과, '선행학습(25.6%)', '소질계발(24.4%)'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기타 의견으로는 '기초를 탄탄히', '아이가 희망', '학교 교육 충분히 하지 못함' 등이 있었음

- 자녀의 수에 따른 사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경우 ‘소질계발(26.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수업선행학습(25.4%)’, 3명인 경우에는 ‘학교교육의 불충실(25.9%)’, 4명의 경우에는 ‘학교교육 불충실(33.3%)’, ‘수업선행학습(33.3%)’ 등의 응답자 특성을 보임

○ 특수학교 설립

- 특수학교(급)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 82.7%가 ‘찬성’한다고 응답
- 찬성한다고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장애학생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64.4%를 기록함

〈그림 4-13〉 특수학교 설립 찬성 응답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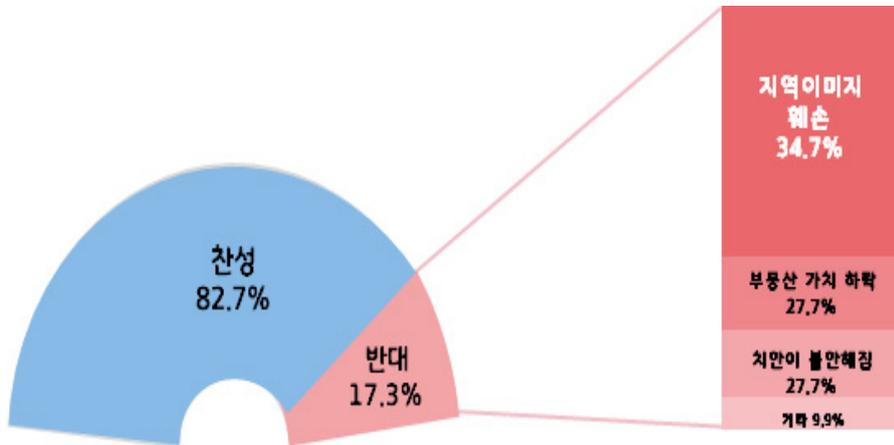
- 그 다음으로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이미지가 형성 될 것’ (16.6%), ‘장애에 대한 이해심을 고취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인식이 개선 될 것’(12.2%),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지역문화·체육행사의 장으로 사용되어 문화상업지구가 활성화 될 것’(5.2%), ‘기타’(1.7%) 등의 순으로 응답
- 기타 의견으로는 ‘어디든 생겨야 하면 우리지역도 상관없음’, ‘지역사회에 문제 발생 여지없음’ 등의 응답이 있었음
- 장애학생도 같은 국민으로서 교육의 불평등 없이 함께 받아야 한다는 가치 인식이 발현하여 장애인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성장한 것으로 판단됨

〈표 4-14〉 특수학교 설립 찬성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께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이미지가 형성될 것이다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지역문화, 체육행사장으로 사용되어 지역의 문화, 상업지구가 활성화 될 것이다		장애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에 대한 이해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인식이 개선될 것이다		기타		
	N	%	N	%	N	%	N	%	N	%	
전체	80	16.6	25	5.2	311	64.4	59	12.2	8	1.7	
성별	남성	48	21.5	17	7.6	128	57.4	26	11.7	4	1.8
	여성	32	12.3	8	3.1	183	70.4	33	12.7	4	1.5
연령	20대	14	13.3	7	6.7	70	66.7	12	11.4	2	1.9
	30대	18	18.0	5	5.0	64	64.0	11	11.0	2	2.0
	40대	18	15.8	5	4.4	75	65.8	14	12.3	2	1.8
	50대	18	17.8	6	5.9	63	62.4	13	12.9	1	1.0
	60대	12	19.0	2	3.2	39	61.9	9	14.3	1	1.6
거주 지역	장안구	26	20.6	9	7.1	75	59.5	15	11.9	1	0.8
	권선구	16	11.6	7	5.1	94	68.1	19	13.8	2	1.4
	팔달구	9	12.0	5	6.7	50	66.7	10	13.3	1	1.3
	영통구	29	20.1	4	2.8	92	63.9	15	10.4	4	2.8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	11.8	2	5.9	24	70.6	4	11.8	0	0
	100-200만원	7	17.1	3	7.3	26	63.4	5	12.2	0	0
	200-300만원	10	13.7	5	6.8	43	58.9	13	17.8	2	2.7
	300-400만원	18	19.6	6	6.5	61	66.3	7	7.6	0	0
	400-500만원	14	16.5	4	4.7	54	63.5	11	12.9	2	2.4
	500만원 이상	27	17.1	5	3.2	103	65.2	19	12.0	4	2.5
직업	농/임/어업	0	0	0	0	0	0	1	100	0	0
	공무원/공기업	4	20.0	1	5.0	13	65.0	1	5.0	1	5.0
	교사/학원강사	2	25.0	0	0	5	62.5	1	12.5	0	0
	자영업	6	28.6	0	0	12	57.1	3	14.3	0	0
	일반기업	32	17.4	12	6.5	109	59.2	27	14.7	4	2.2
	전문직	10	30.3	1	3.0	17	51.5	5	15.2	0	0
	프리랜서/자유직	11	21.6	5	9.8	29	56.9	6	11.8	0	0
	전업주부	6	7.1	3	3.6	69	82.1	6	7.1	0	0
	학생/무직/기타	9	11.1	3	3.7	57	70.4	9	11.1	3	3.7

- 특성별로 살펴보면 직업, 성별, 연령,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특수학교 설립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남

〈그림 4-14〉 특수학교 설립 반대 응답 이유



- 특수학교(급)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 17.3%가 반대한다고 응답
-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응답이 34.7%로 나타남
- 그 외 ‘부동산 가치 하락’ 27.7%, ‘치안이 불안해짐’ 27.7%, ‘기타’ 9.9% 등으로 응답
- 기타의견으로 ‘무서움’, ‘장애인 혐오’, ‘그냥 싫음’ 등의 의견이 있었음
- 시민들이 아직까지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의 이미지 훼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으로 보아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표 4-15〉 특수학교 설립 반대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께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수학교를 설립하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다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치안이 불안해진다		기타	
		N	%	N	%	N	%	N	%
전체		28	27.7	35	34.7	28	27.7	10	9.9
성별	남성	21	38.2	18	32.7	12	21.8	4	7.3
	여성	7	15.2	17	37.0	16	34.8	6	13.0
연령	20대	3	14.3	6	28.6	11	52.4	1	4.8
	30대	6	24.0	8	32.0	9	36.0	2	8.0
	40대	7	26.9	8	30.8	6	23.1	5	19.1
	50대	8	47.1	6	35.3	2	11.8	1	5.9
거주 지역	60대	4	33.3	7	58.3	0	0	1	8.3
	장안구	9	31.0	11	37.9	5	17.2	4	13.8
	권선구	6	23.1	11	42.3	7	26.9	2	7.7
	팔달구	3	27.3	4	36.4	4	36.4	0	0
	영동구	10	28.6	9	25.7	12	34.3	4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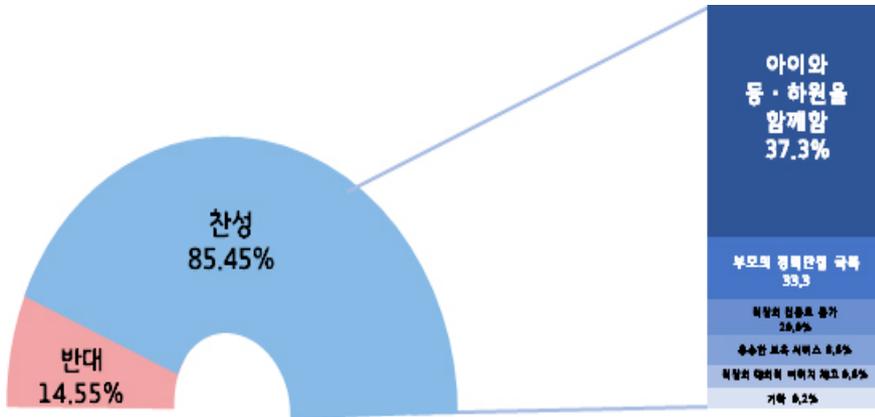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	60.0	1	20.0	1	20.0	0	0
	100-200만원	1	14.3	3	42.9	3	42.9	0	0
	200-300만원	5	25.0	5	25.0	7	35.0	3	15.0
	300-400만원	6	23.1	8	30.8	9	34.6	3	11.5
	400-500만원	2	18.2	4	36.4	3	27.3	2	18.2
	500만원 이상	11	34.4	14	43.8	5	15.6	2	6.3
직장 직위	자영업주	2	66.7	0	0	1	33.3	0	0
	고용주	0	0	1	50.0	1	50.0	0	0
	무급가족종사자	0	0	1	100	0	0	0	0
	상용근로자	17	29.3	20	34.5	15	25.9	6	10.3
	임시근로자	0	0	1	25.0	3	75.0	0	0
	일용직근로자	2	66.7	1	33.3	0	0	0	0
	무직	5	22.7	8	36.4	5	22.7	4	18.2

- 직장직위특성별로 설립반대이유를 살펴보면 자영업주는 ‘부동산 가치 하락(66.7%)’, 고용주는 ‘지역이미지 훼손(50.0%)’, ‘치안이 불안해짐(50.0%)’ 등으로 응답
- 무급가족 종사자들은 ‘지역이미지 훼손(100%)’, 상용근로자는 ‘지역이미지 훼손(34.5%)’, 임시직 근로자 ‘치안이 불안해짐(75.0%)’, 일용직근로자 ‘부동산가치 하락(66.7%)’, 무직 ‘지역이미지 훼손(36.4%)’ 등의 빈도로 응답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 직장 어린이집 설립에 대해서는 85.5%가 찬성한다고 응답

〈그림 4-15〉 직장어린이집 설치 찬성 응답 이유



- 찬성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아이와 등·하원을 함께함(37.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 ‘부모의 경력 단절 극복(33.3%)’, ‘직장에 대한 집중도 증가(20.0%)’,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서비스 혜택(8.6%)’, ‘사업체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0.6%)’, ‘기타(0.2%)’ 등으로 응답

- 기타의견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근로자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걱정 없이 근무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수의 직장을 가진 부모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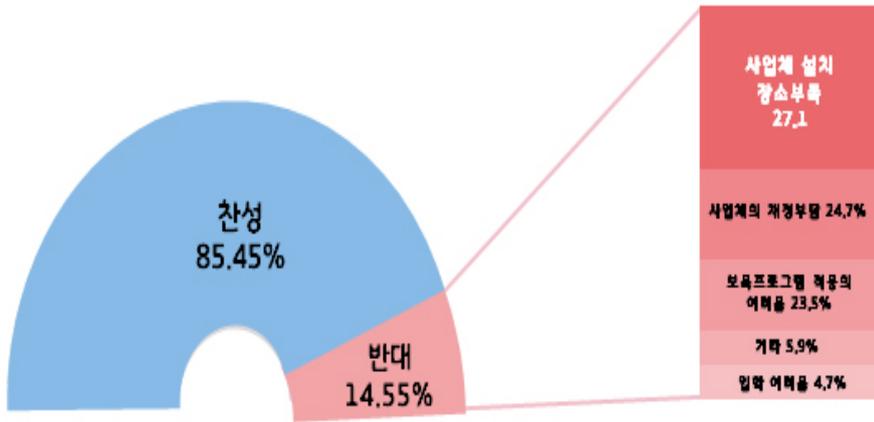
〈표 4-16〉 직장어린이집 찬성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께서는 직장 어린이 집 설립에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경력단절 극복		우수한 보육서비스 혜택		직장에 대한 집중도 증가		사업체대외 적 이미지 제고		아이와 등·하원함께		기타	
		N	%	N	%	N	%	N	%	N	%	N	%
전체		166	33.3	43	8.6	100	20.0	3	0.6	186	37.3	1	0.2
성별	남성	64	27.9	28	12.2	52	22.7	3	1.3	81	35.4	1	0.4
	여성	102	37.8	15	5.6	48	17.8	0	0	105	38.9	0	0
연령	20대	53	49.1	7	6.5	17	15.7	0	0	31	28.7	0	0
	30대	46	41.1	7	6.3	19	17.0	2	1.8	38	33.9	0	0
	40대	33	28.2	8	6.8	22	18.8	0	0	53	45.3	1	0.9
	50대	21	21.9	9	9.4	26	27.1	1	1.0	39	40.6	0	0
	60대	13	19.7	12	18.2	16	24.2	0	0	25	37.9	0	0
거주 지역	장안구	39	30.0	14	10.8	30	23.1	1	0.8	46	35.4	0	0
	권선구	50	36.8	13	9.6	19	14.0	1	0.7	52	38.2	1	0.7
	팔달구	24	34.3	6	8.6	17	24.3	0	0	23	32.9	0	0
	영통구	53	32.5	10	6.1	34	20.9	1	0.6	65	39.9	0	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	35.5	3	9.7	7	22.6	0	0	10	32.3	0	0
	100-200만원	11	25.6	2	4.7	12	27.9	0	0	18	41.9	0	0
	200-300만원	25	31.3	6	7.5	15	18.8	1	1.3	32	40.0	1	1.3
	300-400만원	39	39.0	7	7.0	16	16.0	0	0	38	38.0	0	0
	400-500만원	29	35.4	4	4.9	17	20.7	1	1.2	31	37.8	0	0
	500만원 이상	51	31.3	21	12.9	33	20.2	1	0.6	57	35.0	0	0
직장직위	자영업주	3	17.6	2	11.8	5	29.4	0	0	7	41.2	0	0
	고용주	3	33.3	2	22.2	0	0	0	0	4	44.4	0	0
	무급가족종사자	1	50.0	0	0	1	50.0	0	0	0	0	0	0
	상용근로자	83	33.6	20	8.1	48	19.4	3	1.2	92	37.2	1	0.4
	임시근로자	5	33.3	4	26.7	1	6.7	0	0	5	33.3	0	0
	일용직근로자	3	30.0	1	10.0	2	20.0	0	0	4	40.0	0	0
	무직	52	34.9	9	6.0	35	23.5	0	0	53	35.6	0	0

- 직장직위특성별로 설립찬성이유를 살펴보면, 자영업주는 '직장에 대한 집중도 증가(29.4%)', 고용주는 '아이와 함께 등·하원을 함께해서 안정적(44.4%)', 무급가족종사자는 '부모의 경력단절 극복(50.0%)', '직장에 대한 집중도 증가(50.0%)'라고 응답

- 상용근로자의 37.2%는 ‘아이와 등·하원을 함께 함으로 안정적’, 임시직근로자의 33.3%는 ‘부모의 경력단절 극복’, ‘아이와 등·하원을 함께 함으로 안정적’이라고 응답
- 일용직근로자의 40%, 무직의 35.6% 역시 ‘아이와 등·하원을 함께 함으로 안정적’이라고 응답

〈그림 4-16〉 직장어린이집 설치 반대 응답 이유



- 직장어린이집 설립에 대해서 응답자의 14.55%는 반대한다고 응답
- 반대 응답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지역 이미지 훼손’이라는 응답이 34.7%로 나타남
- 그 외 ‘사업체 설치 장소부족’ 27.1%, ‘사업체 재정부담’ 24.7%, ‘보육프로그램 적용의 어려움’ 23.5%, ‘직장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 보다 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 14.1%, ‘기타’ 5.9%, ‘입학이 어려움’ 4.7% 등으로 응답함
- 기타 의견으로 ‘일과 육아 혼선 우려’, ‘인원이 많은 직장아 아님’, ‘중소기업은 힘들’ 등의 의견이 있었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반대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을 미루어 볼 때, 사업체의 설치 여건을 우려하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7〉 직장어린이집 설치 반대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께서는 직장 내 어린이 집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체의 재정부담		사업체 내 설치 장소부족		근무여건에 맞는 보육프로그램 적용의 어려움		입학이 어려움		일반 어린이집보다 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할 것 같음		기타	
		N	%	N	%	N	%	N	%	N	%	N	%
전체		21	24.7	23	27.1	20	23.5	4	4.7	12	14.1	5	5.9
성별	남성	12	24.5	9	18.4	14	28.6	3	6.1	7	14.3	4	8.2
	여성	9	25.0	14	38.9	6	16.7	1	2.8	5	13.9	1	2.8
연령	20대	4	22.2	3	16.7	6	33.3	0	0	4	22.2	1	5.6
	30대	4	30.8	6	46.2	2	15.4	1	7.7	0	0	0	0
	40대	4	17.4	6	26.1	6	26.1	2	8.7	3	13.0	2	8.7
	50대	7	31.8	7	31.8	3	13.6	1	4.5	2	9.1	2	9.1
	60대	2	22.2	1	11.1	3	33.3	0	0	3	33.3	0	0
거주 지역	장안구	6	24.0	5	20.0	6	24.0	2	8.0	6	24.0	0	0
	권선구	7	25.0	10	35.7	4	14.3	1	3.6	1	3.6	3	10.7
	팔달구	4	25.0	4	25.0	5	31.3	1	6.3	1	6.3	1	6.3
	영통구	4	25.0	4	25.0	5	31.3	0	0	2	12.5	1	6.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	37.5	2	25.0	2	25.0	0	0	0	0	1	12.5
	100-200만원	2	40.0	2	40.0	1	20.0	0	0	0	0	0	0
	200-300만원	4	30.8	5	38.5	2	15.4	1	7.7	0	0	1	7.7
	300-400만원	3	16.7	3	16.7	8	44.4	1	5.6	3	16.7	0	0
	400-500만원	3	21.4	6	42.9	2	14.3	0	0	1	7.1	2	14.3
500만원 이상	6	22.2	5	18.5	5	18.5	2	7.4	8	29.6	1	3.7	
직장직위	자영업주	2	40.0	0	0	0	0	0	0	2	40.0	1	20.0
	고용주	1	33.3	1	33.3	0	0	1	33.3	0	0	0	0
	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	-	-	-
	상용근로자	9	19.1	15	31.9	11	23.4	2	4.3	7	14.9	3	6.4
	임시근로자	1	20.0	2	40.0	2	40.0	0	0	0	0	0	0
	일용직근로자	2	66.7	1	33.3	0	0	0	0	0	0	0	0
자녀	무직	4	30.8	1	7.7	3	23.1	1	7.7	3	23.1	1	7.7
	있음	10	20.8	15	31.3	10	20.8	4	8.3	7	14.6	2	4.2
혼인	없음	11	29.7	8	21.6	10	27.0	0	0	5	13.5	3	8.1
	미혼	10	28.6	8	22.9	9	25.7	0	0	5	14.3	3	8.6
	기혼	10	22.2	14	31.1	10	22.2	3	6.7	6	13.3	2	4.4
	별거	-	-	-	-	-	-	-	-	-	-	-	-
	이혼	1	25.0	1	25.0	1	25.0	1	25.0	0	0	0	0
사별	0	0	0	0	0	0	0	0	1	10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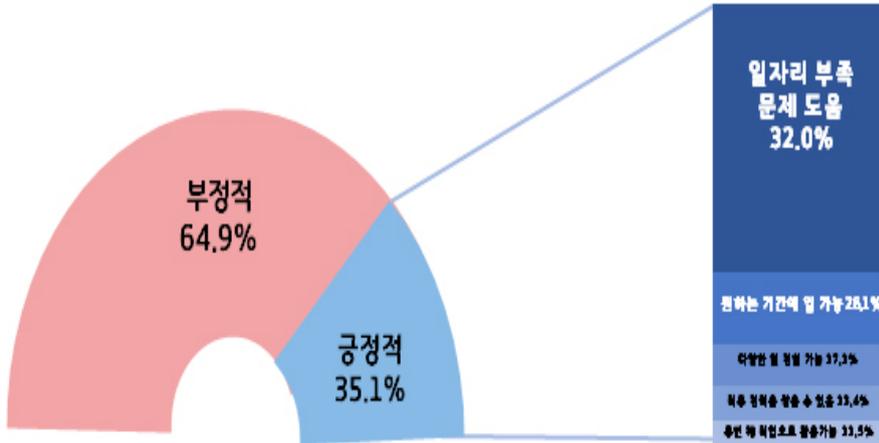
- 직장직위 특성별로 설립 반대이유를 살펴보면, 자영업주는 ‘사업체의 재정부담(40.0%)’, ‘일반 어린이집 보다 전문성이 부족(40.0%)’이라는 의견이 많음
- 고용주는 ‘사업체 설치 장소부족(33.3%)’, ‘입학이 어려움(33.3%)’을 꼽음
- 상용근로자는 ‘사업체 설치 장소부족(31.9%)’, 임시근로자는 ‘사업체 설치장소 부족(40.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경제활동권(노동)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대한 질문에 35.1%가 긍정적이라고 응답

〈그림 4-17〉 비정규직에 대한 긍정적 응답 및 이유



-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일자리 부족 문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원하는 기간에 일 가능’ 26.1%, ‘여러 가지일 경험 가능’ 17.1%, ‘직무 경력을 쌓을 수 있음’ 13.4%, ‘두 번째 직업으로 활용 가능’ 11.5% 등으로 응답
- 비정규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자신이 지원한 업무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으며,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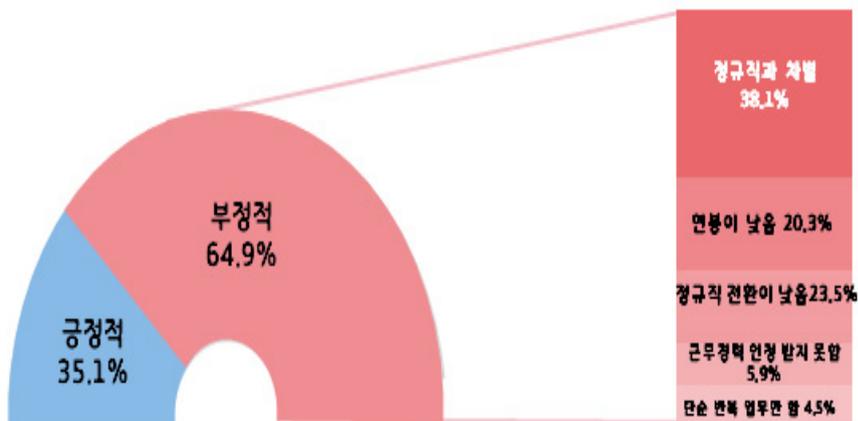
〈표 4-18〉 비정규직 긍정적 응답자별 특성

구분	비정규직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 경험 가능		원하는 기간에 일 가능		일자리 부족 문제에 도움		직무 경력을 쌓을 수 있음		두 번째 직업으로 활용 가능		
	N	%	N	%	N	%	N	%	N	%	
전체	70	17.1	107	26.1	131	32.0	55	13.4	47	11.5	
성별	남성	41	18.1	57	25.2	77	34.1	30	13.3	21	9.3
	여성	29	15.8	50	27.2	54	29.3	25	13.6	26	14.1
연령	20대	23	21.7	26	24.5	29	27.4	14	13.2	14	13.2
	30대	18	20.0	28	31.1	21	23.3	12	13.3	11	12.2
	40대	11	13.4	22	26.8	26	31.7	13	15.9	10	12.2
	50대	11	15.7	17	24.3	30	42.9	9	12.9	3	4.3
	60대	7	11.3	14	22.6	25	40.3	7	11.3	9	14.5
거주	장안구	24	21.4	28	25.0	33	29.5	15	13.4	12	10.7

지역	권선구	23	18.5	34	27.4	41	33.1	13	10.5	13	10.5
	팔달구	5	9.3	16	29.6	18	33.3	6	11.1	9	16.7
	영통구	18	15.0	29	24.2	39	32.5	21	17.5	13	10.8
가구 소득	100만원미만	10	31.3	8	25.0	10	31.3	3	9.4	1	3.1
	100-200만원	6	17.6	7	20.6	9	26.5	5	14.7	7	20.6
	200-300만원	13	21.7	15	25.0	17	28.3	8	13.3	7	11.7
	300-400만원	10	12.8	19	24.4	26	33.3	14	17.9	9	11.5
	400-500만원	13	18.1	21	29.2	21	29.2	7	9.7	10	13.9
	500만원이상	18	13.4	37	27.6	48	35.8	18	13.4	13	9.7
직장 직위	자영업주	5	27.8	3	16.7	7	36.9	3	16.7	0	0
	고용주	2	16.7	3	25.0	4	33.3	1	8.3	2	16.7
	무급가족종사자	0	0	1	50.0	1	50.0	0	0	0	0
	상용근로자	26	13.7	48	25.3	65	34.2	30	15.8	21	11.1
	임시근로자	3	21.4	5	35.7	1	7.1	2	14.3	3	21.4
	일용직근로자	1	12.5	2	25.0	4	50.0	1	12.5	0	0
	무직	23	19.2	30	25.0	40	33.3	15	12.5	12	10.0

- 직장직위 특성별로 비정규직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무급가족종사자의 50.0%, 임시근로자의 35.7%는 '원하는 기간에 일 가능'이라고 응답
- 자영업주의 36.9%, 고용주의 33.3%, 상용근로자의 '34.2%, 일용직근로자의 50.0%, 무직의 33.3%는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서 비정규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

〈그림 4-18〉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응답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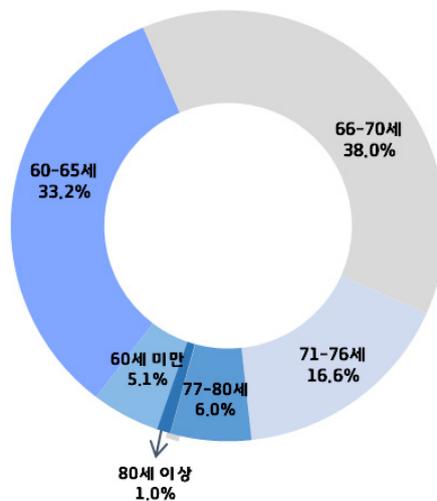
-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에 대해 응답자의 64.9%가 부정적으로 응답
-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정규직과 차별(32.0%)'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연봉이 너무 낮음' 20.3%,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음' 19.4%,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함' 17.7%, '단순 업무만 반복함' 4.5% 등으로 응답함
-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낮고, 복리후생 조건이 좋지 않으며 정규직과 이해갈등이 생겨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응답을 보임

〈표 4-19〉 비정규직 부정적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께서 비정규직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 대우 등 정규직과 차별이 심함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음		연봉이 너무 낮음		근무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단순 반복 업무만 함	
		N	%	N	%	N	%	N	%	N	%
전체		289	38.1	147	19.4	154	20.3	134	17.7	34	4.5
성별	남성	124	37.6	63	19.1	77	23.3	47	14.2	19	5.8
	여성	165	38.6	84	19.6	77	18.0	87	20.3	15	3.5
연령	20대	50	34.2	36	24.7	22	15.1	31	21.2	7	4.8
	30대	55	34.47	39	24.4	32	20.0	27	16.9	7	4.4
	40대	77	38.9	35	17.7	36	18.2	43	21.7	7	3.5
	50대	69	41.6	29	17.5	39	23.5	20	12.0	9	5.4
	60대	38	43.2	8	9.1	25	28.4	13	14.8	4	4.5
거주지역	장안구	76	38.4	36	18.2	40	20.2	37	18.7	9	4.5
	권선구	74	36.6	40	19.6	43	21.1	39	19.1	8	3.9
	팔달구	44	37.3	30	25.4	19	16.1	20	16.9	5	4.2
	영통구	95	39.9	41	17.2	52	21.8	38	16.0	12	5.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5	32.6	9	19.6	12	26.1	9	19.6	1	2.2
	100-200만원	26	41.9	9	14.5	12	19.4	14	22.6	1	1.6
	200-300만원	41	32.5	28	22.2	27	21.4	24	19.0	6	4.8
	300-400만원	62	39.2	28	17.7	29	18.4	31	19.6	8	5.1
	400-500만원	48	40.0	32	26.7	18	15.0	17	14.2	5	4.2
500만원 이상	97	39.4	41	16.7	56	22.8	39	15.9	13	5.3	
직장직위	자영업주	11	42.3	5	19.2	5	19.2	4	15.4	1	3.8
	고용주	5	41.7	1	8.3	1	8.3	4	33.3	1	8.3
	무급가족종사자	1	50.0	1	50.0	0	0	0	0	0	0
	상용근로자	146	36.7	77	19.3	93	23.4	64	16.1	18	4.5
	임시근로자	11	42.3	5	19.2	4	15.4	4	15.4	2	7.7
	일용직근로자	7	38.9	2	11.1	3	16.7	5	27.8	1	5.6
	무직	81	39.7	44	21.6	30	14.7	40	19.6	9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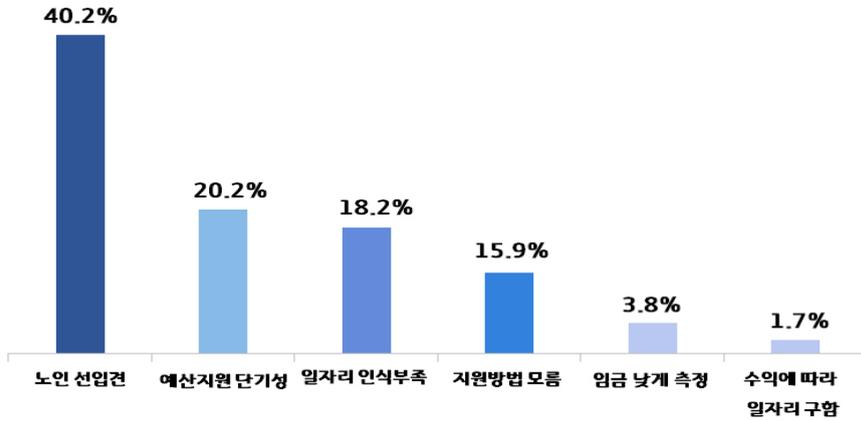
- 직장직위 특성별로 살펴보면 무급가족종사자의 50%는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음’이라고 응답
 - 이외 자영업주, 고용주,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무직은 ‘복지, 대우 등 정규직과 차별이 심함’의 이유로 비정규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 가능 노인 연령
- 근로 가능한 노인연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0%가 ‘66-70세’라고 응답

〈그림 4-19〉 근로 가능 노인 연령



- 근로 가능한 노인연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0%가 ‘66-70세’라고 응답
 - 그 외 ‘66-65세’, ‘71-76세’, ‘77-80세’, ‘60세 미만’, ‘80세 이상’ 등의 순으로 응답
 - 현재 65세라는 기준은 국제연합(UN)이 결성된 이후 노인의 연령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그 보다 많은 나이를 노동 가능 노인연령으로 조사됨에 따라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
- 노인일자리
- 노인 일자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혹은 시선으로 인한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40.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20〉 노인일자리 문제점



- 노인 일자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혹은 시선으로 인한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40.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 ‘국가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이 자하면 종료되어 단기적’ 20.2%, ‘노인일자리에 대한 인식부족’ 18.2%, ‘어떤 직업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모름’ 15.9%, ‘노인에게 주는 임금이 낮게 측정’ 3.8%, ‘수익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있음’ 1.7% 등으로 응답함
- 노인의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노인의 부정적 선입견으로 인한 일자리 공급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 근육을 사용하는 노동에서는 노인이 비교열위를 가지므로, 노인의 경륜과 경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함

〈표 4-20〉 노인일자리 문제점 관련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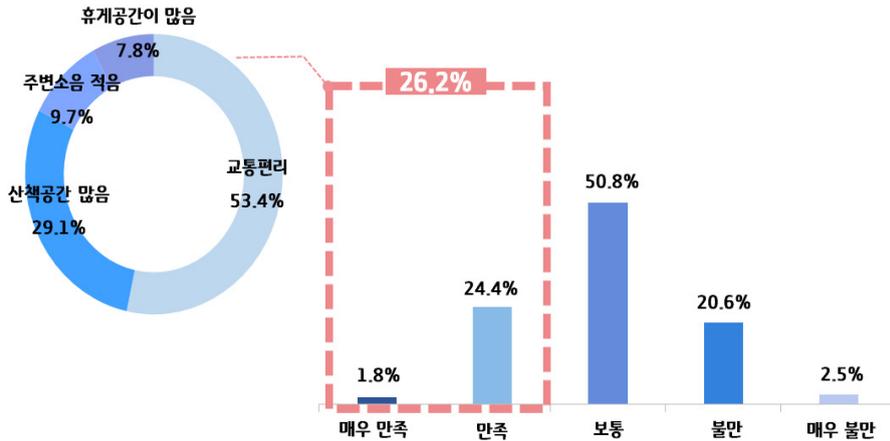
구분	귀하께서는 노인일자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부족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려움		직업종류와 지원 방법을 모름		국가 예산의 단기 일자리 사업		수익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있음		노인에게 주는 임금이 낮게 측정		
	N	%	N	%	N	%	N	%	N	%	N	%	
전체	106	18.2	235	10.2	93	15.9	118	20.2	10	1.7	22	3.8	
성별	남성	55	19.8	103	37.1	42	15.1	63	22.7	7	2.5	8	2.9
	여성	51	16.7	132	43.1	51	16.7	55	18.0	3	1.0	14	4.6
연령	20대	26	20.6	48	38.1	28	22.2	17	13.5	3	2.4	4	3.2
	30대	14	11.2	46	36.8	31	24.8	30	24.0	1	0.8	3	2.4
	40대	33	23.6	51	36.4	13	9.3	31	22.1	3	2.1	9	6.4
	50대	21	17.8	52	44.1	10	8.5	28	23.7	2	1.7	5	4.2
	60대	12	16.0	38	50.7	11	14.7	12	16.0	1	1.3	1	1.3
거주 지역	장안구	22	14.2	81	52.3	27	17.4	19	22.1	2	2.3	3	3.5
	권선구	29	17.7	54	32.9	27	16.5	40	24.4	3	1.8	11	6.7
	팔달구	18	20.9	34	39.5	10	11.6	19	22.1	2	2.3	3	3.5
	영통구	37	20.7	66	36.9	29	16.2	40	22.3	2	1.1	5	2.8
가구 소득	100만원미만	8	20.5	12	30.8	9	23.1	7	17.9	1	2.6	2	5.1
	100-200만원	10	20.8	21	43.8	7	14.6	6	12.5	0	0	4	8.3
	200-300만원	15	16.1	36	38.7	18	19.4	18	19.4	2	2.2	4	4.3
	300-400만원	23	19.5	48	40.7	18	15.3	25	21.2	1	0.8	3	2.5
	400-500만원	25	26.0	31	32.3	10	10.4	25	26.0	1	1.0	4	4.2
500만원이상	25	13.2	87	45.8	31	16.3	37	19.5	5	2.6	5	2.6	
직업	농/임/어업	1	50.0	0	0	0	0	0	0	0	0	1	50.0
	공무원/공기업	7	26.9	8	30.8	3	11.5	7	26.9	1	3.8	0	0
	교사/학원강사	1	6.3	10	62.5	1	6.3	4	25.0	0	0	0	0
	자영업	4	17.4	9	39.1	4	17.4	4	17.4	1	4.3	1	4.3
	일반기업	47	20.4	91	39.6	38	16.5	42	18.3	5	2.2	7	3.0
	전문직	5	13.2	14	36.8	6	15.8	9	23.7	2	5.3	2	5.3
	프리랜서/자유직	7	11.9	24	40.7	1.9	11	2.1	22	0	0	5	8.5
	전업주부	22	23.2	37	38.5	11	11.6	22	23.2	0	0	3	3.2
학생/무직/기타	12	12.6	42	44.2	19	20.0	18	18.9	1	1.1	3	3.2	

- 직장직위 특성별로 살펴보면 농/임/어업의 종사자들은 ‘노인에 대한 인식부족(50.0%)’, ‘노인에게 주는 임금 낮게 측정(50.0%)’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함

○ 직장 주변 환경 만족도

- 직장 주변의 환경 만족도에 대한 질문해서는 응답자의 26.2%가 만족한다고 응답

〈그림 4-21〉 직장 주변의 환경 만족도



- 직장 주변의 환경 만족도에 대한 질문해서는 응답자의 26.2%가 만족한다고 응답

- 만족하는 이유로는 ‘교통이 편리함(53.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산책 공간이 많음(29.1%)’, ‘주변소음이 적음(9.7%)’, ‘휴게공간이 많음(7.8%)’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직장인들은 교통체증, 지옥철 등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으므로, 직장근접을 가장 좋은 근무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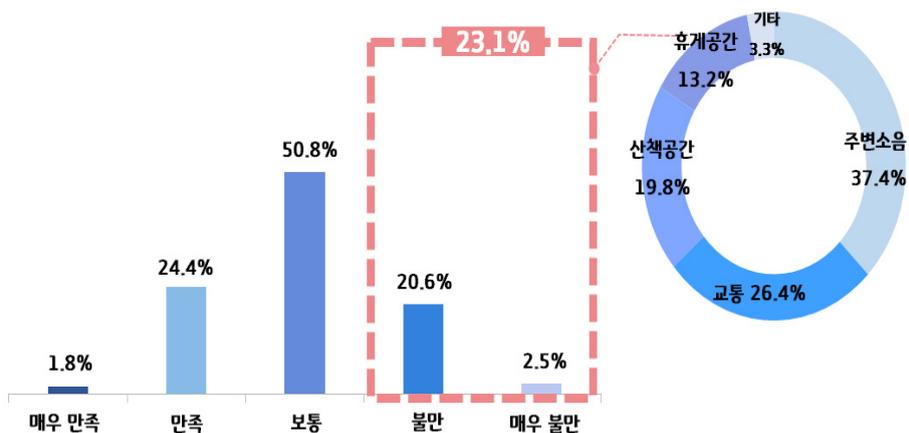
〈표 4-21〉 직장 주변 환경 만족 이유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께서는 직장 주변 환경의 만족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이 편리함		휴게공간이 많음		주변소음이 적음		주변의 산책 공간	
		N	%	N	%	N	%	N	%
전체		55	53.4	8	7.8	10	9.7	30	29.1
성별	남성	31	57.4	5	9.3	8	14.8	10	18.5
	여성	24	49.0	3	6.1	2	4.1	20	40.8
연령	20대	11	64.7	0	0	3	17.6	3	17.6
	30대	16	64.0	5	20.0	2	8.0	2	8.0
	40대	15	46.9	3	9.4	2	6.3	12	37.5
	50대	8	47.1	0	0	3	17.6	6	35.3
	60대	5	41.7	0	0	0	0	7	58.3
거주 지역	장안구	13	46.4	4	14.3	3	10.7	8	28.6
	권선구	10	38.5	3	11.5	3	11.5	10	38.5
	팔달구	6	54.5	0	0	1	9.1	4	36.4
	영통구	26	68.4	1	2.6	3	7.9	8	21.1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	50.0	0	0	0	0	1	50.0
	100-200만원	3	50.0	1	16.7	1	16.7	1	16.7
	200-300만원	7	50.0	2	14.3	2	14.3	3	21.4
	300-400만원	12	48.0	3	12.0	3	12.0	7	28.0
	400-500만원	9	75.0	0	0	1	8.3	2	16.7
	500만원 이상	23	52.3	2	4.5	3	6.8	16	36.4
직위	자영업주	3	75.0	0	0	1	25.0	0	0
	고용주	1	25.0	0	0	2	50.0	1	25.0
	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상용근로자	43	53.1	8	9.9	6	7.4	24	29.6
	임시근로자	1	50.0	0	0	0	0	1	50.0
	일용직 근로자	1	100	0	0	0	0	0	0

- 직장직위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주(75.0%), 상용근로자(53.1%), 임시근로자(50.0%), 일용직근로자(100%)는 ‘교통이 편리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주(50.0%)는 ‘주변소음이 적음’이 직장생활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2〉 직장 주변 환경 불만족도



- 직장 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족도 질문에 응답자의 23.1%는 직장 주변 환경에 대해 ‘불만족 한다’고 응답함
-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주변소음이 심함(37.4%)’, ‘교통이 불편함(26.4%)’, ‘산책공간이 적음’(19.8%), ‘휴게공간이 적음(13.2%)’, ‘기타(3.3%)’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직장인은 직장 주변소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휴게공간보다는 산책 공간이 있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2〉 직장 주변 환경 불만족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께서는 직장 주변 환경의 불만족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이 불편함		휴게공간이 적음		주변소음이 심함		산책공간이 적음		기타	
		N	%	N	%	N	%	N	%	N	%
전체		24	26.4	12	13.2	34	37.4	18	19.8	3	3.3
성별	남성	12	24.5	6	12.2	24	49	7	14.3	0	0
	여성	12	28.6	6	14.3	10	23.8	11	26.2	3	7.1
연령	20대	7	43.8	0	0	6	37.5	3	18.8	0	0
	30대	9	30.0	5	16.7	11	36.7	3	10.0	2	6.7
	40대	3	21.4	1	7.1	4	28.6	5	35.7	1	7.1
	50대	5	23.8	5	23.8	8	38.1	3	14.3	0	0
	60대	0	0	1	10.0	5	50.0	4	40.0	0	0
거주 지역	장안구	5	27.8	3	16.7	9	50.0	1	5.6	0	0
	권선구	6	20.7	3	10.3	9	31.0	8	27.6	3	10.3
	팔달구	6	50.0	1	8.3	4	33.3	1	8.3	0	0
	영통구	7	21.9	5	15.6	12	37.5	8	25.0	0	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	0	0	0	2	100	0	0	0	0
	100-200만원	1	20.0	0	0	2	40.0	1	20.0	1	20.0
	200-300만원	9	40.9	2	9.1	6	27.3	4	18.2	1	4.5
	300-400만원	4	17.4	5	21.7	11	47.8	3	13.0	0	0
	400-500만원	1	9.1	1	9.1	7	63.6	1	9.1	1	9.1
	500만원 이상	9	32.1	4	14.3	6	21.4	9	32.1	0	0
직위	자영업주	0	0	1	20.0	3	60.0	1	20.0	0	0
	고용주	2	40.0	0	0	2	40.0	1	20.0	0	0
	무급가족종사자	0	0	0	0	1	100	0	0	0	0
	상용근로자	19	29.7	10	15.6	22	34.4	11	17.2	2	3.1
	임시근로자	0	0	0	0	0	0	1	100	0	0
	일용직 근로자	1	50.0	0	0	0	0	1	50.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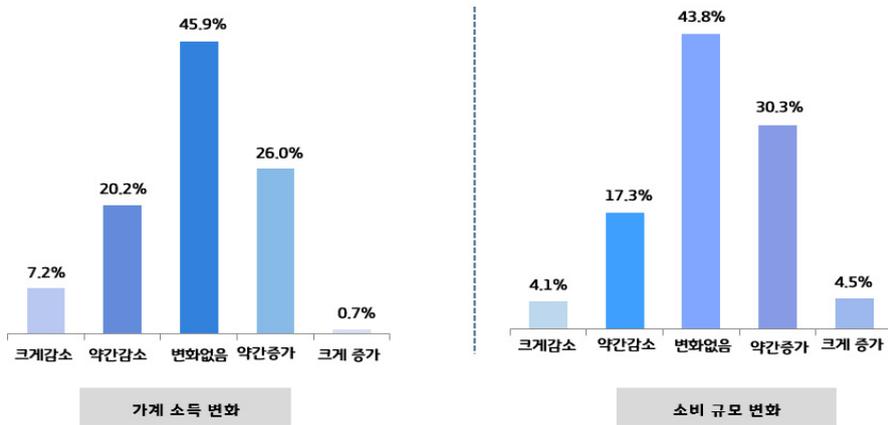
- 직장직위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용주(40.0%), 일용직근로자(50.0%)는 ‘교통이 불편함’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자영업주(60.0%), 무급가족종사자(100%), 상용근로자(34.4%)는 ‘주변 소음이 심함’을 불만족 이유로 지적
- 임시근로자(100%)는 ‘주변에 산책 공간’이 없음을 불만 사항으로 응답

■ 소득·소비

○ 가계소득 및 소비규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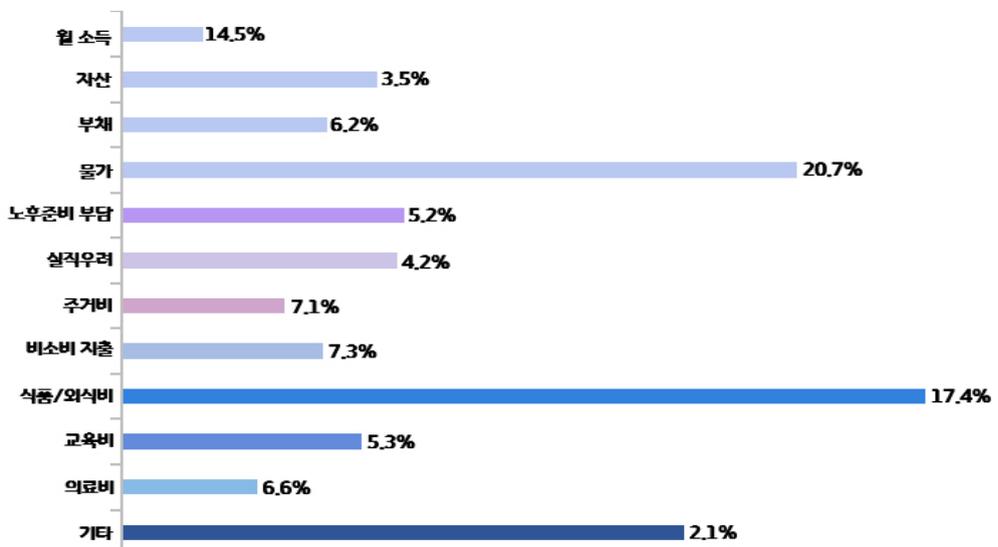
- 지난 해(2020)와 올해(2021)의 소득변화에 대해 가계소득의 경우 45.9%의 응답자가 변화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소득규모에 대해서는 43.8%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함

〈그림 4-23〉 가계소득 및 소비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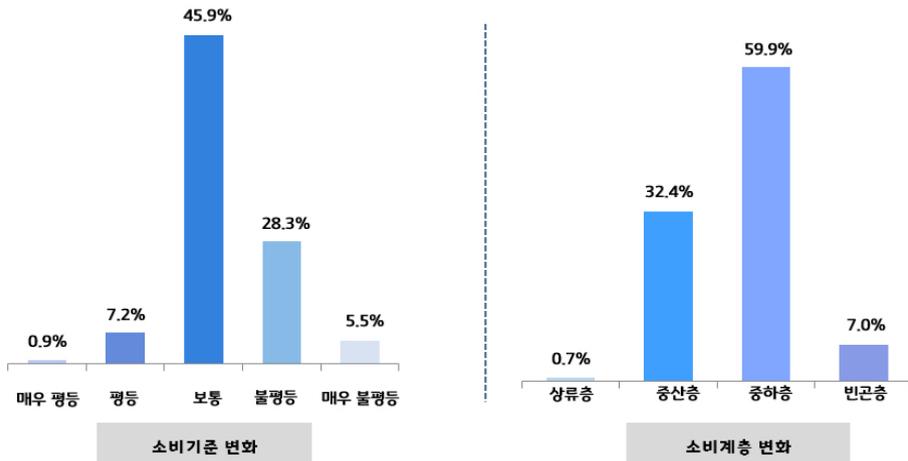
- 전반적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 할수록 소비 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 확산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보다 지출의 변화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정부에 긴급재난금지원이 가계 소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가계 지출 항목 변화 이유
 - 지난 해(2020)에 비해 소비규모가 ‘물가(20.7%)’로 인해 변화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그림 4-24〉 가계 지출 항목 변화 이유



- 그 외 '식품·외식비(17.4%)', '월 소득(14.5%)', '비소비 지출(7.3%)', '주거비(7.1%)', '부채(6.2%)', '의료비(6.6%)', '교육비(5.3%)', '노후준비 부담(5.2%)', '실직우려(4.2%)' 등으로 응답
 -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개인의 소득과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경제수준
- '보통(45.9%)'을 제외한 시민들의 33.8%는 주변과 비교 했을 때, 소득기준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응답

〈그림 4-25〉 경제 수준 비교



- 59.9%의 시민들은 스스로를 '중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0.7%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시민들은 우리 사회에 강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삶의 스타일도 변화 할 것으로 예측함

〈표 4-23〉 경제 수준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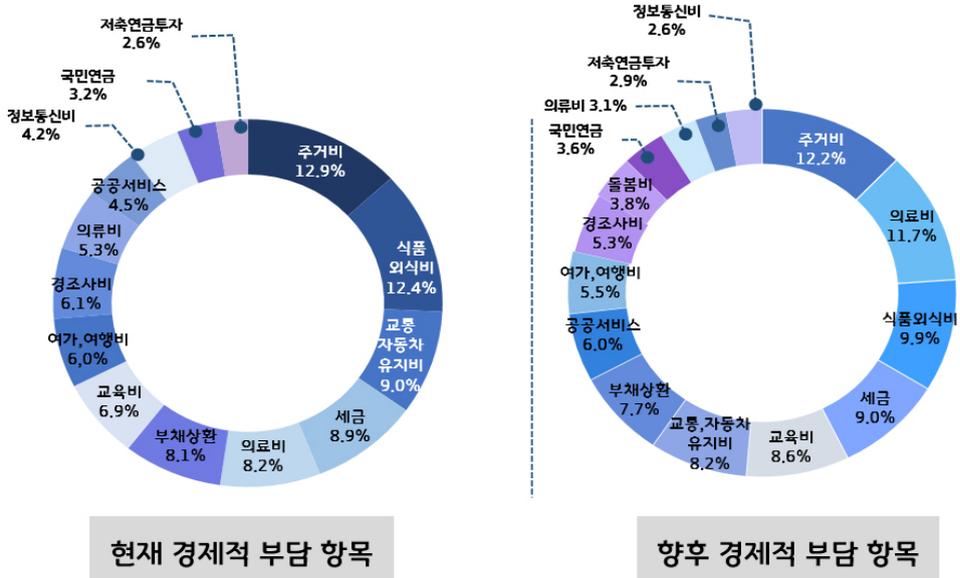
구분		현재 귀하의 경제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류층		중산층		중하층		빈곤층	
		N	%	N	%	N	%	N	%
전체		4	0.7	189	32.4	350	59.9	41	7.0
성별	남성	3	1.1	89	32.0	166	59.7	20	7.2
	여성	1	0.3	100	32.7	184	60.1	21	6.9
연령	20대	1	0.8	47	37.3	64	50.8	14	11.1
	30대	0	0	25	20.0	89	71.2	11	8.8
	40대	0	0	47	37.3	64	50.8	14	11.1
	50대	2	1.7	46	39.0	66	55.9	4	3.4
	60대	1	1.3	24	32.0	46	61.3	4	5.3
거주 지역	장안구	0	0	44	28.4	100	64.5	11	7.1
	권선구	0	0	41	25.0	109	66.5	14	8.5
	팔달구	0	0	25	29.1	52	60.5	9	10.5
	영통구	4	2.2	79	44.1	89	49.7	7	3.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	2.6	12	30.8	18	46.2	8	20.5
	100-200만원	0	0	3	6.3	34	70.8	11	22.9
	200-300만원	0	0	12	12.9	68	73.1	13	14.0
	300-400만원	0	0	35	29.7	79	66.9	4	3.4
	400-500만원	0	0	24	25.0	69	71.9	3	3.1
	500만원 이상	3	1.6	103	54.2	82	43.2	2	1.1
직업	농/임/어업	0	0	0	0	2	100	0	0
	공무원/공기업	0	0	11	42.3	15	57.7	0	0
	교사/학원강사	0	0	11	68.8	4	25.0	1	6.3
	자영업	0	0	5	21.7	17	73.9	1	4.3
	일반기업	2	0.9	70	30.4	143	62.2	15	6.5
	전문직	0	0	11	28.9	24	63.2	3	7.9
	프리랜서/자유직	0	0	11	18.6	44	74.6	4	6.8
	전업주부	1	1.1	36	37.9	51	53.7	7	7.4
	학생/무직/기타	1	1.1	34	35.8	50	52.6	10	10.5
	학력	중졸 이하	0	0	0	0	3	75.0	1
고졸		1	0.8	38	29.5	77	59.7	13	10.1
전문대졸		0	0	20	25.3	51	64.6	8	10.1
대졸		2	0.6	101	32.8	188	61.0	17	5.5
대학원 이상		1	1.6	30	46.9	31	48.4	2	3.1

- 월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43.2%도 자신을 중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소득과 상관없이 시민들은 자신이 실제 수준보다 더 못산다고 느끼고 있음

○ 경제적 부담

- 최근 2년간 경제적 부담을 느낀 항목으로는 '주거비(12.9%)'가 가장 컸으며, '저축연금투자(2.6%)'에 대한 부담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6〉 경제적 부담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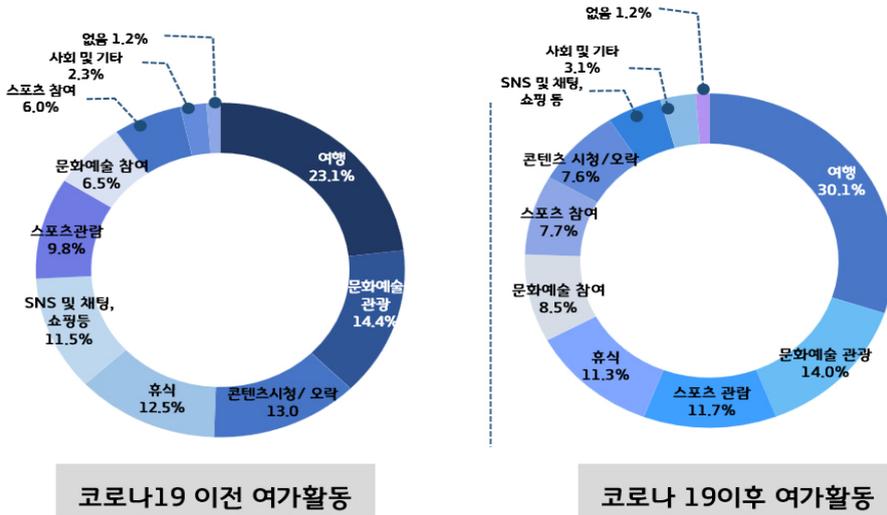
- 향후(2년 후), 더욱 늘어 날 것 같은 경제적 부담항목으로 ‘주거비(12.2%)’를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비(2.6%)’ 항목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 조사결과, 시민들은 주거비에 대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임차가구 혹은 소유주의 여부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남
- 향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거 격차 해소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함

■ 문화·여가

○ 코로나 이전/이후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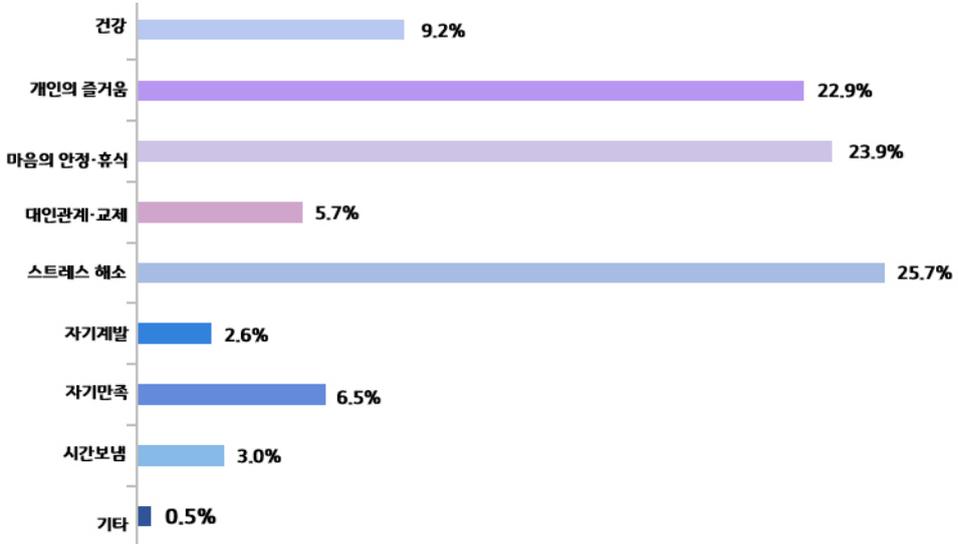
- 코로나 19 이전에 즐겼던 여가생활로는 ‘여행(2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관광(14.4%)’, ‘콘텐츠 시청/오락(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 이후, 즐기고 싶은 여가생활로는 ‘여행(30.1%)’을 꼽았으며, ‘문화예술 관광(14.0%)’, ‘스포츠 관광(11.7%)’ 등의 순으로 응답

〈그림 4-27〉 코로나19 이전/이후 여가활동



- 분석결과, 코로나 19 이전의 여가 생활은 ‘여행’이 주를 이루었고, 코로나 19 이후에는 그 욕구가 7p% 증가
- 코로나 19 이전의 주요 여가생활을 ‘휴식’으로 선택했던 응답자 중에 코로나 19 이후에도 ‘휴식’을 선택한 응답자는 1.2%p 감소하였음
-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집에서 여가를 보냈던 시민들은 코로나 19 이후 야외활동을 원하는 결과로 보임
- 여가활동의 목적
 - 현재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스트레스 해소’ 25.7%, ‘마음의 안정 ·휴식’ 23.9%, ‘개인의 즐거움’ 22.9%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그 외 ‘건강’ 9.2%, ‘자기만족’ 6.5%, ‘대인관계·교제’ 5.7%, ‘시간 보냄’ 3.0%, ‘자기계발’ 2.6%, ‘기타’ 0.5% 등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4-28〉 여가활동의 목적



- 분석 결과, 현재 시민들은 스트레스, 마음안정·휴식, 개인의 즐거움 등을 위해 여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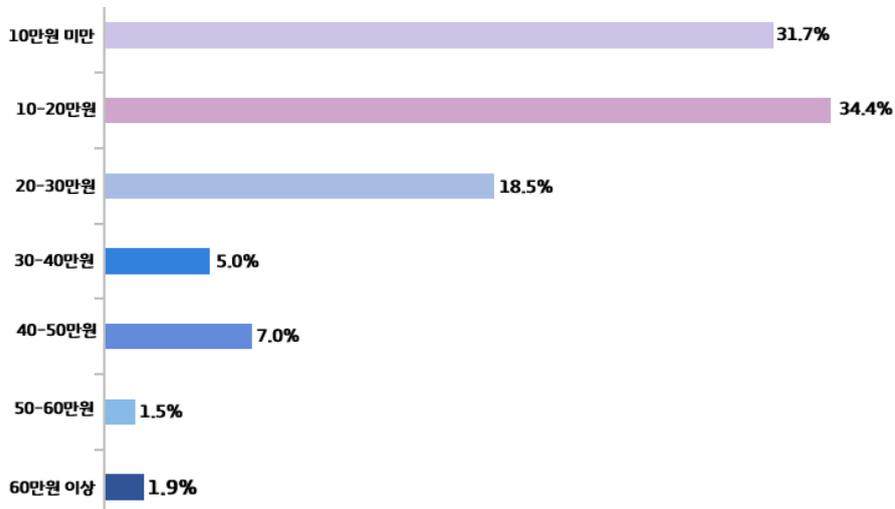
〈표 4-24〉 여가활동의 주된 목적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께서 여가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강		개인의 즐거움		마음의 안정·휴식		대인관계·교제		스트레스 해소		자기계발		자기만족		시간보냄		기타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08	9.2	267	22.9	279	23.9	67	5.7	300	25.7	30	2.6	76	6.5	35	3.0	6	0.5	
성별	남성	59	10.6	130	23.4	129	23.2	37	6.7	139	25.0	15	2.7	31	5.6	14	2.5	2	0.4
	여성	49	5.0	137	22.4	150	24.5	30	4.9	161	26.3	15	2.5	45	7.4	21	3.4	4	0.7
연령	20대	9	3.6	83	32.9	36	14.3	19	7.5	62	24.6	5	2.0	25	9.9	11	4.4	2	0.8
	30대	13	5.2	69	27.6	56	22.4	9	3.6	83	3.6	7	2.8	8	3.2	5	2.0	0	0
	40대	21	7.5	63	22.5	72	25.7	17	6.1	71	25.4	9	3.2	19	6.8	7	2.5	1	0.4
	50대	37	15.7	31	13.1	73	30.9	13	5.5	55	23.3	4	1.7	15	6.4	6	2.5	2	0.8
	60대	28	18.7	21	14.0	42	28.0	9	6.0	29	19.3	5	3.3	9	6.0	6	4.0	1	0.7
거주 지역	장안구	34	11.0	64	20.6	65	21.0	23	7.4	81	26.1	6	1.9	23	7.4	13	4.2	1	0.3
	권선구	33	10.1	78	23.8	85	25.9	21	6.4	73	22.3	8	2.4	20	6.1	7	2.1	3	0.9

	팔달구	13	7.6	37	21.5	41	23.8	5	2.9	54	31.4	2	1.2	14	8.1	5	2.9	1	0.6
	영통구	28	7.8	88	24.6	18	5.0	92	25.7	92	25.7	14	3.9	19	5.3	10	2.8	1	0.3
결혼	미혼	20	4.5	137	30.6	75	16.7	32	7.1	123	27.5	11	2.5	35	7.8	13	2.9	2	0.4
	기혼	81	12.0	124	18.4	190	28.2	33	4.9	168	24.9	17	2.5	38	5.6	20	3.0	3	0.4

- 여가 목적 조사 결과, 미혼 응답자는 ‘개인의 즐거움(30.6%)’, 기혼 응답자는 ‘마음의 안정·휴식(28.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가생활 지출 금액
 - 월 평균 여가생활 지출 금액은 ‘10-20만원(34.4%)’, ‘10만원 미만(31.7%)’, ‘20-30만원(18.5%)’, ‘40-50만원(7.0%)’, ‘30-40만원(5.0%)’, ‘60만원 이상(1.9%)’, ‘50-60만원(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9〉 월 평균 여가·문화생활 지출 금액



- 조사 결과, 66.1%의 응답자는 여가 비용으로 10-2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워라밸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분석

〈표 4-25〉 월 평균 여가·문화생활 지출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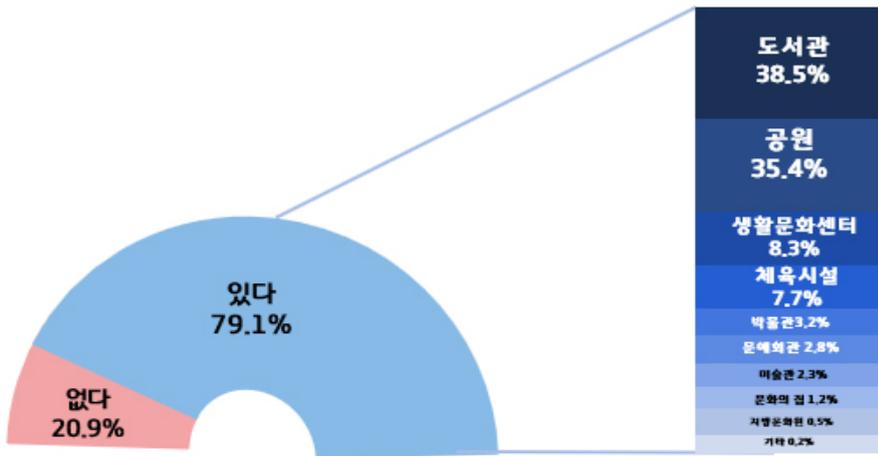
구분		귀하께서는 월 평균 여가·문화생활에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10만원 미만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60만원		60만원 이상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85	31.7	201	34.4	108	18.5	29	5.0	41	7.0	9	1.5	11	1.9
성별	남성	66	23.7	96	34.5	58	20.9	17	6.1	29	10.4	6	2.2	6	2.2
	여성	119	38.9	105	34.3	50	16.3	12	3.9	12	3.9	3	1.0	5	1.6
연령	20대	49	38.9	49	38.9	16	12.7	6	4.8	5	4.0	1	0.8	0	0
	30대	34	27.2	39	31.2	30	24.0	7	5.6	9	7.2	4	3.2	2	1.6
	40대	43	30.7	44	31.4	26	18.6	7	5.0	15	10.7	0	0	5	3.6
	50대	39	33.1	46	39.0	17	14.4	4	3.4	8	6.8	2	1.7	2	1.7
	60대	20	26.7	23	30.7	19	25.3	5	6.7	4	5.3	2	2.7	2	2.7
거주 지역	장안구	52	33.5	55	35.5	24	15.5	7	4.5	13	8.4	2	1.3	2	1.3
	권선구	54	32.9	54	32.9	33	20.1	7	4.3	12	7.3	2	1.2	2	1.2
	팔달구	27	31.4	30	34.9	16	18.6	6	7.0	5	5.8	2	2.3	0	0
	영통구	52	29.1	62	34.6	35	19.6	9	5.0	11	6.1	3	1.7	7	3.9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5	64.1	10	25.6	2	5.1	1	2.6	1	2.6	0	0	0	0
	100-200만원	23	47.9	17	35.4	4	8.3	2	4.2	1	2.1	1	2.1	0	0
	200-300만원	28	30.1	34	36.6	21	22.6	2	2.2	4	4.3	2	2.2	2	2.2
	300-400만원	36	30.5	39	33.1	25	21.2	7	5.9	9	7.6	2	1.7	0	0
	400-500만원	30	31.3	34	35.4	14	14.6	9	9.4	6	6.3	2	2.1	1	1.0
	500만원 이상	43	22.6	67	35.3	42	22.1	8	4.2	20	10.5	2	1.1	8	4.2
직위	자영업주	3	3.6	9	40.9	9	40.9	0	0	1	4.5	0	0	0	0
	고용주	3	25.0	1	8.3	3	25.0	1	8.3	4	33.3	0	0	0	0
	무급가족종사자	1	50.0	1	50.0	0	0	0	0	0	0	0	0	0	0
	상용근로자	72	24.5	98	33.3	67	22.8	19	6.5	22	7.5	7	2.4	9	3.1
	임시근로자	3	15.0	12	60.	3	15.0	1	5.0	1	5.0	0	0	0	0
	일용직 근로자	2	15.4	7	53.8	2	15.4	1	7.7	0	0	0	0	1	7.7
	무직	81	50.0	48	29.6	16	9.9	7	4.3	9	5.6	0	0	1	0.6
결혼	미혼	80	35.7	74	33.0	40	17.9	14	6.3	10	4.5	3	1.3	3	1.3
	기혼	95	28.2	123	36.5	64	19.0	13	3.9	29	8.6	5	1.5	8	2.4
	이혼	6	37.5	3	18.8	3	18.8	2	12.5	1	6.3	1	6.3	0	0
	사별	4	57.1	1	14.3	1	14.3	0	0	1	14.3	0	0	0	0

- 월평균 여가·문화생활 비용 지출에 대해서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64.1%는 10만원 미만을 지출
- 가구소득 '100-200만원' 가구의 47.9%는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 '200-300만원' 구간의 36.6%, '300-400만원'의 33.1%, '400-500만원'의 35.4%, '500만원 이상'의 35.3%가 여가 비용으로 월 '10-20만원'을 지출한다고 응답함

○ 문화시설기반

-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주변에 문화 기반시설이 '있다'는 응답은 79.1%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20.9%로 나타남

〈그림 4-30〉 주택 주변 문화기반 시설 현황



- 문화기반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79.1%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서관' 38.5%, '공원' 35.4%, '생활문화센터' 8.3%, '체육시설' 7.7%, '박물관' 3.2%, '문예회관' 2.8%, '미술관' 2.3%, 문화의 집 1.2%, '지방문화원' 0.5%, '기타' 0.2%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시민들이 생활환경 내에서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시민 삶의 질적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쉽고 편리한 문화생활 접근성이 필요

〈표 4-26〉 여가활동 주요 장소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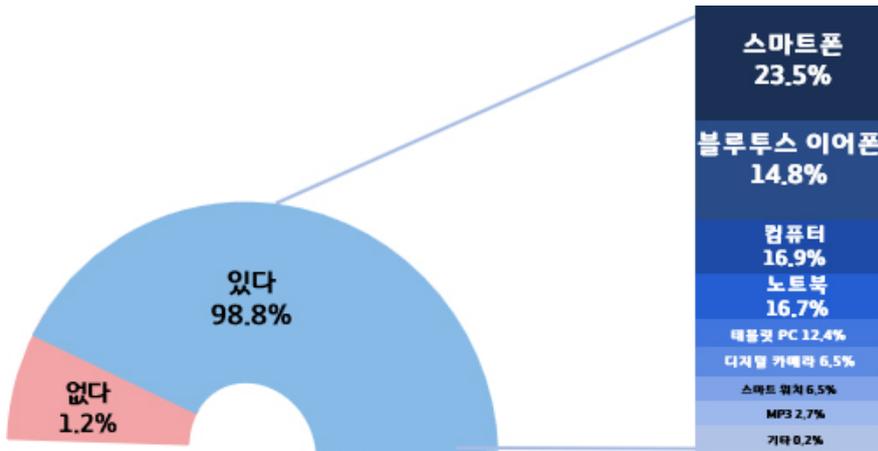
구분		귀하께서 여가활동을 하는 주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공원		체육시설		기타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330	38.5	27	3.2	20	2.3	71	8.3	24	2.8	4	0.5	10	1.2	303	35.4	66	7.7	2	0.2
성별	남성	149	37.1	15	3.7	8	2.0	36	9.0	13	3.2	4	1.0	5	1.2	135	33.6	35	8.7	2	0.5
	여성	181	39.8	12	2.6	12	2.6	35	7.7	11	2.4	0	0	5	1.1	168	36.9	31	6.8	0	0
연령	20대	76	43.7	5	2.9	7	4.0	13	7.5	2	1.1	0	0	4	2.3	56	32.2	11	6.3	0	0
	30대	60	37.3	5	3.1	1	0.6	13	8.1	4	2.5	1	0.6	1	0.6	58	36.0	16	9.9	2	1.2
	40대	88	41.3	6	2.8	4	1.9	17	8.0	6	2.8	2	0.9	3	1.4	74	34.7	13	6.1	0	0
	50대	63	35.2	11	6.1	4	2.2	11	6.1	8	4.5	0	0	2	1.1	63	35.2	17	9.5	0	0
	60대	43	33.1	0	0	4	3.1	17	13.1	4	3.1	1	0.8	0	0	52	40.0	9	6.9	0	0
거주지역	장안구	87	39.4	3	1.4	7	3.2	21	9.5	5	2.3	2	0.9	2	0.9	80	36.2	14	6.3	0	0
	권선구	88	39.6	4	1.8	7	3.2	23	10.4	4	1.8	1	0.5	3	1.4	74	33.3	17	7.7	1	0.5
	팔달구	49	37.4	4	3.1	36	2.3	9	6.9	4	3.1	0	0	1	0.8	43	32.8	17	13.0	1	0.8
	영통구	106	37.5	16	5.7	3	1.1	18	6.4	11	3.9	1	0.4	4	1.4	106	37.5	18	6.4	0	0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22	44.9	1	2.0	2	4.1	5	10.2	1	2.0	0	0	0	0	14	28.6	4	8.2	0	0
	100-200만원	27	40.9	0	0	4	6.1	7	10.6	1	1.5	0	0	2	3.0	23	34.8	2	3.0	0	0
	200-300만원	48	37.5	5	3.9	4	3.1	7	5.5	1	0.8	0	0	3	2.3	52	40.6	8	6.3	0	0
	300-400만원	71	37.4	6	3.2	3	1.6	25	13.2	7	3.7	0	0	2	1.1	60	31.6	15	7.9	1	0.5
	400-500만원	48	36.1	1	0.8	1	0.8	12	9.0	5	3.8	0	0	0	0	49	36.8	16	12.0	1	0.8
	500만원이상	114	39.2	14	4.8	6	2.1	15	5.2	9	3.1	4	1.4	3	1.0	105	36.1	21	7.2	0	0

-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44.9%, 100-200만원의 40.9%, 300-400만원의 37.4%, 500만원 이상의 39.2%는 문화생활로 ‘도서관 이용’을 꼽음
- 가구소득 200-300만원 구간의 40.6%, 400-500만원 구간의 36.8%는 ‘공원’ 이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자기기 이용

-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있다(98.8%)', '없다(1.2%)'로 응답함

〈그림 4-31〉 이용 가능한 전자 기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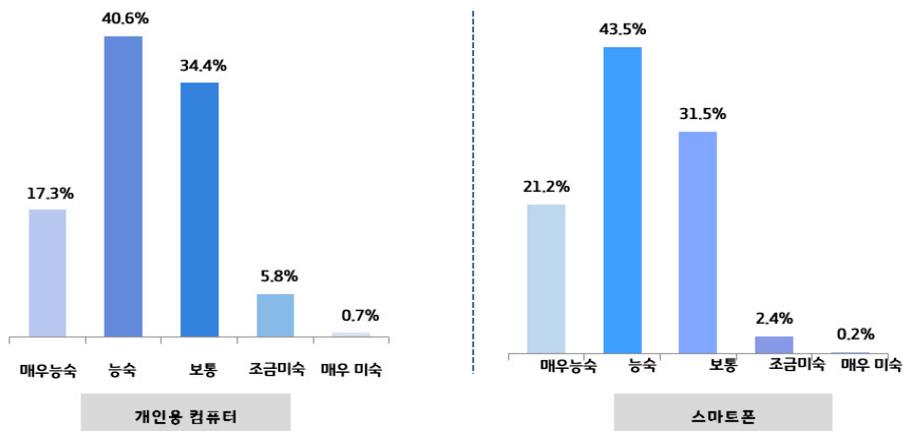
- 이용 가능한 전자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98.8%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전자기기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이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블루투스 이어폰' 14.8%, '컴퓨터' 16.9%, '노트북' 16.7%, '태블릿 PC' 12.4%, '디지털 카메라' 6.5%, '스마트워치' 6.5%, 'MP3플레이어' 2.7%, '기타' 0.2%로 나타남
- 현재 스마트기기가 빠르게 일반화하면서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영역이 존재 할 것으로 판단
-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높아지며, 기기 간의 네트워크 연결은 노인들에게 '디지털 소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표 4-27〉 전자기기 이용 종류 응답자별 특성

구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종류입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mp3		디지털 카메라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노트북		스마트 워치		기타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363	16.9	506	23.5	58	2.7	140	6.5	266	12.4	378	14.8	356	16.7	139	6.5	4	0.2
성별	남성	203	17.4	263	22.5	38	3.3	78	6.7	142	12.1	180	15.4	185	15.8	78	6.7	2	0.2
	여성	203	16.5	298	24.2	33	2.7	81	6.6	158	12.8	169	13.7	213	17.3	76	6.2	2	0.2
연령	20대	80	14.9	124	23.1	16	3.0	28	5.2	73	13.6	83	15.5	90	16.8	40	7.4	3	0.6
	30대	82	16.1	118	23.1	12	2.4	33	6.5	65	12.7	81	15.9	80	15.7	39	7.6	0	0
	40대	97	16.0	138	22.7	19	3.1	45	7.4	80	13.2	87	14.3	104	17.1	38	6.3	0	0
	50대	91	19.4	110	23.5	15	3.2	31	6.6	58	12.4	62	13.2	78	16.6	24	5.1	0	0
	60대	56	20.1	71	25.5	9	3.2	22	7.9	24	8.6	36	12.9	46	16.5	13	4.7	1	0.4
거주 지역	권선구	110	16.0	156	22.7	26	3.8	51	7.4	80	11.6	100	14.5	114	16.6	49	7.1	2	0.3
	장안구	114	19.8	147	25.5	13	2.3	32	6.1	65	11.3	81	14.1	91	15.8	28	4.9	2	0.3
	팔달구	60	17.5	84	24.5	11	3.2	16	4.7	47	13.7	49	14.3	51	14.9	25	7.3	0	0
	영통구	122	15.3	174	21.9	21	2.6	57	7.2	108	13.6	119	15.0	142	17.9	52	6.5	0	0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5	17.4	36	25.0	5	3.5	10	6.9	19	13.2	19	13.2	25	17.4	4	2.8	1	0.7
	100~200만원	31	19.9	44	28.2	6	3.8	7	4.5	18	11.5	22	14.1	18	11.5	9	5.8	1	0.6
	200~300만원	59	16.3	87	24.1	13	3.6	24	6.6	42	11.6	55	15.2	57	15.8	24	6.6	0	0
	300~400만원	82	17.5	116	24.7	10	2.1	28	6.0	57	12.2	65	13.9	77	16.4	30	7.0	1	0.2
	400~500만원	69	17.4	92	23.2	12	3.0	25	2.9	50	12.6	57	14.4	66	16.6	26	6.5	0	0
	500만원 이상	140	16.1	186	21.3	25	2.9	65	7.4	114	13.0	131	15.0	155	17.7	58	6.6	1	0.1
학력	중졸이하	3	18.8	4	25.0	1	6.3	1	6.3	1	6.3	2	12.5	2	12.5	2	12.5	5	0
	고졸	89	18.5	123	25.6	15	3.1	21	4.4	54	11.3	74	15.4	77	16.0	25	5.2	2	0.4
	전문대졸	51	17.6	75	25.9	11	3.8	14	4.8	33	11.4	38	13.1	47	16.2	20	6.9	1	0.3
	대졸	216	16.3	295	22.2	34	2.6	103	7.8	170	12.8	195	14.7	221	16.7	92	6.9	1	0.1
	대학원 이상	47	16.3	64	22.1	10	3.5	20	6.9	42	14.5	40	13.8	51	17.6	15	5.2	0	0
결혼	미혼	145	15.5	216	23.1	34	3.6	54	5.8	118	12.6	143	15.3	151	16.2	70	7.5	3	0.3
	기혼	245	17.7	323	23.4	35	2.5	98	7.1	171	12.4	196	14.2	234	16.9	79	5.4	1	0.1

- 학력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이용 가능한 전자기기의 종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자기기 활용 능력
 - 개인용 컴퓨터(PC)의 활용능력을 조사한 결과, 57.9%의 응답자가 '컴퓨터 사용에 능숙하다'고 응답 하였으며 6.5%의 응답자는 '미숙하다'고 응답
 - 스마트폰 활용능력에 대해서는 64.7%의 응답자가 '능숙하게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6%의 응답자는 '미숙하다'고 응답

〈그림 4-32〉 전자기기 활용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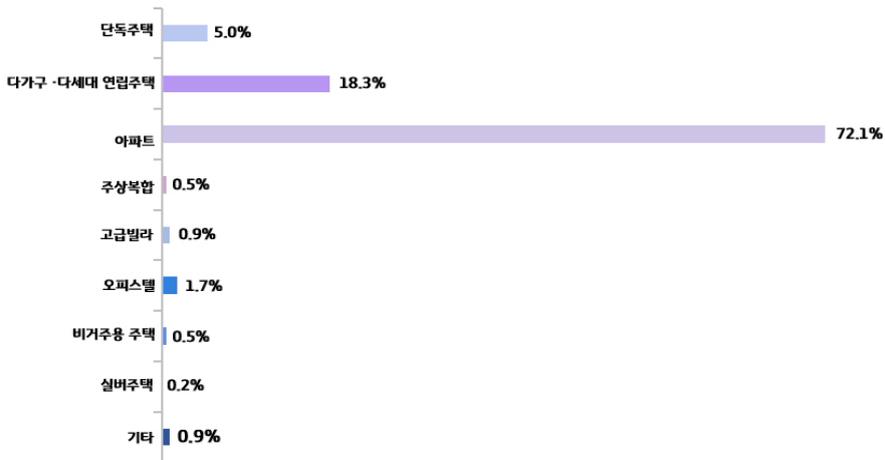
-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 보다 스마트폰을 더 능숙하게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주거기반

○ 주거형태

- 주거형태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7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뒤를 이어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18.3%, ‘단독주택’ 5.0%, ‘오피스텔’ 1.7%, ‘고급빌라’ 0.9%, ‘기타’ 0.9%, ‘주상복합’ 0.5%, ‘비거주용 주택’ 0.5%, ‘실버주택’ 0.5%, ‘실버주택’ 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3〉 주거 형태



- 아파트는 방법, 안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과 더불어, 향후 임대도 용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4-28〉 주거 형태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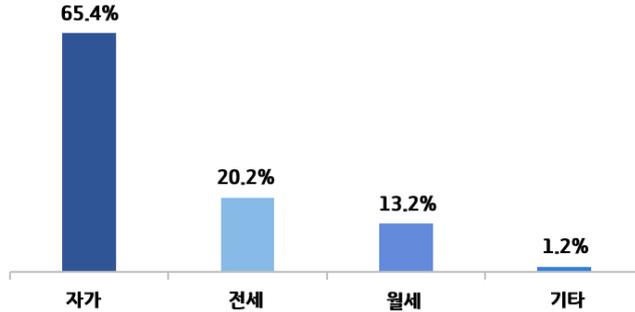
구분		귀하께서는 현재 살고 계신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단독주택		다가구·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고급빌라		오피스텔		비주거용 주택		실버주택		기타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29	5.0	107	18.3	421	72.1	3	0.5	5	0.9	10	1.7	3	0.5	1	0.2	5	0.9
성별	남성	14	5.0	54	19.4	203	73.0	1	0.4	1	0.4	3	1.1	1	0.4	1	0.4	0	0
	여성	15	4.9	53	17.3	218	71.2	2	0.7	4	1.3	7	2.3	2	0.7	0	0	5	1.6
연령	20대	5	4.0	26	20.6	80	63.5	2	1.6	3	2.4	4	3.2	2	1.6	0	0	4	3.2
	30대	7	5.6	34	27.2	75	60.0	0	0	2	1.6	5	4.0	0	0	1	0.8	1	0.8
	40대	8	5.7	25	17.9	105	75.0	1	0.7	0	0	1	0.7	0	0	0	0	0	0
	50대	4	3.4	12	10.2	101	85.6	0	0	0	0	0	0	1	0.8	0	0	0	0
	60대	5	6.7	10	13.3	60	80.0	0	0	0	0	0	0	0	0	0	0	0	0
거주 지역	장안구	8	5.2	33	21.3	107	69.0	0	0	2	1.3	1	0.6	2	1.3	0	0	2	1.3
	권선구	8	4.9	38	23.2	112	68.3	0	0	1	0.6	1	0.6	1	0.6	1	0.6	2	1.2
	팔달구	10	11.6	18	20.9	50	58.1	3	3.5	1	1.2	3	3.5	0	0	0	0	1	1.2
	영통구	3	1.7	18	10.1	152	84.9	0	0	1	0.6	5	2.8	0	0	0	0	0	0
가구 소득	100만원미만	3	7.7	10	25.6	22	56.4	1	2.6	1	2.6	0	0	0	0	0	0	2	5.1
	100-200만원	6	12.5	19	39.6	19	39.6	0	0	1	2.1	1	2.1	1	2.1	0	0	1	2.1
	200-300만원	3	3.2	27	29.0	56	60.2	0	0	2	2.2	3	3.2	1	1.1	0	0	1	1.1
	300-400만원	8	6.8	20	16.9	86	72.9	1	0.8	0	0	3	2.5	0	0	0	0	0	0
	400-500만원	5	5.2	12	12.5	74	77.1	1	1.0	0	0	2	2.1	1	1.0	1	1.0	0	0
500만원이상	4	2.1	19	10.0	164	86.3	0	0	1	0.5	1	0.5	0	0	0	0	1	0.5	
가구	1인 가구	2	2.6	39	50.0	20	25.6	3	3.8	3	3.8	8	10.3	0	0	0	0	3	3.8
	2인 가구	5	5.0	23	22.8	71	70.3	0	0	0	0	2	2.0	0	0	0	0	0	0
	3인 가구	7	5.0	19	13.5	114	80.9	0	0	0	0	0	0	1	0.7	0	0	0	0
	4인 가구	11	4.9	19	8.4	190	84.1	0	0	1	0.4	0	0	2	0.9	1	0.4	2	0.9
	5인 가구 이상	4	10.5	7	18.4	26	68.4	0	0	1	2.6	0	0	0	0	0	0	0	0
결혼	미혼	12	5.4	61	27.2	127	56.7	3	1.3	5	2.2	9	4.0	2	0.9	0	0	5	2.2
	기혼	16	4.7	32	9.5	286	84.9	0	0	0	0	1	0.3	1	0.3	1	0.3	0	0
	별거	-	-	-	-	-	-	-	-	-	-	-	-	-	-	-	-	-	-
	이혼	1	6.3	10	62.5	5	31.3	0	0	0	0	0	0	0	0	0	0	0	0
	사별	0	0	4	57.1	3	42.9	0	0	0	0	0	0	0	0	0	0	0	0
자녀	있음	14	4.4	35	11.1	265	83.9	0	0	0	0	0	0	1	0.3	1	0.3	0	0
	없음	15	5.6	72	26.9	156	58.2	3	1.1	5	1.9	10	3.7	2	0.7	0	0	5	1.9

-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50.0%는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2인 가구의 70.3%는 '아파트', 3인 가구의 80.9%는 '아파트', 4인 가구의 84.1%는 '아파트', 5인 가구 이상의 68.4%는 '아파트'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유 형태

- 주택 소유 형태로는 '자가(65.4%)'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전세(20.2%)', '월세(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로는 '빌라', '원룸' 등이 있었음

〈그림 4-34〉 소유 형태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자가 보유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는 자가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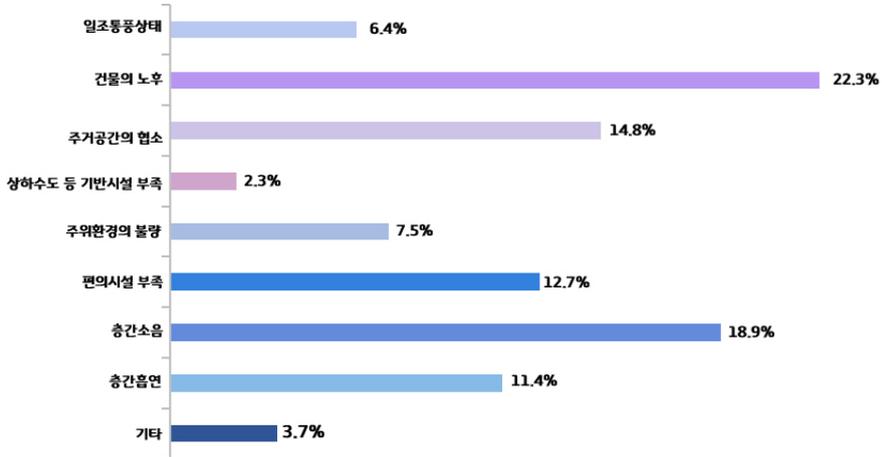
〈표 4-29〉 소유 형태 응답자별 특성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자가		전세		월세		기타	
		N	%	N	%	N	%	N	%
전체		382	65.4	118	20.2	77	13.2	7	1.2
성별	남성	181	65.0	56	20.1	37	13.3	4	1.4
	여성	201	65.7	62	20.3	40	13.1	3	1.0
연령	20대	73	57.9	32	25.4	20	15.9	1	0.8
	30대	57	45.6	39	31.2	27	21.6	2	1.6
	40대	98	70.0	28	20.0	14	10.0	0	0
	50대	93	78.8	14	11.9	10	8.5	1	0.8
	60대	61	81.3	5	6.7	6	8.0	3	4.0
거주 지역	장안구	113	72.9	23	14.8	16	10.3	3	1.9
	권선구	105	64.0	35	21.3	23	14.0	1	0.6
	팔달구	47	54.7	19	22.1	19	22.1	1	1.2
	영동구	117	65.4	41	22.9	19	10.6	2	1.1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7	43.6	14	35.9	7	17.9	1	2.6
	100-200만원	21	43.8	11	22.9	16	33.3	0	0
	200-300만원	50	53.8	23	24.7	18	19.4	2	2.2
	300-400만원	81	68.6	24	20.3	12	10.2	1	0.8
	400-500만원	73	76.0	13	13.5	10	10.4	0	0
가구	500만원 이상	140	73.7	33	17.4	14	7.4	3	1.6
가구	1인 가구	18	23.1	31	39.7	29	37.2	0	0

	2인 가구	61	60.4	26	25.7	12	11.9	2	2.0
	3인 가구	104	73.8	25	17.7	10	7.1	2	1.4
	4인 가구	171	75.7	32	14.2	20	8.8	3	1.3
	5인 가구 이상	28	73.7	4	10.5	6	15.8	0	0
결혼	미혼	119	531	57	25.4	45	20.1	3	1.3
	기혼	252	74.8	55	16.3	26	7.7	4	1.2
	별거	-	-	-	-	-	-	-	-
	이혼	7	43.8	5	31.3	4	25.0	0	0
	사별	4	57.1	1	14.3	2	28.6	0	0
자녀	있음	241	76.3	43	13.6	28	8.9	4	1.3
	없음	141	52.6	75	28.0	49	18.3	3	1.1
직위	자영업주	14	63.6	3	13.6	4	18.2	1	4.5
	고용주	8	66.7	3	25.0	0	0	1	8.3
	무급가족종사자	1	50.0	1	50.0	0	0	0	0
	상용근로자	195	66.3	65	22.1	32	10.9	2	0.7
	임시근로자	10	50.0	3	15.0	7	35.0	0	0
	일용직 근로자	9	69.2	4	30.8	0	0	0	0
	무직	115	71.0	25	15.4	20	12.3	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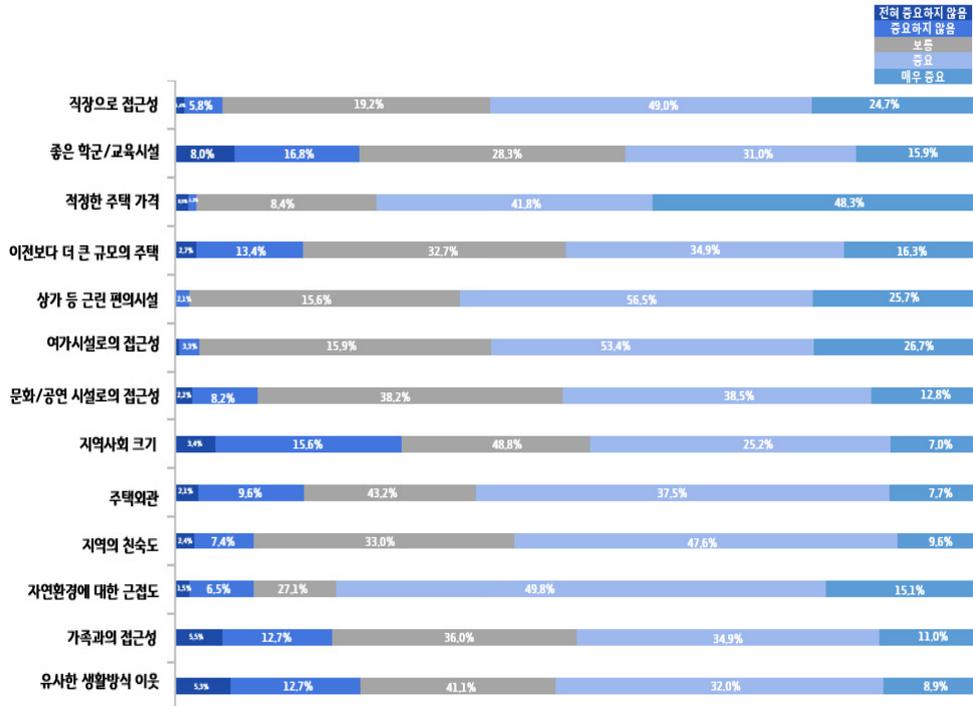
- 가구형태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전세' 비율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의 가구에서는 '자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생활의 문제
 - 현재 거주 공간의 문제점으로는 '건물의 노후 문제(22.3%)'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 '층간소음' 18.9%, '주거공간의 협소' 14.8%, '편의시설 부족' 12.7%, '층간흡연' 11.4%, '주위환경 불량' 7.5%, '일조통풍상태' 6.4%, '기타' 3.7%,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2.3% 순으로 나타남
 - 기타로는 '1층이라 불편', '대중교통이 불편', '소음', '입주민 성향', '주변 분리수거', '부모와의 갈등', '골목이 어두움', '주차 문제' 등이 있었음

〈그림 4-35〉 주거생활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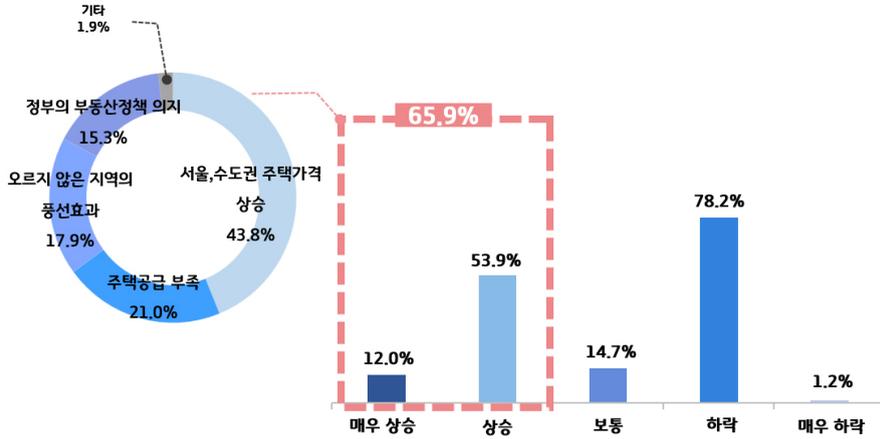
- 주거 생활에 있어 노후건물은 녹물이 나오거나, 누수현상, 안전관리 등의 심각성을 지니고 있었음
- 아파트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층간 소음’, ‘층간 흡연’ 등 다세대 주택의 문제가 주거 문제의 전면에 등장
- 주거지 이동시 고려항목
 -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면, 새로운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적정한 주택 가격’ 90.1%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역사회커뮤니티’의 중요도는 32.2%로 가장 낮음
 - 그 다음으로 ‘상가 등 근린 편의시설’ 82.2%, ‘여가시설로의 접근성’ 80.1%, ‘직주근접’ 73.1%, ‘자연에 대한 친숙도’ 57.1%, ‘문화/공연시설로의 접근성’ 51.3%,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주택’ 51.2%, ‘좋은학군/교육시설’ 46.9%, ‘가족들 또는 친지들로의 접근성’ 45.9%, ‘주택외관’ 45.2%, 유사한 생활방식을 가진 이웃’ 4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6〉 주거지 이동시 고려항목



- 거주 공간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다음으로 공원과 같은 주변 시설 등이 중요 요소라고 응답
- 향후 주택가격 상승 및 이유
 -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65.9%가 '상승한다'고 응답
 - 상승한다고 응답한 65.9%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43.8%, '주택공급 부족' 21.0%,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의 풍선효과' 17.9%,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의지' 15.3%, '기타' 1.9%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상승세를 예측함

〈그림 4-37〉 향후 주택가격 상승 및 이유



-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주택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측

〈표 4-30〉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자별 특성

구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주택의 공급 부족 심화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의 풍선효과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정책 의지		기타	
		N	%	N	%	N	%	N	%	N	%
전체		337	43.8	162	21.0	138	17.9	118	15.3	15	1.9
성별	남성	144	41.6	68	19.7	70	20.2	54	15.6	10	2.9
	여성	193	45.5	94	22.2	68	16.0	64	15.1	5	1.2
연령	20대	81	42.6	38	20.0	30	15.8	34	17.9	7	3.7
	30대	85	46.2	38	20.7	28	15.2	30	16.3	3	1.6
	40대	81	41.8	47	24.2	37	19.1	25	12.9	4	2.1
	50대	59	44.7	24	18.2	31	23.5	17	12.9	1	0.8
	60대	31	44.3	15	21.4	12	17.1	12	17.1	0	0
거주 지역	장안구	89	45.4	43	21.9	36	18.4	22	11.2	6	3.1
	권선구	92	42.2	41	18.8	42	19.3	39	17.9	4	1.8
	팔달구	47	42.7	24	21.8	21	19.1	17	15.5	1	0.9
	영통구	109	44.3	54	22.0	39	15.9	40	16.3	4	1.6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	39.6	8	16.7	14	29.2	5	10.4	2	4.2
	100-200만원	26	48.1	7	13.0	12	22.2	9	16.7	0	0
	200-300만원	65	44.5	26	17.8	22	15.1	31	21.2	2	1.4
	300-400만원	70	43.8	29	18.1	29	18.1	31	19.4	1	0.6
	400-500만원	53	44.2	24	20.0	24	20.0	17	14.2	2	1.7
500만원 이상	104	43.0	68	28.1	37	15.3	25	10.3	8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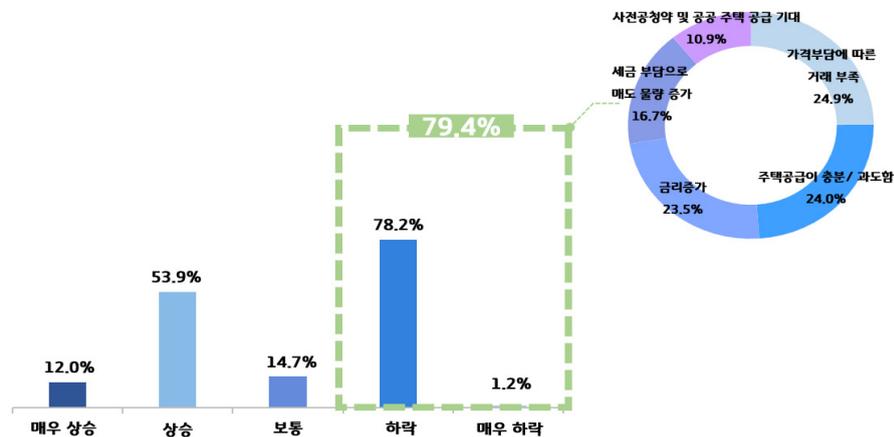
직업	농/임/어업	2	50.0	1	25.0	1	25.0	0	0	0	0
	공무원/공기업	16	44.4	10	27.8	4	11.1	3	8.3	3	8.3
	교사/학원강사	8	50.0	4	25.0	4	25.0	3	8.3	3	8.3
	자영업	9	34.6	8	30.8	5	19.2	4	15.4	0	0
	일반기업	130	42.2	66	21.4	56	18.2	51	16.6	5	1.6
	전문직	29	48.3	14	23.3	10	16.7	7	11.7	0	0
	프리랜서/자유직	31	43.1	12	16.7	12	16.7	16	22.2	1	1.4
	전업주부	54	45.8	23	19.5	23	19.5	18	15.3	0	0
	학생/무직/기타	58	44.6	24	18.5	23	17.7	19	14.6	6	4.6
혼인	미혼	143	44.4	67	20.8	57	17.7	47	14.6	8	2.5
	기혼	182	43.1	90	21.3	77	18.2	66	15.6	7	1.7
	별거	-	-	-	-	-	-	-	-	-	-
	이혼	-	-	-	-	-	-	-	-	-	-
	사별	-	-	-	-	-	-	-	-	-	-

-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관계성을 볼 때,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요인별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주택가격 하락 이유

-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9.4%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

〈그림 4-38〉 향후 주택가격 하락 및 이유



- 하락한다고 응답한 79.4%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격부담에 따른 거래 부족’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주택공급이 충분, 과도함’ 24.0%, ‘금리증가’ 23.5%, ‘세금부담으로 매도 물량 증가’ 16.7%, ‘사전청약 및 공공 주택 공급 기대’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31〉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응답자별 특성

구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공급이 충분하거나 과도해서		세금부담으로 매도물량 증가		가격부담에 따른 거래 부족		금리 증가		사전청약 및 공공 주택 공급 기대		기타	
		N	%	N	%	N	%	N	%	N	%	N	%
전체		53	24.0	37	16.7	55	24.9	52	23.5	24	10.9	-	-
성별	남성	30	24.4	17	13.8	30	24.4	33	26.8	13	10.6	-	-
	여성	23	23.5	20	20.4	25	25.5	19	19.4	11	11.2	-	-
연령	20대	10	31.3	6	18.8	6	18.8	6	18.8	4	12.5	-	-
	30대	6	15.0	4	10.0	10	25.0	14	35.0	6	15.0	-	-
	40대	11	23.4	4	8.5	13	27.7	9	19.1	10	21.3	-	-
	50대	13	25.0	9	17.3	14	26.9	12	23.1	4	7.7	-	-
	60대	13	26.0	14	28.0	12	24.0	11	22.0	0	0	-	-
거주 지역	장안구	17	27.0	8	12.7	19	30.2	13	20.6	6	9.5	-	-
	권선구	15	26.3	11	19.3	10	17.5	13	22.8	8	14.0	-	-
	팔달구	6	16.7	7	19.4	12	33.3	9	25.0	2	5.6	-	-
	영통구	15	23.1	11	16.9	14	21.5	17	26.2	8	12.3	-	-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	21.4	3	21.4	3	21.4	2	14.3	3	21.4	-	-
	100-200만원	3	21.4	4	28.6	3	21.4	3	21.4	1	7.1	-	-
	200-300만원	6	26.1	4	17.4	6	26.1	5	21.7	2	8.7	-	-
	300-400만원	8	18.6	7	16.3	10	23.3	13	30.2	5	11.6	-	-
	400-500만원	13	30.2	5	11.6	7	16.3	12	27.9	6	14.0	-	-
500만원 이상	20	23.8	14	16.7	26	31.0	17	20.2	7	8.3	-	-	
직업	농/임/어업	-	-	-	-	-	-	-	-	-	-	-	-
	공무원/공기업	2	25.0	2	25.0	1	12.5	1	12.5	2	25.0	-	-
	교사/학원강사	3	33.3	2	22.2	2	22.2	0	0	2	22.2	-	-
	자영업	0	0	2	18.2	6	54.5	2	18.2	1	9.1	-	-
	일반기업	18	21.4	12	14.3	22	26.2	24	28.6	8	9.5	-	-
	전문직	3	21.4	2	14.3	4	28.6	3	21.4	2	14.3	-	-
	프리랜서/자유직	5	21.7	4	17.4	5	21.7	8	34.8	1	4.3	-	-
	전업주부	9	22.5	7	17.5	10	25.0	8	20.0	6	15.0	-	-
학생/무직/기타	13	40.6	6	18.8	5	15.6	6	18.8	2	6.3	-	-	
혼인	미혼	16	24.2	10	15.2	15	22.7	17	25.8	8	12.1	-	-
	기혼	33	23.1	25	17.5	36	25.2	34	23.8	15	10.5	-	-
	별거	-	-	-	-	-	-	-	-	-	-	-	-
	이혼	-	-	-	-	-	-	-	-	-	-	-	-
	사별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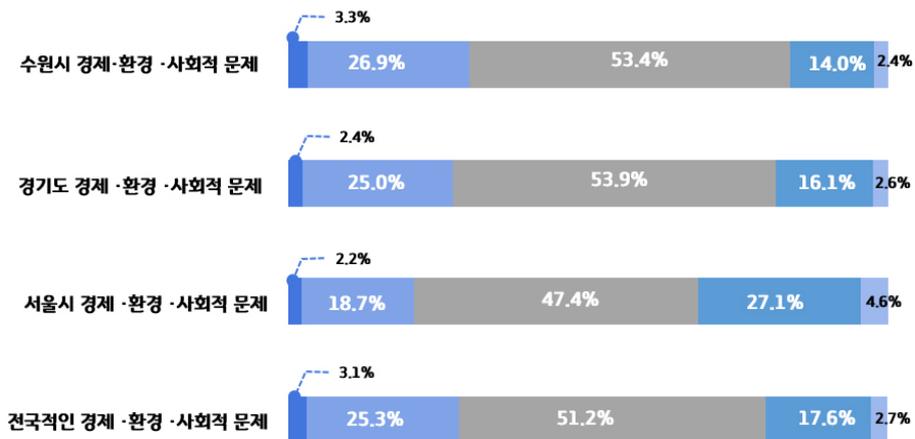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24.4%는 ‘주택이 충분하거나 과도해서’, 여성의 16.7%는 ‘가격부담에 따른 거래부족’이어서라고 응답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생활환경

○ 경제·환경·사회적 문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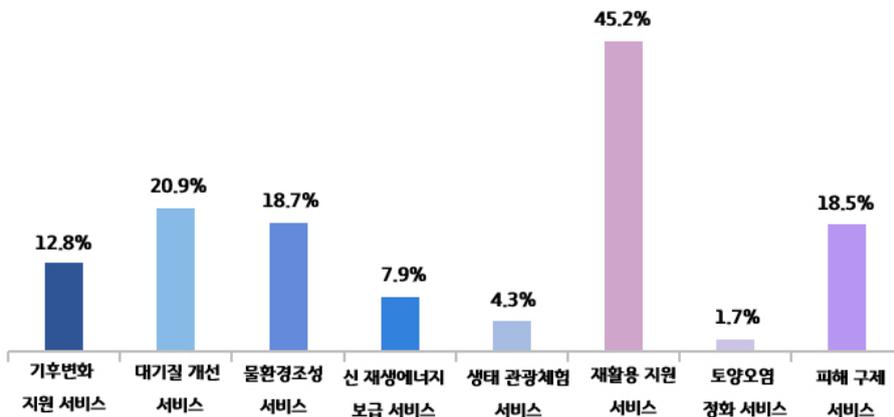
- 경제·환경·사회적 문제에 대해 수원시, 경기도, 서울시, 전국의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수원시'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다'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전국' 28.4%, '경기도' 27.4%, '서울시' 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9〉 경제·환경·사회적 문제 관심도



- 수원시민들의 관심 대상은 수원시에만 국한하지 않았으며, 전국, 경기도, 서울시에 대한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그림 4-40〉 환경서비스 선호도



-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환경서비스 중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로는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지원 서비스(45.2%)’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양의 질 유지 및 토양오염 정화서비스(1.7%)’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그 외 ‘대기질 개선서비스’ 20.9%, ‘물 환경조성 서비스’ 18.7%,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국민건강 보호 피해 구제 서비스’ 18.5%, ‘기후정보제공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서비스’ 12.8%, ‘신재생에너지 보급 서비스’ 7.9%, ‘생물다양성 유지 및 생태 관광·체험·서비스’ 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민들은 환경오염·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쓰레기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지원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표 4-32〉 환경서비스 우선 필요 응답자별 특성

구분	아래의 환경서비스 중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기후정보 제공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 서비스		깨끗한 대기질 개선 서비스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및 건강한 물환경 조성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서비스		생물 다양성 유지 및 생태 관광·체험 서비스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지원 서비스		토양질 유지 및 토양오염 정화 서비스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국민건강 보호, 피해구제 서비스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224	12.8	367	20.9	328	18.7	138	7.9	75	4.3	267	45.2	29	1.7	324	18.5	
성별	남성	96	11.5	172	20.6	149	17.9	72	8.6	43	5.2	119	14.3	22	2.6	161	19.3
	여성	128	13.9	195	21.2	179	19.5	66	7.2	32	3.5	148	16.1	7	0.8	163	17.8
연령	20대	51	13.5	72	19.0	63	16.7	34	9.0	20	5.3	57	15.1	8	2.1	73	19.3
	30대	55	14.7	77	20.5	68	18.1	39	10.4	15	4.0	60	16.0	4	1.1	57	15.2
	40대	45	10.7	85	20.0	82	19.5	31	7.4	15	3.6	71	16.9	8	1.9	83	19.8
	50대	46	13.0	83	23.4	68	19.2	25	7.1	15	3.6	35	9.9	7	2.0	75	21.2
	60대	27	12.0	50	22.2	47	20.9	9	4.0	10	4.4	44	19.6	2	0.9	36	16.0
거주 지역	장안구	56	12.0	99	21.3	87	18.7	39	8.4	31	6.7	64	13.8	10	2.2	79	17.0
	권선구	56	11.4	102	20.7	88	17.9	42	8.5	16	3.3	84	17.1	9	1.8	95	19.3
	팔달구	37	14.3	45	17.4	55	21.3	20	7.8	8	3.1	40	15.5	2	0.8	51	19.8
	영통구	75	14.0	121	22.5	98	18.2	37	6.9	20	3.7	79	14.7	8	1.5	99	18.4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6	13.7	21	17.9	23	19.7	14	12.0	5	4.3	19	16.2	1	0.9	18	15.4
	100-200만원	20	13.9	28	19.4	22	15.3	11	7.6	6	4.2	28	19.4	2	1.4	27	18.8
	200-300만원	41	14.7	58	20.8	48	17.2	16	5.7	15	5.4	46	16.5	5	1.8	50	17.9
	300-400만원	45	12.7	70	19.8	79	20.6	29	8.2	17	4.8	50	14.1	7	2.0	63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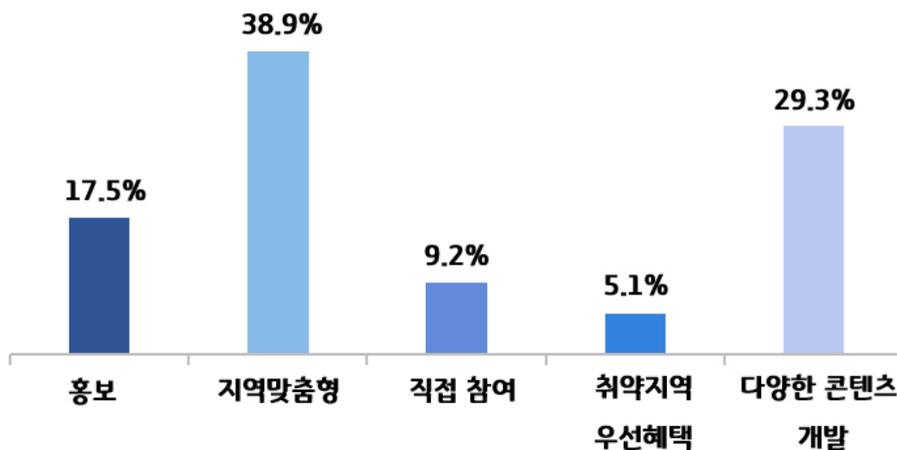
	400-500만원	27	9.4	58	20.1	55	19.1	25	8.7	14	4.9	49	17.0	3	1.0	57	19.8
	500만원 이상	75	13.2	132	23.2	107	18.8	43	7.5	18	3.2	75	13.2	11	1.9	109	19.1
직위	자영업주	3	4.5	16	24.2	14	21.2	6	9.1	1	1.5	12	18.2	3	4.5	11	16.7
	고용주	6	16.7	6	16.7	3	8.3	3	8.3	2	5.6	8	22.2	2	5.6	6	16.7
	무급가족종사자	1	16.7	0	0	1	16.7	0	0	0	0	2	33.3	1	16.7	1	16.7
	상용근로자	107	12.1	192	21.8	168	19.0	68	7.7	40	4.5	125	14.2	13	1.5	169	19.2
	임시근로자	11	18.3	11	18.3	8	13.3	6	10.0	3	5.0	11	18.3	0	0	10	16.7
	일용직 근로자	7	17.9	7	17.9	7	17.9	3	7.7	2	5.1	8	20.5	1	2.6	4	10.3
	무직	64	13.2	104	21.4	99	20.4	38	7.8	17	3.5	71	14.6	7	1.4	86	17.7
결혼	미혼	99	14.7	130	19.3	127	18.9	59	8.8	28	4.2	102	15.2	14	2.1	113	16.8
	기혼	120	11.9	227	22.5	189	18.7	73	7.2	44	4.4	150	14.8	14	1.4	194	19.2
	별거	-	-	-	-	-	-	-	-	-	-	-	-	-	-	-	-
	이혼	-	-	-	-	-	-	-	-	-	-	-	-	-	-	-	-
	사별	-	-	-	-	-	-	-	-	-	-	-	-	-	-	-	-

- 변인별 총 응답 빈도로 살펴볼 때, '깨끗한 대기질 개선서비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순위로 항목을 선택한 설문으로 나온 결과임
- 1752명의 중복 응답을 허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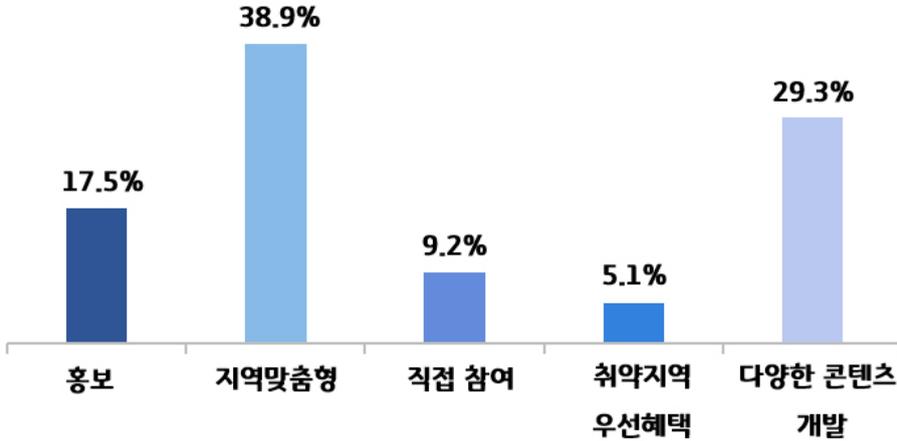
○ 환경서비스 제공도

- 수원 환경서비스에 대해 15.9%는 '잘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1.2%는 '제공이 안 된다'고 응답

〈그림 4-41〉 환경서비스 제공도



〈그림 4-42〉 환경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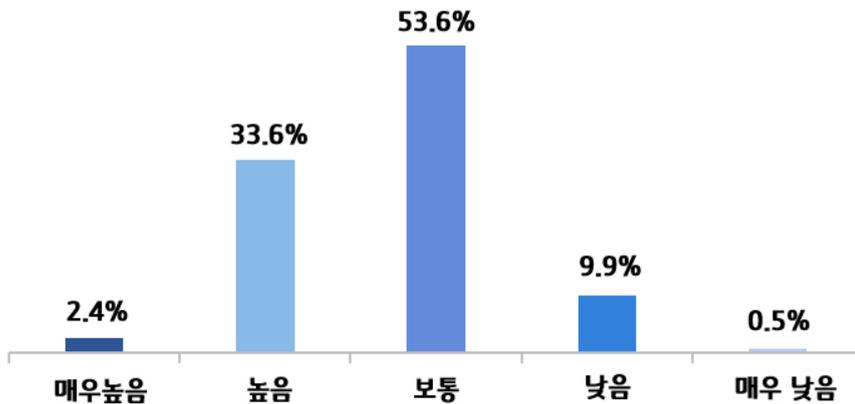
- 환경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38.9%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맞춤형 환경서비스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환경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29.3%, ‘환경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17.5%, ‘환경서비스 정책, 사업과정에 직접 참여개발 개발하는 기회제공 필요’ 9.2%, ‘취약집단, 취약지역에 우선혜택제공’ 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범죄·안전

○ 안전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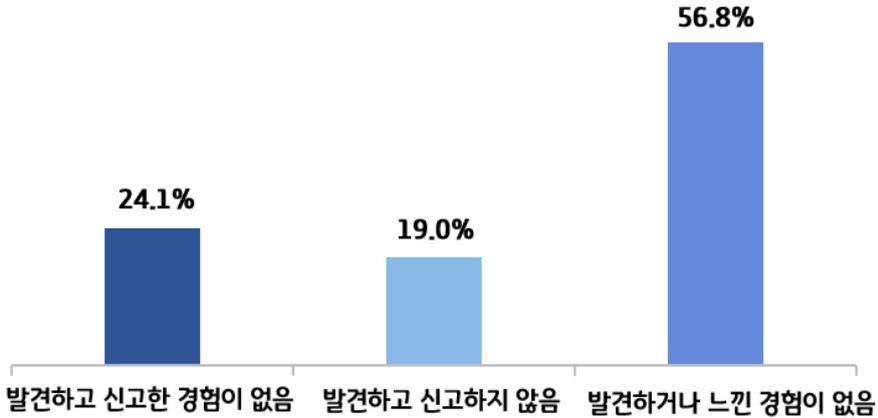
- 일상생활에서 수원시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의식 수준은 ‘보통(53.6%)’, ‘높음(36.0%)’, ‘낮음(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43〉 안전의식 수준



- 시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보통을 제외하고 '높음'이 '낮음'보다 25.6%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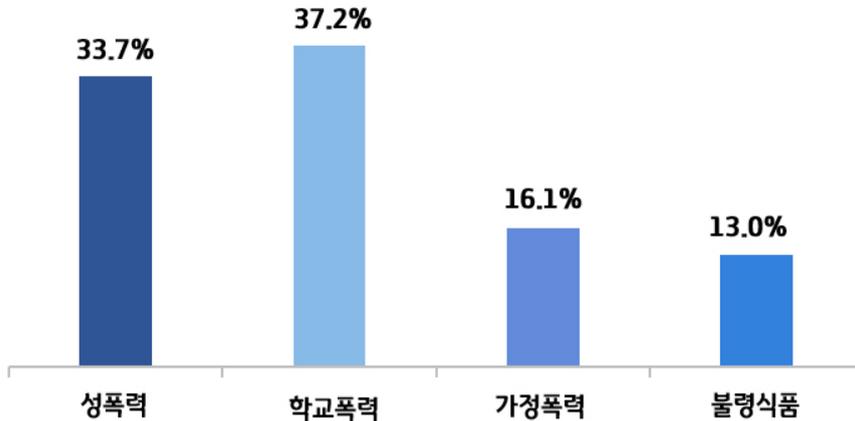
〈그림 4-44〉 안전 위협요소 발견 및 신고경험



-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견하거나 느낀 경험이 없다(56.8%)'고 응답하였으며,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19.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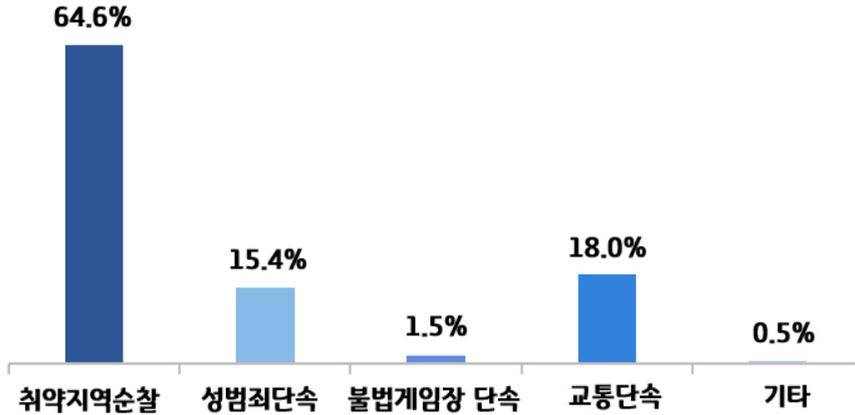
- 4대악 중 취약한 분야

〈그림 4-45〉 4대악 중 취약한 분야



- 4대악 중 시민들이 느끼는 취약분야는 '학교폭력' 37.2%, '성폭력' 33.7%, '가정폭력' 16.1%, '불량식품'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폭력', '성폭력'은 취약한 분야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파악 및 대처방법 강구 필요

〈그림 4-46〉 지역경찰 순찰 활동 장소



- 안전을 위해 지역경찰들의 활동이 더 필요한 지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약지역 순찰’ 64.6%, ‘기초질서 및 교통단속’ 18.0%, ‘유흥업소 및 성범죄 단속’ 15.4%, ‘불법게임장 단속’ 1.5%, ‘기타’ 0.5% 순으로 나타남
- 기타의견으로 ‘경찰 인력보강’ 0.3%, ‘근무시간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 0.3%, ‘몰카 단속’ 0.3% 등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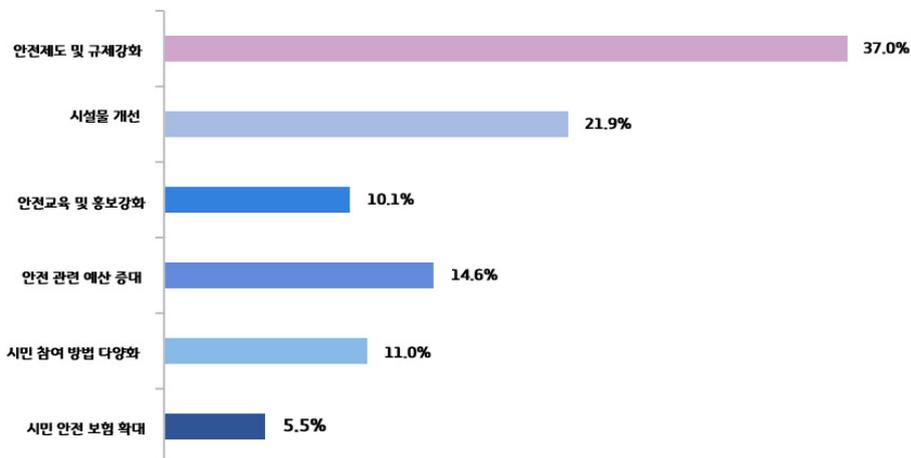
〈표 4-33〉 4대악 중 취약 분야 응답자별 특성

구분		4대악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N	%	N	%	N	%	N	%
전체		197	33.7	217	37.2	94	16.1	76	13.0
성별	남성	60	21.6	128	46.0	45	16.2	45	16.2
	여성	137	44.8	89	29.1	49	16.1	31	10.1
연령	20대	55	43.7	43	34.1	15	11.9	13	10.3
	30대	43	34.4	39	31.2	25	20.0	18	14.4
	40대	40	28.6	57	40.7	21	15.0	22	15.7
	50대	42	35.6	48	40.7	17	14.4	11	9.3
	60대	17	22.7	30	40.0	16	21.3	12	16.0
거주 지역	장안구	45	29.0	61	39.4	28	18.1	21	13.5
	권선구	52	31.7	64	39.0	29	17.7	19	11.6
	팔달구	41	47.7	24	27.9	9	10.5	12	14.0
	영통구	59	33.0	68	38.0	28	15.6	24	13.4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6	41.0	12	30.8	10	25.6	1	2.6
	100-200만원	20	41.7	15	31.3	4	8.3	9	18.8
	200-300만원	30	32.3	27	29.0	19	20.4	17	18.3
	300-400만원	38	32.2	43	36.4	24	20.3	13	11.0
	400-500만원	28	29.2	38	39.6	16	16.7	14	14.6
가구	500만원 이상	65	34.2	82	43.2	21	11.1	22	11.6
	1인 가구	33	42.3	25	32.1	15	19.2	5	6.4
	2인 가구	28	27.7	36	35.6	23	22.8	14	13.9

결혼	3인 가구	47	33.3	42	29.8	27	19.1	25	17.7
	4인 가구	72	31.9	99	43.8	27	11.9	28	12.4
	5인 가구 이상	17	44.7	15	39.5	2	5.3	4	10.5
	미혼	90	40.2	77	34.4	34	15.2	23	10.3
	기혼	97	28.8	133	39.5	56	16.6	51	15.1
	별거	-	-	-	-	-	-	-	-
	이혼	6	37.5	6	37.5	5	12.5	2	12.5
	사별	4	57.1	1	14.3	2	28.6	0	0
자녀	있음	92	29.1	125	39.6	51	16.1	48	15.2
	없음	105	39.2	92	34.3	43	16.0	28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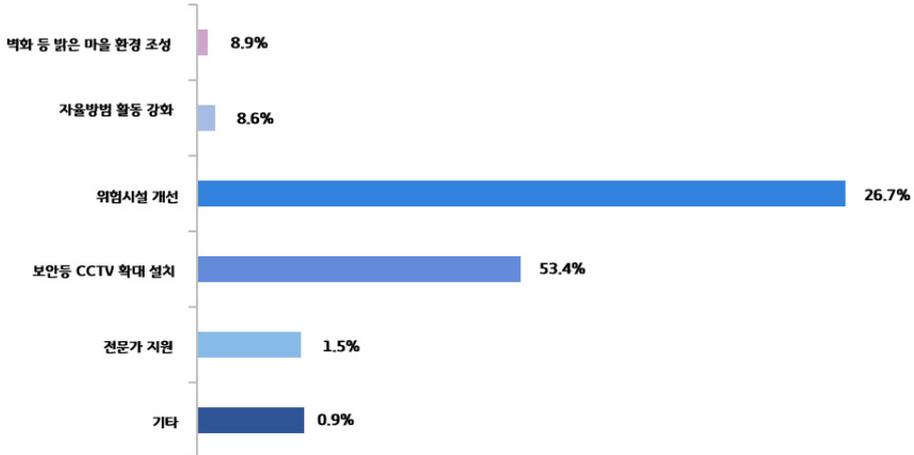
-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학교폭력(46.0%)’, 여성은 ‘성폭력(33.7%)’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20대(43.7%), 30대(34.4%)는 ‘성폭력’이 가장 높았으며, 40대(40.7%), 50대(40.7%), 60대(40.0%)는 ‘학교폭력’이 높게 나타남
-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
 - 수원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안전제도 및 규제강화(37.0%)’, ‘시설물 개선(21.9%)’, ‘안전 관련 예산 증대(14.6%)’, ‘시민참여 방법 다양화(11.0%)’,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10.1%)’, ‘시민안전보험 확대(5.5%)’ 등의 순으로 조사

〈그림 4-47〉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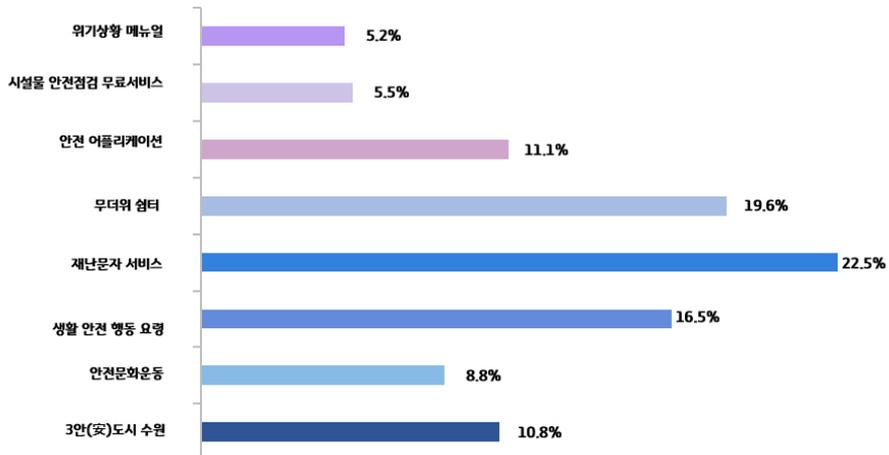
- 수원시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험시설 개선(26.7%)’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48〉 안전강화를 위한 도시 사업



- 수원시 안전관련 정책 인식 수준
 - 수원시의 안전 관리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 한 결과 ‘재난문자 서비스’가 2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 ‘무더위 쉼터’ 19.6%, ‘생활안전 행동요령’ 16.5%, ‘안전 어플리케이션’ 11.1%, ‘3안(安) 도시 수원’ 10.8%, ‘안전문화 운동’ 8.8%, ‘시설물 안전 점검’ 5.5%, ‘위기상황 매뉴얼’ 5.2% 순으로 나타남

〈그림 4-49〉 수원시 안전관련 정책 인식 수준



-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재난문자서비스는 안전 관련서비스로써 시민들의 인식·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보급이 필요함

〈표 4-34〉 수원시의 안전관련 정책 관련 응답자별 특성

구분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수원시의 안전관련 정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3안도시 수원		안전문화 운동		생활안전 행동요령		재난문자 서비스		무더위쉼터		안전 어플리케이션		시설물 안전점검 무료서비스		위기상황 매뉴얼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59	10.8	130	8.8	243	16.5	331	22.5	289	19.6	163	11.1	81	5.5	77	5.2
성별	남성	83	12.0	60	8.7	103	14.9	148	21.4	136	19.7	85	12.3	38	5.5	37	5.4
	여성	76	9.7	70	8.9	140	17.9	183	23.4	153	23.4	78	10.0	43	5.5	40	5.1
연령	20대	29	9.7	27	9.0	43	14.4	69	23.1	63	21.1	39	13.0	15	5.0	14	4.7
	30대	31	11.3	23	8.4	43	15.6	57	20.7	58	21.1	38	10.9	22	6.3	13	3.7
	40대	26	7.4	29	8.3	56	16.0	89	25.5	76	21.8	38	10.9	22	6.3	13	3.7
	50대	46	14.1	35	10.7	59	18.1	70	21.5	54	16.6	31	9.5	11	3.4	20	6.1
	60대	27	12.1	16	7.1	42	18.8	46	20.5	38	17.0	17	7.6	20	8.9	18	8.0
거주 지역	장안구	41	10.4	39	9.9	62	15.7	87	22.0	76	19.2	47	11.9	29	7.3	14	3.5
	권선구	38	9.4	33	8.1	69	17.0	94	23.2	80	19.8	46	11.4	20	4.9	25	6.2
	팔달구	27	12.0	20	8.9	30	13.3	52	23.1	43	19.1	25	11.1	12	5.3	16	7.1
	영통구	53	11.8	38	8.5	82	18.3	98	21.9	90	20.1	45	10.0	20	4.5	22	4.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	9.8	10	10.9	16	17.4	21	22.5	13	14.1	10	10.9	7	7.6	6	6.5
	100~200만원	21	15.9	11	8.3	19	14.4	24	18.2	30	22.7	16	12.1	8	6.1	3	2.3
	200~300만원	25	11.0	18	7.9	39	17.1	52	22.8	38	16.7	24	10.5	14	6.1	18	7.9
	300~400만원	31	10.2	39	12.8	51	16.8	63	20.7	61	20.1	32	10.5	14	4.6	13	4.3
	400~500만원	25	10.3	18	7.4	39	16.0	54	22.2	50	20.6	28	11.5	14	5.8	15	6.2
	500만원 이상	48	10.1	34	7.2	79	16.7	117	24.7	97	20.5	53	11.2	24	5.1	22	4.6
학력	중졸이하	1	10.0	0	0	1	10.0	0	0	2	20.0	2	20.0	3	30.0	1	10.0
	고졸	37	10.1	42	11.4	66	18.0	80	21.5	58	15.8	39	10.6	24	6.5	21	5.7
	전문대졸	19	10.2	19	10.2	28	15.1	39	21.0	42	22.6	15	8.1	13	7.0	11	5.9
	대졸	82	10.8	58	7.6	28	15.1	39	21.0	42	22.6	15	8.1	13	7.0	11	5.9
	대학원 이상	20	13.2	11	7.3	24	15.9	32	21.2	29	19.2	18	11.9	8	5.3	9	6.0
직위	자영업주	6	9.7	3	4.8	14	22.6	13	21.0	14	22.6	5	8.1	3	4.8	4	6.5
	고용주	6	18.8	3	9.4	4	12.5	9	28.1	4	12.5	3	9.4	1	3.1	2	6.3
	무급가족종사자	0	0	0	0	0	0	2	40.0	0	0	1	20.0	2	40.0	0	0
	상용근로자	81	11.3	64	8.9	115	16.0	154	21.5	149	20.8	86	12.0	38	5.3	30	4.2
	임시근로자	5	11.9	1	2.4	3	7.1	11	26.2	16	38.1	4	9.5	0	0	2	4.8
	일용직 근로자	6	15.8	5	13.2	4	10.5	6	15.8	8	21.1	5	13.2	1	2.6	3	7.9
	무직	33	8.1	38	9.3	71	17.4	103	25.2	72	17.6	37	9.0	28	6.8	27	6.6
결혼	미혼	50	9.8	46	9.0	71	13.9	123	24.2	113	22.2	66	13.0	21	4.1	19	3.7

	기혼	98	10.9	77	8.6	156	17.4	195	21.7	168	18.7	95	10.6	58	6.5	51	5.7
	별거	-	-	-	-	-	-	-	-	-	-	-	-	-	-	-	-
	이혼	-	-	-	-	-	-	-	-	-	-	-	-	-	-	-	-
	사별	-	-	-	-	-	-	-	-	-	-	-	-	-	-	-	-
자녀	있음	101	11.7	74	8.6	151	17.5	191	22.1	153	17.7	86	10.0	55	6.4	52	6.0
	없음	58	9.5	56	9.2	92	15.1	140	23.0	136	22.3	77	12.6	26	4.3	25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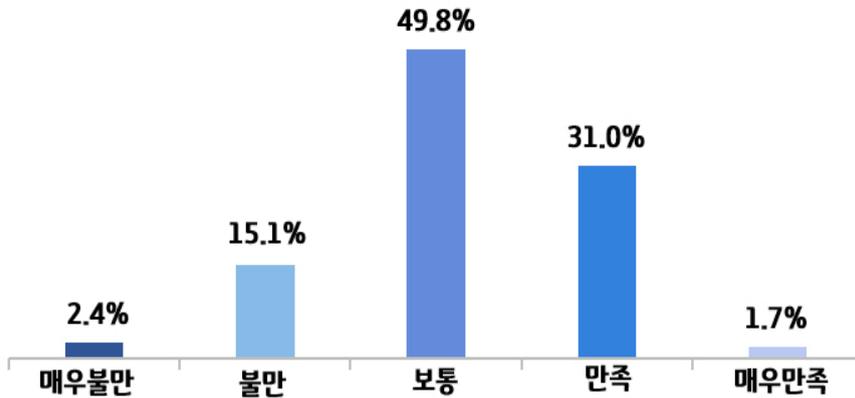
-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재난문자서비스’를 안전관련 정책을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웰빙

○ 삶의 만족도

- 현재 본인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이 49.8%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은 32.7%, ‘불만’이라는 응답 비율은 17.5%로 나타남

<그림 4-50>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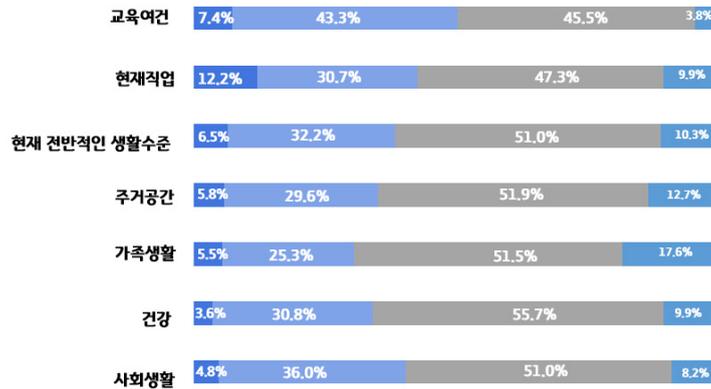


- 삶의 질 만족도는 불만족 보다 만족이 상대적으로 15.2%p 높게 나타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함

○ 생활조건 만족도

- 현재 생활조건에 대해 ‘가족생활’만족도는 6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여건’이 50.7%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그림 4-51〉 생활조건 만족도



- 그 다음 만족도가 높은 순으로 '건강' 65.6%, '주거 공간' 64.6%, '전반적 생활수준' 61.3%, '사회생활' 59.2%, '현재직업' 57.2%, '교육여건' 49.3% 등의 순으로 만족도를 느낀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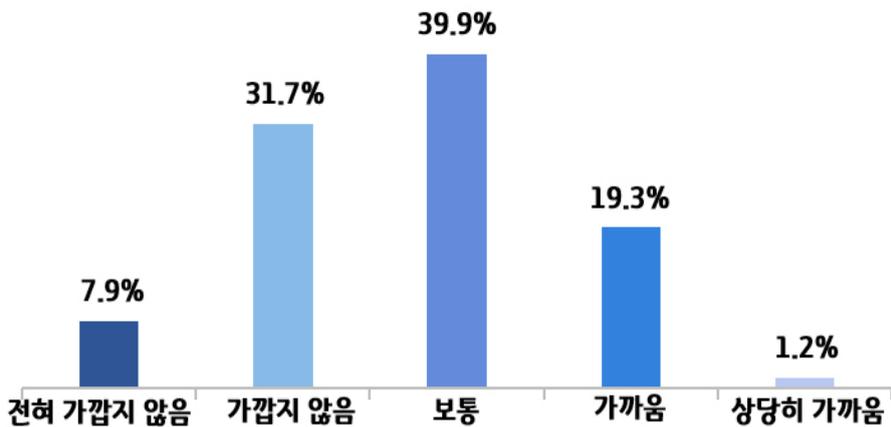
〈표 4-35〉 본인 삶의 만족도 응답자별 특성

구분		현재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N	%	N	%	N	%	N	%	N	%
전체		14	2.4	88	15.1	291	49.8	181	31.0	10	1.7
성별	남성	8	2.9	40	14.4	143	51.4	80	28.8	7	2.5
	여성	6	2.0	48	15.7	148	48.4	101	33.0	3	1.0
연령	20대	5	4.0	25	19.8	53	42.1	42	33.3	1	0.8
	30대	4	3.2	14	11.2	61	48.8	42	33.6	4	3.2
	40대	2	1.4	20	14.3	67	47.9	48	34.3	3	2.1
	50대	0	0	19	16.1	69	58.5	29	24.6	1	0.8
	60대	3	4.0	10	13.3	41	54.7	20	26.7	1	1.3
거주 지역	장안구	2	1.3	21	13.5	90	58.1	39	25.2	3	1.9
	권선구	4	2.4	24	14.6	86	52.4	46	28.0	4	2.4
	팔달구	4	4.7	16	18.6	38	44.2	28	32.6	0	0
	영통구	4	2.2	27	15.1	77	43.0	68	38.0	3	1.7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	5.1	9	23.1	20	51.3	7	17.9	1	2.6
	100-200만원	1	2.1	10	20.8	27	56.3	10	20.8	0	0
	200-300만원	4	4.3	17	18.3	53	57.0	19	20.4	0	0
	300-400만원	2	1.7	17	14.4	54	45.8	43	36.4	2	1.7
	400-500만원	4	4.2	18	18.8	50	52.1	23	24.0	1	1.0
500만원 이상	1	0.5	17	8.9	87	45.8	79	41.6	6	3.2	
학력	중졸이하	0	0	1	25.0	2	50.0	1	25.0	0	0
	고졸	4	3.1	25	19.4	66	51.2	33	25.6	1	0.8
	전문대졸	1	1.3	11	13.9	44	55.7	23	29.1	0	0
	대졸	8	2.6	46	14.9	148	48.1	100	32.5	6	1.9
	대학원 이상	1	1.6	5	7.8	31	48.5	24	37.5	3	4.7
직위	자영업주	0	0	4	18.2	11	50.0	7	31.8	0	0
	고용주	0	0	2	16.7	5	41.7	4	33.3	1	8.3

	무급가족종사자	1	50.0	0	0	1	50.0	0	0	0	0
	상용근로자	6	2.0	41	13.9	150	51.0	91	31.0	6	2.0
	임시근로자	1	5.0	5	25.0	7	35.0	7	35.0	0	0
	일용직 근로자	0	0	1	7.7	6	46.2	5	38.5	1	7.7
	무직	0	0	1	7.7	6	46.2	5	38.5	1	7.7
가구	1인 가구	2	2.6	20	25.6	36	46.2	19	24.4	1	1.3
	2인 가구	3	3.0	16	15.8	47	46.5	33	32.7	2	2.0
	3인 가구	4	2.8	17	12.1	72	51.1	45	31.9	3	2.1
	4인 가구	4	1.8	27	11.9	116	51.3	76	33.6	3	1.3
	5인 가구 이상	1	2.6	8	21.1	20	52.6	8	21.1	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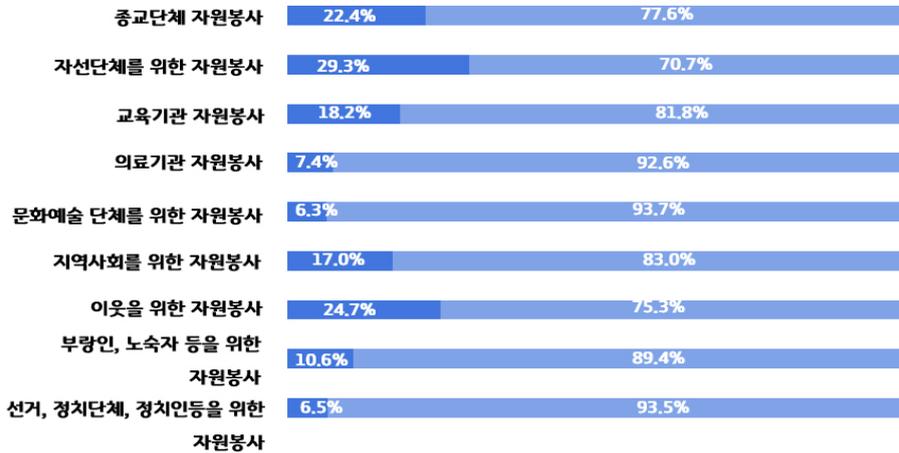
- 가구소득 특성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 가구의 23.1%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00-200만원 가구는 20.8%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함
- 200-300만원 가구의 20.4%, 300-400만원 가구의 36.4%, 400-500만원 가구의 24.0%, 500만원 이상 가구의 41.6%가 상대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상적인 삶과 현재의 비교
 - 현재의 삶이 본인이 생각한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이 39.9%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가까움’은 20.5%, ‘가깝지 않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39.6%로 나타남

〈그림 4-52〉 이상적인 삶과 현재의 비교



- 삶의 질 만족도는 ‘만족’이 15.2%p 높게 나타났지만, 이상적인 삶과 현재의 삶을 비교 했을 때 ‘가깝지 않다’는 비율이 ‘가깝다’는 비율보다 19.1%p 높게 나타남

〈그림 4-53〉 자원봉사 경험 조사



- 최근 5년 동안 자원봉사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29.3%)’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는 6.5%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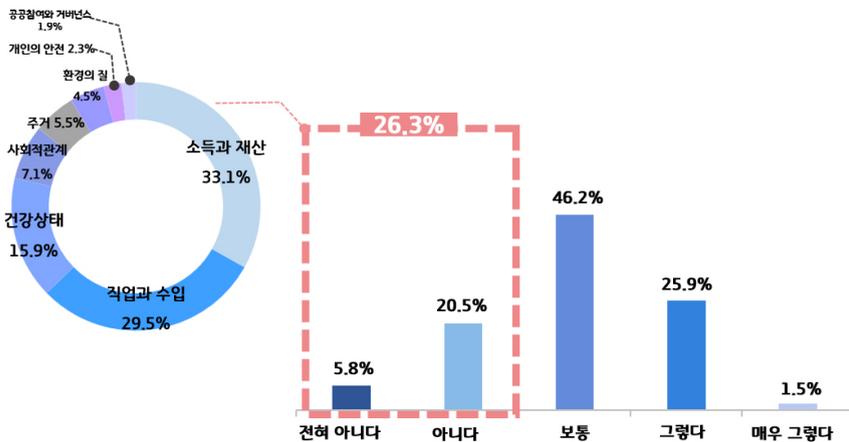
〈표 4-36〉 이상적인 삶과 현재의 삶의 비교 응답자별 특성

구분		본인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삶과 현재의 삶이 어느 정도 가깝습니까?									
		전혀 가깝지 않음		가깝지 않음		보통		대체로 가까움		상당히 가까움	
		N	%	N	%	N	%	N	%	N	%
전체		46	7.9	185	31.7	233	39.9	113	19.3	7	1.2
성별	남성	22	7.9	78	28.1	120	43.2	56	20.1	2	0.7
	여성	24	7.8	107	35.0	113	36.9	57	18.6	5	1.6
연령	20대	13	10.3	50	39.7	45	35.7	17	13.5	1	0.8
	30대	8	6.4	36	28.8	45	36.0	34	27.2	2	1.6
	40대	10	7.1	43	30.7	55	39.3	31	22.1	1	0.7
	50대	9	7.6	34	28.8	52	44.1	22	18.6	1	0.8
	60대	6	8.0	22	29.3	36	48.0	9	12.0	2	2.7
거주 지역	장안구	10	6.5	51	32.9	69	44.5	24	15.5	1	0.6
	권선구	15	9.1	57	34.8	62	37.8	30	18.3	0	0
	팔달구	11	12.8	29	33.7	30	34.9	15	17.4	1	1.2
	영통구	10	5.6	48	26.8	72	40.2	44	24.6	5	2.8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	17.9	15	38.5	13	33.3	1	2.6	3	7.7
	100-200만원	5	10.4	19	39.6	16	33.3	8	16.7	0	0
	200-300만원	11	11.8	29	31.2	44	47.3	9	9.7	0	0
	300-400만원	7	5.9	35	29.7	43	36.4	32	27.1	1	0.8
	400-500만원	8	8.3	34	35.4	40	41.7	14	14.6	0	0
학력	500만원 이상	8	4.2	53	27.9	77	40.5	49	25.8	3	1.6
	중졸이하	0	0	3	75.0	1	25.0	0	0	0	0
	고졸	12	9.3	49	38.0	49	38.0	16	12.4	3	2.3
	전문대졸	6	7.6	19	24.1	40	50.6	14	17.7	0	0
	대졸	27	8.8	98	31.8	117	38.0	63	20.5	3	1.0
직위	대학원 이상	1	1.6	16	25.0	26	40.6	20	31.3	1	1.6
	자영업주	2	9.1	8	36.4	7	31.8	5	22.7	0	0
	고용주	1	8.3	4	33.3	3	25.0	4	33.3	0	0

	무급가족종사자	1	50.0	1	50.0	0	0	0	0	0	0
	상용근로자	19	6.5	82	27.9	126	42.9	65	22.1	2	0.7
	임시근로자	1	5.0	10	50.0	7	35.0	1	5.0	1	50.0
	일용직 근로자	1	7.7	3	23.1	7	53.8	2	15.4	0	0
	무직	14	8.6	60	37.0	61	37.7	24	14.8	3	1.9
가구	1인 가구	7	7.1	27	27.3	42	42.4	21	21.2	2	2.0
	2인 가구	11	5.9	55	29.4	76	40.6	42	22.5	3	1.6
	3인 가구	2	7.4	10	37.0	14	51.9	1	3.7	0	0
	4인 가구	0	0	1	33.3	2	66.7	0	0	0	0
	5인 가구 이상	-	-	-	-	-	-	-	-	-	-

- 학력 특성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75.0%), 고졸(38.0%), 전문대졸(24.1%), 대졸(31.8%)이 '가깝지 않다'고 응답
- 대학원 이상의 31.3%는 '가깝다'고 응답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음
- 일과 삶의 균형 부정적
 - 본인의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응답률이 26.3%를 기록
 - '아니다'라고 응답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소득과 재산'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직업과 수입' 29.5%, '건강상태' 15.9%, '사회적 관계' 7.1%, '주거' 5.5%, '환경의 질' 4.5%, '개인의 안전' 2.3%, '공공참여와 거버넌스' 1.9% 등의 순으로 응답

〈그림 4-54〉 일과 삶의 균형 부정적



-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다는 워라밸이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음
- 분석 결과, 워라밸을 지킬 수 없는 이유로 '소득과 재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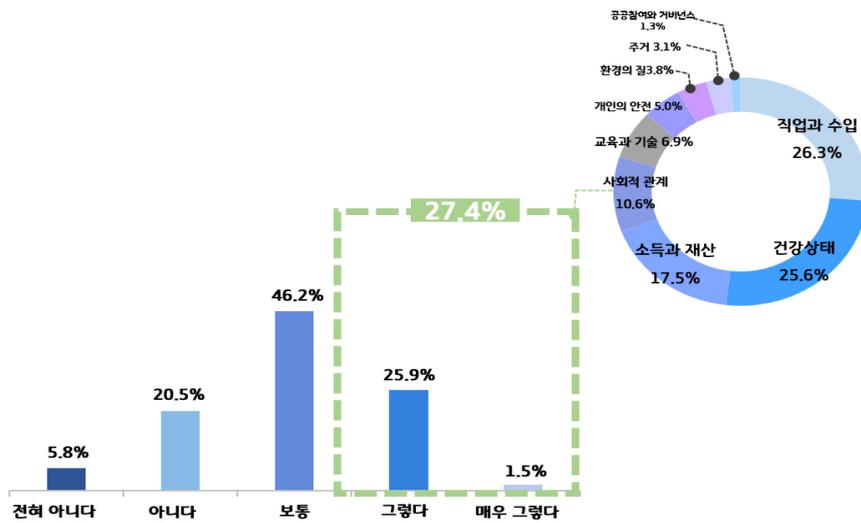
〈표 4-37〉 일과 삶의 균형 방해요인 응답자별 특성

구분		현재, 귀하의 일과 균형을 방해하는 요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건강상태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공공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의 안전		소득과 재산		직업과 수입		주거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49	15.9	-	-	22	7.1	6	1.9	14	4.5	7	2.3	102	33.1	91	29.5	17	5.5
성별	남성	16	10.5	-	-	11	7.2	4	2.6	8	5.3	3	2.0	53	34.9	50	32.9	7	4.6
	여성	33	21.2	-	-	11	7.1	2	1.3	6	3.8	4	2.6	49	31.4	41	26.3	10	6.4
연령	20대	9	13.2	-	-	6	8.8	2	2.9	3	4.4	4	5.9	214	30.9	18	26.5	5	7.4
	30대	8	12.5	-	-	2	3.1	0	0	2	3.1	1	1.6	26	40.6	20	31.3	5	7.8
	40대	9	13.6	-	-	5	7.6	2	3.0	5	7.6	0	0	22	33.3	20	30.3	3	4.5
	50대	12	18.8	-	-	5	7.8	1	1.6	3	4.7	1	1.6	23	35.9	17	26.6	2	3.1
	60대	11	23.9	-	-	4	8.7	1	2.2	1	2.2	1	2.2	10	21.7	16	34.8	2	4.3
거주 지역	장안구	11	14.5	-	-	5	6.6	2	2.6	3	3.9	0	0	25	32.9	25	32.9	5	6.6
	권선구	15	13.6	-	-	7	6.4	1	0.9	7	6.4	1	0.9	42	38.2	32	29.1	5	4.5
	팔달구	11	22.0	-	-	5	10.0	1	2.0	2	4.0	2	4.0	16	32.0	12	24.0	1	2.0
	영동구	12	16.7	-	-	5	6.9	2	2.8	2	2.8	4	5.6	19	26.4	22	30.6	6	8.3
가구 소득	100만원미만	7	23.3	-	-	2	6.7	1	3.3	1	3.3	2	6.7	7	23.3	8	26.7	2	6.7
	100-200만원	8	26.7	-	-	1	3.3	0	0	0	0	0	0	9	30.0	10	33.3	2	6.7
	200-300만원	8	11.4	-	-	5	7.1	0	0	3	4.3	2	2.9	26	37.1	20	28.6	6	8.6
	300-400만원	12	20.0	-	-	8	13.3	0	0	2	3.3	0	0	21	35.0	17	28.3	0	0
	400-500만원	5	9.6	-	-	1	1.9	2	3.8	4	7.7	3	5.8	16	30.8	19	36.5	2	3.8
	500만원이상	9	13.6	-	-	5	7.6	3	4.5	4	6.1	0	0	23	34.8	17	25.8	5	7.6
직장	농/임/어업	-	-	-	-	-	-	-	-	-	-	-	-	-	-	-	-	-	-
	공무원/공기업	1	10.0	-	-	2	20.0	1	10.0	0	0	0	0	2	20.0	3	30.0	1	10.0
	교사/학원강사	2	50.0	-	-	0	0	0	0	1	25.0	0	0	1	25.0	0	0	0	0
	자영업	2	14.3	-	-	1	7.1	0	0	1	7.1	0	0	5	35.7	4	28.6	1	7.1
	일반기업	12	11.3	-	-	6	5.7	1	0.9	7	6.6	1	0.9	40	37.7	32	30.2	7	6.6
	전문직	0	0	-	-	1	6.3	0	0	0	0	1	6.3	7	43.8	5	31.3	2	12.5
	프리랜서/자유직	9	22.5	-	-	0	0	1	2.5	1	2.5	1	2.5	13	32.5	12	30.0	3	7.5
	전업주부	16	33.3	-	-	4	8.3	0	0	2	4.2	1	2.1	12	25.0	12	25.0	1	2.1
	학생/무직/기타	7	10.0	-	-	8	11.4	3	4.3	2	2.9	3	4.3	22	31.4	23	32.9	2	2.9

- 연령별 특성으로 살펴보면 20대 30.9%, 30대 40.6%, 40대 33.3%, 50대 35.9%는 '소득과 재산'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없다고 응답
- 60대는 34.8%가 '직업과 수입'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없다고 응답

- 일과 생활의 균형 긍정적
 - 본인의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27.4%로 나타남
 - ‘그렇다’라고 응답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직업과 수입’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건강 상태’가 25.6%, ‘소득과 재산’ 17.5%, ‘사회적 관계’ 10.6%, ‘교육과 기술’ 6.9%, ‘개인의 안전’ 5.0%, ‘환경의 질’ 3.8%, ‘주거’ 3.1%, ‘공공참여 거버넌스’ 1.3% 등의 순으로 응답

〈그림 4-55〉 일과 삶의 균형 긍정적



-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요인으로 ‘직업과 수입’, ‘건강 상태’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연봉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워라벨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8〉 일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요인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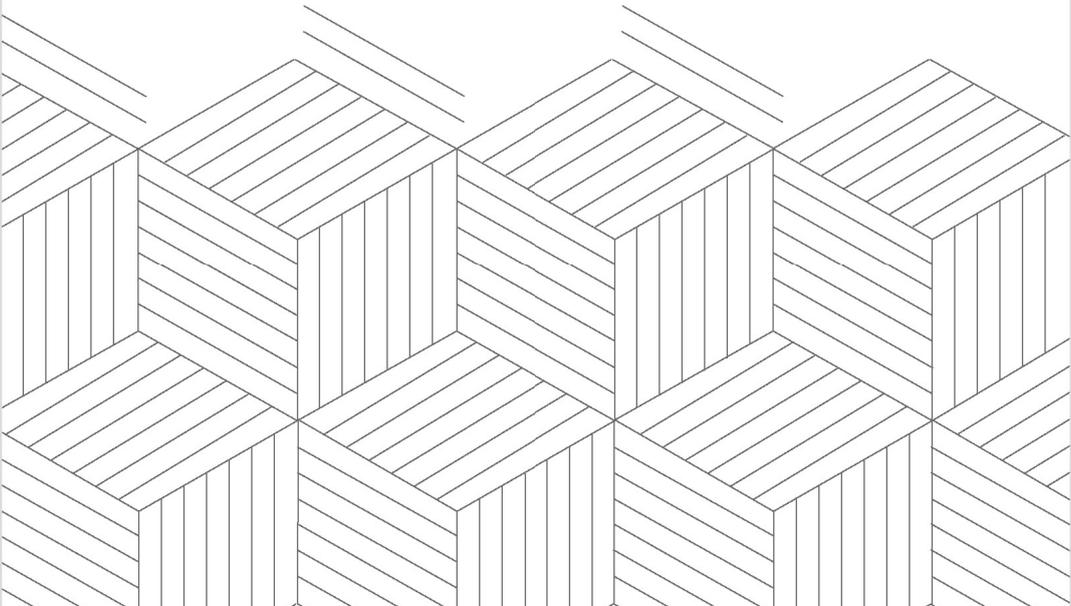
구분		현재, 귀하의 일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요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건강상태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공공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의 안전		소득과 재산		직업과 수입		주거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41	25.6	11	6.9	17	10.6	2	1.3	6	3.8	8	5.0	28	17.5	42	26.3	5	3.1
성별	남성	21	27.6	6	7.9	10	13.2	2	2.6	2	2.6	3	3.9	11	14.9	19	25.0	2	2.6
	여성	20	23.8	5	6.0	7	8.3	0	0	4	4.8	5	6.0	17	20.2	23	27.4	3	3.6
연령	20대	7	18.9	2	5.4	4	10.8	0	0	3	8.1	0	0	9	24.3	9	24.3	3	8.1
	30대	4	10.8	3	8.1	5	13.5	2	5.4	1	2.7	1	2.7	3	8.1	16	43.2	2	5.4
	40대	9	22.5	5	12.5	2	5.0	0	0	2	5.0	4	10.0	9	22.5	9	22.5	0	0
	50대	12	44.4	0	0	3	11.1	0	0	0	0	1	3.7	6	22.2	5	18.5	0	0
	60대	9	47.4	1	5.3	3	15.8	0	0	0	0	2	10.5	1	5.3	3	15.8	0	0
거주 지역	장안구	12	25.5	3	6.4	6	12.8	0	0	3	6.4	3	6.4	8	17.0	11	23.4	1	2.1
	권선구	7	20.0	5	14.3	3	8.6	2	5.7	3	5.6	3	8.6	3	8.6	8	22.9	1	2.9
	팔달구	7	30.4	0	0	2	8.7	0	0	0	0	1	4.3	5	21.7	6	26.1	2	8.7
	영동구	15	27.3	3	5.5	6	10.9	0	0	0	0	1	1.8	12	21.8	17	30.9	1	1.8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	28.6	0	0	1	14.3	0	0	1	14.3	0	0	1	14.3	2	28.6	0	0
	100-200만원	4	33.3	1	8.3	1	8.3	0	0	1	8.3	1	8.3	1	8.3	1	8.3	2	16.7
	200-300만원	1	9.1	1	9.1	1	9.1	0	0	0	0	2	18.2	1	9.1	4	36.4	1	9.1
	300-400만원	11	30.6	4	11.1	4	11.1	2	5.6	1	2.8	1	2.8	7	19.4	5	13.9	1	2.8
	400-500만원	6	31.6	2	10.5	4	21.1	0	0	0	0	0	0	5	26.3	2	10.5	0	0
	500만원 이상	17	22.7	3	4.0	6	8.0	0	0	3	4.0	4	5.3	13	17.3	28	37.3	1	1.3
직장	농/임/어업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공무원/공기업	2	22.2	0	0	0	0	0	0	0	0	0	0	1	11.1	6	66.7	0	0
	교사/학원강사	4	50.0	0	0	1	12.5	0	0	0	0	0	0	3	37.5	0	0	0	0
	자영업	0	0	1	20.0	2	40.0	0	0	0	0	1	20.0	0	0	1	20.0	0	0
	일반기업	13	20.6	5	7.9	3	4.5	1	1.6	1	1.6	3	4.8	12	19.0	22	34.9	3	4.8
	전문직	1	5.9	0	0	3	17.6	0	0	1	5.9	0	0	3	17.6	8	47.1	1	5.9
	프리랜서/자유직	5	46.2	3	23.1	1	7.7	0	0	1	7.7	2	15.4	0	0	0	0	0	0
	전업주부	8	40.0	1	5.0	2	10.0	0	0	1	5.0	2	10.0	4	20.4	2	10.0	0	0
학생/무직/기타	7	29.2	1	4.2	5	20.8	1	4.2	2	8.3	0	0	4	16.7	3	12.5	1	4.2	

-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20대의 24.3%, 30대의 43.2%, 40대의 22.5%는 '직업과 수입'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응답

- 40대의 22.5%, 50대의 44.4%는 60대의 47.7%는 ‘건강 상태’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응답
- 수원시민의 격차 조사 관련 추가적인 의견
 - 개선사항 없음. 너무나 좋은 질문에 공감되는 문항의 구성
 - 작은 힘이 라도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보탬이 되고 싶다
 - 단체장들을 위한 조직이 아닌 봉사자들의 수고에 함께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 대기환경을 위해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겠다.
 - 많이 반성하게 되는 질문이다.
 - 물가가 상승해서 살기 어려운 것 같다.
 - 집값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 하나의 스토리로 설문이 구성되어 보기에 좋다.
 - 삶의 질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수원이 되도록 노력해주면 하는 바람
 - 설문을 통해 수원시 내 정책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설문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길 바람
 - 소득불평등 해소 및 주거안정 대책을 세워주길
 -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길 희망
 - 수원시의 일반 행정에 대한 설문을 향후 구성해서 매년 하면 좋을 것 같다.
 - 수원시의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마련 요구
 - 여론조사를 자주 실시해서 보편적인 데이터를 얻고 싶다.
 -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가 필요
 -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자동차 등과 불법 주정차 없애야 한다.
 -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원시의 행정에 대해 홍보가 필요
 - 주변 순찰 관련하여 각 지구대 경찰관들이 각성하고 제대로 순찰해야 한다.
 - 좀 더 나은 수원시가 되길 바란다.
 - 수원시에 이렇게 많은 정책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 좋은 일자리가 생기길 희망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내용 요약
제2절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내용 요약

- 격차지표
 - 불평등한 특정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를 의미하며,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 혹은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성과를 직접적인 수치로 확인 할 수 있음
 - 매년 통계청에서 다양한 사회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전국단위 조사 및 각 시·도 별 조사도 시행하고 있음
 - 격차 지표를 통해 시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및 삶의 질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음
 - 수원시 격차 지표 발굴 및 분석을 통해 격차를 줄이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 수원형 격차지표의 필요성 대두
 - 인구 100만 도시로서 현재 수원시의 격차의 결과로 보여 지는 현상들과 원인들을 파악하고 지표로 발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임
 - 코로나 19로 인한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격차도 심화되는 시기라고 판단
 - 수원시 및 수원시민에게 미칠 영향과 결과, 격차 지표의 기초적 수집·분석을 통해 연구의 토대를 만들고자 함
 - 수원시 격차 지표에 대한 지속적 발굴과 데이터 구축 및 기초자료 수집 등의 과정이 필요
 - 수원시에 필요하고 적용 가능한 지표를 통해 연차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수원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데이터 구축을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함
 - 수원시 격차 지표에 대한 지속적 발굴과 데이터 구축 및 기초자료 수집 등의 과정이 필요

■ 지표 도출 과정

- 지표선정에 있어서 전국단위, 서울 및 수도권 단위, 수원시, 수원시 관내 행정구별로 격차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
- 대분류로는 성장과 소득, 고용과 노동, 소득·소비·자산, 주거와 교통, 인구, 가족, 건강, 교육, 여가, 범죄와 사법정의, 사회통합, 복지,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 기후변화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류로 격차를 비교하여 분석
- 지표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요도와 시급성을 파악하고자 함
- 통계청, e나라지표, 수원시 지방지표의 분류에 따라 지표를 추출하였으며, 격차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우선하여 도출

■ 분석 가능한 지표 현황

- 기존 선행연구 및 격차지표 자료의 전체 자료 검토를 통한 113개의 지표를 표집
- 격차지표로서의 의미가 있고, 전국 단위, 광역 단위,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관내자료까지 추출할 수 있는 내용을 1차 지표로 선정
- 객관적 수치에 의한 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33개의 1차 지표로 선정
- 전국 단위 비교, 광역 단위 비교, 경기도 내 비교, 수원시 자체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2차 지표로 선정
- 수원시의 격차를 해당 지표만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된 지표는 제외하여 12개의 2차 지표 도출
- 국가지표체계 관리를 통해 부처별, 영역별로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하고 있음
- 전국단위 지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각 시·도별 자료까지 조사되는 지표들도 존재하나, 시·군·구의 조사가 함께 조사되는 지표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없음
- 격차 지표 분석에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조사되지 않거나 전국단위로만 조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완점을 찾기 위하여 설문조사가 필수적임
- 수원시에 필요하고 적용 가능한 지표를 통해 연차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수원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데이터 구축을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함

■ 설문조사를 통한 격차 분석

- 수원시민대상 설문조사 목적
- 수원시의 격차(일상생활, 경제활동, 경제·정치·사회적 지역권, 주거기반, 상수도, 도로교통, 정보통신 이용관련, 교육, 문화, 사회복지, 보건위생·건강,

환경, 소득·소비, 사회분위기, 사회적임금지표)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원시민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함

-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은 수원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함
- 건강관련 설문
 - 건강상태(평소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 건강관리(평소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흡연여부, 의료비 지출정도에 대한 응답)
 - 건강검진(건강검진 횟수에 대한 응답)
 - 성인 건강문제(성인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응답)
 - 수원시 의료서비스 만족도(수원시 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
- 교육관련 설문
 - 자녀 교육 정도(자녀가 어느 정도 교육받기를 원하는지, 소비지출, 거주 지역 교육의 질 만족도에 대한 응답)
 - 사교육(사교육 여부 및 지출금액, 사교육의 목적에 대한 응답)
 - 특수학교 설립(특수학교 설립 및 편의시설, 학생지원 운영 실태에 대한 응답)
 - 직장어린이집 설립(직장어린이집 설치여부, 설치가능성에 대한 응답)
- 경제활동권(노동) 관련 설문
 - 비정규직(비정규직 근무에 대한 생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 노인일자리(노인일자리 종류, 노인일자리 문제점에 대한 응답)
 - 직장 주변 만족도(직장주변 교통, 휴식 공간, 소음, 대기오염 등에 대한 만족도)
- 소득·소비 관련 설문
 - 소득·소비 변화(지난연도와 현 연도의 가계소득변화, 소비규모변화, 소비규모 변화이유, 소비지역)
 - 불평등 인식(소득분배의 평등여부, 본인의 경제수준, 최근 경제적 부담을 느낀 부분, 가계지출 중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항목)
- 문화·여가 관련 설문
 - 여가활동(코로나 이전/이후 여가활동, 여가활동 주된 목적, 여가활동 지출금액에 대한 응답)
 - 문화기반시설(집 주변 공공체육시설 여부, 이용횟수에 대한 응답)
 - 전자기기 사용/활용(전자기기 소유여부, 컴퓨터 사용 능숙 정도, 스마트폰 능숙 정도)
- 주거기반 관련 설문

- 주거형태(살고 있는 주택 종류에 대한 응답)
- 소유형태(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점유 형태에 대한 응답)
- 주거지 이동시 고려사항 및 만족도(주거지 만족도, 주거생활의 문제점, 이사의향, 주거지 이동시 고려사항 및 중요도에 대한 응답)
- 향후 주택매매시장 전망(향후 주택매매시장 활기여부, 활기를 되찾을 것 같은 이유, 활기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유에 대한 응답)
- 생활환경 관련 설문
 - 경제·환경·사회적 문제 관심도 여부(수원시 관련, 경기도 관련, 서울시 관련, 전국 관련 경제·환경·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여부에 대한 응답)
 - 환경서비스 선호도(환경서비스 중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및 선호도, 만족도에 대한 응답)
- 범죄·안전 관련 설문
 - 범죄·안전인식 (거주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여부인식, 야간 보행 시 위험도, 거주 지역 순찰만족도, 범죄예방시설 만족도, 지역경찰활동 시 우선순위, 수원시 차원에서의 지역경제 안전에 대한 노력여부 인식에 대한 응답)
- 웰빙 관련 설문
 - 삶의 만족도(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과의 가까운 정도에 대한 응답)
 - 생활조건 만족도(교육여건, 직업만족도, 생활수준, 주거공간, 가족생활, 건강, 사회생활, 자원봉사 여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도, 방해요인, 균형을 맞춰주는 요인에 대한 응답)

제2절 결론 및 제언

- 격차 지표를 통한 측정
 - 통계청, e나라지표, 수원시 지방지표를 통하여 격차 지표를 매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수원시민의 격차를 전국단위와의 비교, 서울시와 비교, 경기도와 비교, 수원시 각 구별로 비교하여 수원시민들의 격차를 측정해보고 수 개년 비교가능해지도록 함
 - 체계화된 지표 수치를 통해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수치화된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에 따라 문제점 파악이 수월
 - 비교 가능한 공통된 지표의 틀을 구축하면서 각 지표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분석단위를 수원시의 각 구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표 수치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여 시정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수원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보완
 - 수치화된 지표들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수원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점을 찾을 수 있음
 -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몸소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와는 다른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짐
 - 수원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며 행복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이 무엇인지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통계적 수치로 답을 수 없는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시민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음
 - 수원시민의 행복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서열 및 패턴을 파악하기 쉬움
 - ‘삶의 질’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측정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과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측정하기 좋음
- 도입 방안
 - 수원시민들의 격차를 측정해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공공부문에서 어떤 지표조사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음

-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을 알 수 있음
-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기반을 확장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지표로서 의미가 있음
- 즉각적인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분석의 질은 높이고 시민밀착형 정책입안 및 파악이 수월
- 격차의 연차별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으며 보완점 및 개선된 점을 수치로 알 수 있음
- 시민들의 욕구와 의견을 함축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입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고재경 외(2014),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방안, 경기연구원
- 김고운 외(2019),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지표체계 구축과 평가 방안, 경기연구원
- 김구 외(2013), 정보격차 진단을 위한 평가모형 및 지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권 1호 pp79-114
- 김점훈 외(2006), 양성평등지표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대전광역시의 지표개발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16권 4호 pp183-214
- 김민석 외(2006), 정신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개발 기초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
- 김병록(2008), 지역사회 복지격차 연구에 대한 분석, 지역사회연구, 16권 2호 pp143-161
- 김선기 외(2008), 지역 간 경제성장격차 변화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선재(201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지역별 특정지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권 9호 pp50-59
- 김수혜 외(2020), OECD 형평성 지표로 본 교육격차 추이:-서울교육중단연구 1~9차연도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연구원
- 김숙희 외(2018),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지표 개발,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pp467-472
- 김은정(2007),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세대통합형 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권 2호, pp195-219
- 김인희 외(2012),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발전방안과 서울시 역할, 서울연구원
- 김주현 외(2015), 한국의 노인차별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통권27호 pp91-126
- 김채만 외(2009), 경기도 교통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노영희 외(2019), 도서관에 적용가능한 정보불평등 측정지표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6권 4호, pp53-81
- 박성복(2015), 건강도시지표를 통한 지역격차 분석논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권, pp39-67
- 박인권(2016), 도시 포용성 구성개념과 지표체계의 개발-한국의 포용도시 의제 설정을 위하여-, 공간과사회 26권 4호(통권 58호) pp109-158
- 박해광(2003), 정보격차의 새로운 경향, 경제와사회 59권, pp78-102
- 변미리(2015), 서울시민의 행복 체감도와 행복지표 활용방안, 서울연구원
- 변미리(2018), 포용도시를 향하여_서울형 포용도시 지표개발과 포용성 진단, 서울연구원
- 신영진(2017), 결혼이주여성의 정보화격차해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지표 개발, 한국이민정책학회보 2권 1호(통권 2호) pp1-30

- 서인석(2016), 커뮤니티웰빙 지표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의 탐색적 유형화:Kee의 커뮤니티웰빙 6자본요인 및 지표의 적용, 한국행정연구원
- 안승혁(2017),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의 활용 국내외 대도시 비교 분석, 공간과사회 27권 4호(통권 2호) pp183-217
- 안창희 외(2012),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지표 개발 및 중요도 분석, 국정관리 연구
- 이광현 외(2017), 고령친화도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고령자입장에서 바라본 측정 가능한 물리적 환경 지표 중심으로-, 한국도시설학회지 도시설계 18권 2호 pp51-62
- 이상대 외(2015), 경기도 미래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이성원 외(2016), 교통수단의 환경지표 개발, 한국교통연구원
- 이옥(2012), 아동중심의 아동지표연구, 아동과 권리 16권 1호 pp1-25
- 이우성 외(2010),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인재 외(2013), 수원시 지역사회복지지표 개발 연구, 사회복지정책 40권 4호 pp157-188
- 이주립 외(2013), 육아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권 3호 pp385-412
- 임보영 외(2016), 도시쇠퇴지표와 삶의 질 지표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 윤태범 외(1995), 경기도 사회지표 개발, 경기연구원
- 윤호 외(2019), 주거사회환경지표의 설계와 도시 내 적용연구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별격차분석,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윤희철 외(2014), 인구감소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도시의 삶의 질 지표 연구-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권 4호, pp35-58
- 장명립(2009),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 3권 2호 pp71-91
- 장은하(201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내 성평등 독자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지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영호(2015), 지역간 격차와 지역내 격차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경기도 31개 시군을 사례로, 지역행정연구 29권 1호(통권100호), pp99-125
- 장용석(2011), 지표를 통한 한국의 사회통합 분석: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0권 4호 pp1-38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2012),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발전방안,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 진미운(2010), 주택수요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 연구, 국토연구 67권 pp3-23
- 추경모(2012), 교육의 지역적 격차에 관한 연구:중학교 교육현황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1권 1호 pp33-52
- 최정민 외(2010), 교통부문 녹색성장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한국교통연구원

- 최준석(2020), 균형발전지표로 측정한 지역격차,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pp213-238
- 최흥석(2003), 정보불평등 측정지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권 3호 pp150-177
- 최희갑 외(2014), 지역 간 격차 요인 분석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경기도 시군의 고용창출력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기본부
- 통계청(2021), 국민 삶의 질 2020,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 통계청(2021), 2020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 한승준(2006), 지역간 교육격차의 사회경제적 배경지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16권 3호 pp277-304
- 황윤재 외(2017),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소
- 황희연 외(1999),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표 설정-지표개발을 위한 방법모색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58-80

| 부 록 |

1) 제1차 자문회의

- 일 시 : 2021. 1. 29 (금) 14:00 ~ 16:00
- 장 소 : 프레쉬스터디카페 종로본점
- 참석자 : 심○○ 선임연구위원
조용준 연구위원, 김민성 연구위원

- 주요회의내용
 - 수원시 교통 격차
 - 수원시는 교통(기차, 버스, 지하철 등)이 잘 되어 있는 편임
 - 승용차 소유 여부로 교통 격차를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임
 - 교통이라는 것은 수원시만 한정적으로 분석할 수 없음
 - 대중교통 이용자, 운전자,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격차 대상 등 지표선정에 구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연구 방향 및 기대효과
 - 기본적으로 어디서든 적용 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야 함
 - 수원시만의 특성을 살린 몇 개는 따로 분석하는 것이 좋음
 - 교통은 범의 특성상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적음
 - 시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경기도의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임
 - 버스(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도시철도 등 교통수단과의 접근성,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무분별한 교통시설공급 보다는 수원시 과밀문제 해소와 균형발전 등을 위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표 선정을 해야 함
 - 수원시는 광역시에 못지않은 기초지자체로서의 수원시의 특성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타 기초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했으면 함

2) 제2차 (서면)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 일 시 : 2021. 2. 1(월) ~ 5(금)
- 참석자 : 김○○(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남○○(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손○○(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 주요회의 내용
 - 경제 부문 격차 지표
 - 화폐적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단일한 지수 혹은 부문별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 지수 혹은 단순 병렬 지수를 지표로 구축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함
 - 각 부문별 하위 항목의 내용이 중첩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여 기준지표의 층위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타 광역시 혹은 100만 명 내외의 다른 도시의 격차해소 기준지표를 통해 수원시의 격차 정도를 평가해볼 수 있음

 - 행정 부문 격차 지표
 - 행정구역 경계와 인구수 수준을 감안한다면 지표 구성이 최소한 동단위로 이루어져야 함
 - 같은 구라고 할지라도 동단위로 다양한 서비스와 삶의 질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임.
 -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 사회복지 부문 격차 지표
 - 의료서비스를 측정하는 전통적 지표인 지역별 총인구 대비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수를 사용하는 것은 격차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충족 의료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복지제도 혜택 수혜 격차는 기초생활수급 비율, 기초연금수급 비율, 국민연금수급 비율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측면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음
 - 공동체지수, 비공식적 지지체계,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파악을 통해 풍부한 데이터 기반이 필요함

- WHO의 고령친화도시와 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지표기준을 적용 고려
- 주거 부문 격차 지표
 - 분석단위를 구로 할지 동으로 할지를 통해 활용가능한 지표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소득대비 임대료나 매매가격 수준 및 주거약자의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분석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

3) 제3차 자문회의

- 일 시 : 2021. 2. 26 (금) 13:00~15:00
- 장 소 : 마포구 일대
- 참석자 : 김○○(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조용준 연구위원, 김민성 연구위원

- 주요회의 내용
 - 수원시 주거 격차
 - 삼성전자와 인접한 영통, 최근 광고신도는 주거환경과 주택가격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대표됨. 교육여건과 서울 강남에 대한 접근성 등은 수원 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우수
 - 주택의 유형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된 지역
 - 주택이 가진 특성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치의 고정성을 지닌다는 것임
 - 물리적인 특성이 동일(동일한 브랜드의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하더라도 하더라도 입지에 따라 천차만별
 - 수원의 각 지역이 가진 입지적 특성은 어떻게 변화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수원역 서측은 고도제한 등으로 아파트 등 고밀의 주택건축에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외에도 일자리나 소득, 자산 등에서도 차이가 있음
 - 이로 인해 나타나는 주택 문제는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구도심은 낡고 오래된 저층 주택 비율이 높을 것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보다는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저층의 공동주택의 형태로 이들이 생각하는 주거, 주택문제는 영통이나 광고와는 차이가 있음

 - 향후 연구 방향 및 기대 효과
 -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이를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임

4) 제4차 (내부)착수보고회

- 일 시 : 2021. 3. 4 (목) 14:00 ~ 15:00
- 장 소 : 수원시정연구원 컨퍼런스 룸
- 참석자 :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이세구(초빙연구위원)
 조용준(연구위원), 양은순(연구위원), 한연주(연구위원), 이성호(연구위원)
 조한라(연구위원), 김민성(연구위원)

- 주요회의 내용
 - 격차관리 지표발굴의 중요성 및 필요성
 - '격차'에 대한 정확한 논의 및 기준이 필요하고 중요
 - 격차 지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야 및 부분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
 - 해소방안 제시보다는 격차지표 발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함
 - 격차발생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한 유형화가 필요
 - 공공이 관리할 수 있는 격차가 무엇인지가 중요
 - 세부적으로 연구가 가능한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
 - 정성·정량 지표를 각각 구분하여 발굴해야 함

 - 향후 연구 방향 및 기대효과
 - 시민의견의 청취보다는 전문가 자문이 핵심일 것으로 판단
 - 양적격차와 질적 격차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분석하는 편이 좋음
 - 지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통해 연구진행을 한다면 앞으로 타 연구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진들 간의 명확한 정립아래 진행하는 것이 필요
 - 수원시의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격차 지표를 발굴해내는 것이 핵심

5) 제5차 자문회의

- 일 시 : 2021. 4. 9 (금) 15:00 ~ 17:00
- 장 소 : 마포구 일대
- 참석자 : 노○○(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조용준(연구위원), 김민성(연구위원)

- 주요회의 내용
 - 격차 원인 분석 및 연구의 중요성
 - 주거, 교육, 보건, 복지 등의 격차는 소득, 임금격차에서 비롯됨
 - 소득, 임금격차의 해소를 통해 모든 격차를 완화 및 해결할 수 있음
 - 현재 수원시의 격차 및 지표연구에 대한 상황을 파악 후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삶의 질 개선과 행복지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 연구 추진 방향성
 -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원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 발굴을 해야 함
 -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이에 따라 문화차이 및 인구분포에 따른 격차 관리가 필요함
 - 수원시 4개 구 간의 격차요인 분석 및 수원시와 전국 혹은 타 지역과의 격차 요인 분석도 필요함
 - 크게 경기요인, 산업요인, 전국요인으로 분석해 볼 것을 제안

6) 제6차 자문회의

- 일 시 : 2021. 6. 25 (금) 14:00 ~ 17:00
- 장 소 : 한국외대 연구실
- 참석자 : 민○○(한국외대 교수), 노○○(한국외대 교수)
조용준(연구위원), 김민성(연구원)

- 주요회의 내용
 - 기존 지표 관련 논의
 - 성장, 고용과 노동, 소득·소비·자산, 주거와 교통, 인구, 가족, 건강, 교육, 여가, 범죄와 사법정의, 사회통합,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대분류로 나눈 부분이 적합
 - 전국 및 수도권 단위의 지표 결과 데이터는 쉽게 취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원시 및 수원시 각 구의 데이터를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각 구별 데이터는 내부자료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득에 노력이 필요

 - 추가 지표 관련 논의
 - 내부적으로 추가한 지표(복지 관련)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표로 적합하다고 판단
 - 격차는 소득과 임금격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 해야 함
 - 소득과 임금격차 해소가 모든 격차의 완화 및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함
 - 소득과 임금격차에 관련한 추가 지표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현재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의 질 개선과 행복지수에 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함

7) 제7차 자문회의

- 일 시 : 2021. 8. 26 (목) 14:00 ~ 18:00
- 장 소 : 마포구 일대
- 참석자 : 이○○(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상법 전임교수)
 조용준(연구위원), 김민성(연구원)

- 주요회의 내용
 - 격차 지표 발굴 과정 평가
 - 10개 대분류(인구, 건강, 교육·훈련, 노동,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주관적웰빙) 및 중분류, 소분류로 나눈 지표들을 평가
 - 다른 시·도에서 어떤 평가 및 과정을 통해 지표를 도출하고 격차를 해석하는지 유의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격차 관련 법률 자문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음
 - 대통령소속하에 있으며 이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함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본 연구가 적확하다고 판단
 - 법률서비스 격차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수는 늘어났지만 체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
 - 시민들이 자유롭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비용 및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수원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제8차 자문회의

- 일 시 : 2021. 9. 30 (목) 15:00 ~ 18:00
- 장 소 : 국립경상대학교
- 참석자 : 이○○(경상대 지리교육과 교수)
조용준(연구위원), 김민성(연구위원)

- 주요회의 내용
 - 도시공간 및 주거분야 격차
 - 지역 간 격차는 불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결과인 동시에 또 다른 사회적, 경제적 불균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과 개선이 필요
 - 다양한 격차요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생산되는 격차재생산 구조화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공간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함
 - 공간적 격차에 대해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와 발전 속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역별 공간적 차이가 아닌 주민 역량의 차이, 역량을 제한하거나 증진하는 기회의 지리학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연구 방향
 - 수원시의 격차관리 지표의 설정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는 주민 구성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지역 간 차이 혹은 사적 영역과 관련한 지표 보다는 정책적 개입과 반영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고 기회의 불균등한 제공을 해소하는 방향에 필요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야함
 - 공공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같이 사회서비스의 제공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소외계층의 역량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지표와 지역에 내재한 기회의 잠재력을 조정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지표의 설정에 있어서 현상에 대한 관리 성격의 지표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반영한 지표 역시 포함하여 공공정책의 추진방향이나 공간적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추적,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9) 제9차 자문회의

- 일 시 : 2021. 10. 1 (금) 10:00 ~ 12:00
- 장 소 : 동의대학교
- 참석자 : 김○○(동의대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변○○(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전○○(단국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조용준(연구위원), 김민성(연구원)

- 주요회의 내용
 - 문화·체육 격차
 - 문화·체육 격차는 소득 불평등이 원인이기 때문에 지표 분석의 중심은 지역 내, 지역 간 모두 지니계수 또는 소득분위별 분류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문화·체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급차원에서 문화향유기회의 격차와 수요 차원에서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역문화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세부지표별 조사결과를 볼 수 있음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므로 참고하면 좋을 것임
 - 스포츠영역 지역지표 관련하여 국가단위에서 개발하는 지표는 생활체육 참여 실태 중 생활체육 참여현황과 생활체육 소비지출 현황이 있음 또한 스포츠산업과 관련하여 가구별 스포츠 소비지출, 참여스포츠 연간활동지출, 연간 대회참가 지출, 관람스포츠 연간 직접경비 정도의 지표들을 도출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수원시에 맞게 재가공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연구 방향
 - 수원시 내 주요 문화·체육 시설과 관련한 통계자료의 평균(절대적 격차)과 변이계수(상대적 격차)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는 수원시의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예를 들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영화관, 과학관 등)
 - 수원시는 프로야구 및 프로농구, 프로축구 등이 있기 때문에 격차 분석에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카드사용 및 입장, 소비 등을 분석하여 지역 내, 지역 간 문화·체육 격차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임

10) 제10차 자문회의

- 일 시 : 2021. 11. 11 (목) 15:00 ~ 18:00
- 장 소 : 종로구 일대
- 참석자 : 김○○(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송○○(희망제작소 이사), 조용준(연구위원)

- 주요회의 내용
 - 주거격차 해소
 -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도한 주거지 부담은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며 주거불안을 야기
 - 주택공급 정책 추진으로 양적인 주택 부족 현상은 완화되었으나 소득 계층 간 주거격차는 해소되지 못함
 - 주거격차는 근본적으로 소득과 보유자산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거격차로 인해 소득과 자산격차가 확대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짐
 -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로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표개발의 필요성이 있음
 - 생애주기에 따른 주택소비실태 조사를 통해 선제적 연구가 필요함

 - 주민거버넌스 도출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실업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산업저하, 주거지의 황폐화 진행
 - 다각적 측면에서의 쇠퇴지역 활성화 요구와 더불어 사회·문화·생활 인프라의 질 강조에 초점을 맞춰야함
 - 사회 통합적 도시재생의 이슈화에 따른 다양한 개념과 이해관계를 포함시키는 주민거버넌스 중요성을 인식해야함
 - 광범위하고 다양한 학제적, 산학연 협력적 연구와 실험이 중요하며, 새로운 계획관련 지식의 축적과 보완이 필요함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n urban indicator to identify the level of disparity among citizens. The social disparity has become a major issue with rapid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e government has promoted various policies to resolve the 'gap' which is a social conflict. In the literature, federal government based studies on poverty, income and employment were mainly conducted in the past, however, the recent research trend has shifted to the quality of life such as disparity of health, education, elderly employment, and housing.

Considering previous studies and present cases, 33 primary indicators which could be compared with national, provincial, city and districts were selected. Since then, 12 secondary indicators were finally derived by excluding indicators that contain subjective contents and/or could not explain the disparity phenomenon in Suwon city. In addi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to supplement the indicators that were only archived in the national comparison unit at this moment and to measure satisfaction and happiness of life. Through this survey, it is possible to measure subjective satisfaction in the various area, moreover, easier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variables on happiness. A measure of induces in individual life are health, education, economic activity, culture, leisure, housing, safety and well-being.

This result may contribute to guaranteeing the objectivity of policy decisions and to expanding the political base for improving citizens' quality of life by accumulating and monitoring the data. Efforts to reduce the gap in the policy make citizens happier and more satisfied in their life and policy.

(※ 핵심주제어 5개 내외 필수 기입)

Keyword : Gap indicator, Quality of life, Survey, Happiness index, Resolving inequality

| 저자 약력 |

조용준

경제학 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naya@suwon.re.kr

주요 저서

「야구박사의 경제코칭」 (2019, 가화만사성)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사회적 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0,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시정홍보 증장기 전략 연구」 (2020, 수원시정연구원)

김민성

사회학 박사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현)

E-mail : mincastle@suwon.re.kr

